

보인다! 10.0

세종대왕

(세종에서 대학 왕 잘가자!)

생활 사전



2026
보인다 시리즈
보인다.com

학교생활부터 공부법,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까지!
세종우리누리 멘토들과 함께 알아보는
✨ ✨ 고등학교 생활의 모든 것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CAREER EDUCATION INSTITUTE



세종 우리누리

목차

1부	세종우리누리란?	3
2부	학교 생활 가이드	5
3부	과목별 공부 방법	22
4부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가이드	66
5부	우리누리 멘토들의 교양 칼럼	104



1부. 세종 우리누리란?



Q.세종우리누리는 어떤 단체인가요?

세종우리누리는 2018년 창립된 교육봉사단체입니다. 당시 학교들이 개교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른 도시들과 달리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선배 없는 학교의 선배가 되자.”는 모토로 지금까지 달려온 교육봉사 멘토단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많이 발전하고, 각 학교에도 좋은 선배들이 생겼지만, 저희 세종우리누리는 여전히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매 학기말과 방학 중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Q.세종우리누리에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종우리누리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봉사’단체이니만큼, 면접을 통해 활동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유심히 검토하여 멘토를 선발합니다. 저희가 멘토 모집 때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지점은, 자신의 학과 공부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였는지, 후배들을 위해 어떤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제공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세종우리누리 활동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입니다. 그 외에도 재학 중인 학과, 교육 관련 경력, 임원직 신청 여부 등을 참고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선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입니다.

Q.세종우리누리는 무슨 활동을 하나요?

세종우리누리는 교육에 관련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년 여름 개최되는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대학생 상담 부스를 전담하여 기획 및 운영하고 있으며, 매 방학마다 학교생활기록부 및 진로진학 멘토링을 진행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멘토링을 진행하며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고, 「교양 토크 멘토링」을 통해, 대학 입학 앞둔 예비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교양 과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열의 학생들이 만나 학술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자 시작한 「아고라 프로젝트」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초 학습을 돕는 「학습길라잡이 멘토링」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이 세종우리누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부.

학교생활 가이드



[국제고 생활 가이드]

권나영 멘토

국제고등학교 입학에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국제고에 가면 영어만 잘하면 되나요?”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저 역시 국제고를 영어를 많이 배우고 국제 이슈를 깊게 공부하는 학교 정도로 생각하며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국제계열 교과를 배우고 다양한 학술·정책 활동에 참여하면서, 입학 전 제가 생각했던 국제고의 모습이 꽤 단편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국제고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영어를 많이 사용하거나 국제 이슈를 공부한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사회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해결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제정치와 국제법에서 배운 내용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하고, 설문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거쳐 정책과 법률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국제고에서의 3년은 ‘배운 것을 어디까지 현실에 적용해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 교실에서 배운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

이 글에서는 교실 안에서 시작된 배움이 교실 밖의 다양한 활동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제가 보낸 국제고 3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국제고에서는 국제정치, 국제법, 비교문화, 한국사회의 이해, 사회탐구방법 등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문교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과목들은 각각 분리된 지식을 배우는 수업이라기보다, 하나의 사회현상을 여러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 과목들에 대해, 제가 밟아온 길을 따라서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정치 수업에서는 ‘나이저강 삼각주 분쟁’을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원인에 대한 해석과 해결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다룰 때는 주요국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제적 협력 포럼을 제안하며 국가 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국제법 수업에서는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을 통해 죄형법정주의와 재판의 공정

성, 속지주의의 예외, 상부 명령에 따른 행위의 책임 등을 검토했습니다. 국제법이 현실에서 갖는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공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수업에서는 OHCHR와 UNESCO의 IFAP 자료를 바탕으로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각국의 '디지털 평등 보고서' 제출과 노인 친화적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국제고의 수업은 개념을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실제 사회문제에 적용하고 나름의 해결방안까지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사회탐구방법 수업에서는 사회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청년들의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정치참여 의지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부터 질문지 설계, 온라인 조사와 데이터 분석까지 직접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인공지능 기초와 실용통계 수업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교내 학생들의 동성애 인식을 조사해 통계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고용동향을 BSI와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좋은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수업을 경험하면서 내가 가진 문제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 배운 것을 직접 써보는 경험: 정책 아카데미와 모의 활동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사용해볼 기회가 많았다는 것도 국제고 생활에서 좋았던 점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정책 아카데미와 모의국회, 모의기후소송, 모의 UN총회였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 구의회, 시의회, 국가 단위의 정책 아카데미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문제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정책을 만들어보니 하나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3학년 국가 정책 아카데미에서는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발생하는 원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당시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지만, AI 학습 과정에서 기존 창작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직접 『저작권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작성했습니다. ‘AI 저작권’, ‘AI 저작물’, ‘인간 저작자’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인간 저작자의 사용 동의·비동의 표시 의무와 출처 표기, 영리 목적 이용 시 허락 의무, 무단 이용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구성했습니다. 막연하게 “창작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를 실제 법률의 형태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야 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까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구의회 정책 아카데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다뤘습니다. 단순히 ‘분리수거를 잘하자’는 캠페인만으로는 행동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학교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비우고, 제거하고, 찌그러뜨리는’ 3단계 교육 캠페인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지역 안전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대구 북구의 팔거천과 침산지구 등 침수 위험 지역과 약 30%에 달하는 불투수면 비율을 조사한 뒤, 하수구 덮개 제거 권고와 투수포장 확대, 옥상정원 조성, 자연재해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북구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 및 교육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시의회 정책 아카데미에서는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을 읽은 것을 계기로 저출산과 청소년 복지 문제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대구 지역 청소년들의 월평균 교통비와 교통카드 빅데이터 시스템을 조사하면서 기존의 지하철 중심 교통복지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 14세에서 19세 사이 다자녀 가구 자녀에게 버스 무료 탑승 혜택을 제공하는 『新 아이조아카드』 정책을 기획했습니다. AI 저작권부터 플라스틱, 침수, 저출산까지 주제는 모두 달랐지만 활동을 반복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사회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정책의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려면 누가 정책의 대상인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기존 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했습니다. 모의 활동에서는 조금 다른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책 아카데미가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구체화하는 경험이었다면, 모의 활동에서는 때로 제가 동의하지 않는 입장까지 맡아 그 논리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교내 모의 UN총회에서는 사무차장으로 회의 절차와 의제를 기획하는 동시에 제3위원회 쿠바 대표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더반선언의 원활한 이행’을 주제로 쿠바의 입장에서 기조연설을 작성해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더반 리뷰 컨퍼런스 불참 문제를 지적하고 쿠바의 혁명 이후 헌법 개정과 문맹률 개선 사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후에는 역사적 피해국과 가해국 사이의 실질적인 사과와

보상을 위한 로드맵과 불참국에 대한 조항 등을 포함한 결의안 작성에도 참여했습니다. 모의기후소송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대 미래세대인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는 구도로 소송을 기획하고 환경부장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제가 반드시 동의하는 주장만을 말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감축목표 변경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고 P4G와 파리협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맞서, 정부의 국제협력 노력과 행정적·사법적 한계를 근거로 반박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 측 입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후교육에는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다른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이 꼭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해야 제 주장도 더 분명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3. 결국 사회문제는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국제고에서 여러 사회문제를 공부하다 보니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3년간 활동한 세계인권연구동아리 CO:URT였습니다. 1학년 입학 후 제가 창설한 본 동아리는, 《침묵의 봄》, 《탄소사회의 종말》,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등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와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대구 낙동강 폐놀 사건을 다시 조사하면서 환경오염이나 기후재난의 피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일수록 같은 재난에서도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면, 기후교육 역시 단순히 환경보호만을 이야기하기보다 법·행정·철학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관련 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활동의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형식의 모의법정을 기획해 변호인으로 학교폭력과 정당방위 문제를 다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학술제 부스와 노랑나비 반지 만들기, 포토부스 행사 등을 운영했습니다. 3학년에는 ‘세계시민 인권선언문’을 기획해 행복추구권을 중심으로 일상과 세계 차원에서 필요한 인권보호 조항을 부원들과 함께 작성하고 수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권’이라는 말을 굉장히 크고 거창한 가치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인권은 결국 구체적인 사람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숙사 생활 역시 국제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습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활방식을 조정하고 함께 정한 규칙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친구들끼리 부족한 과목을 가르쳐주는 멘토·멘티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기숙사 생활 봉사 표창과 준법 표창, 모범학생 선행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업에서는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에 대해 공부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공동체를 배운 가장 가까운 장소는 오히려 기숙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창한 사회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4. 국제고 3년을 돌아보며

국제고에서 했던 활동들을 지금 다시 돌아보면 서로 전혀 다른 경험처럼 보였던 것들이 몇 가지 공통된 배움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배운 것을 질문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사용해보는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둘째,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셋째, 사회문제를 공부할수록 데이터와 사람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국제고에서의 3년이 항상 쉽지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서와 해외 보고서를 읽고, 정책제안서와 법률안을 여러 번 수정하고, 수업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같은 경험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국제고는 모든 기회를 알아서 제공해주는 학교라기보다, 궁금한 것을 직접 찾아보고 배운 내용을 새로운 활동으로 연결하려는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고 진학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보다 먼저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궁금한 것이 많고, 그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직접 찾아가고 싶은가요? 물론 국제고에 입학한다고 해서 모든 사회문제의 정답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국제고에서 정답을 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하며 나름의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일반고 생활 가이드]

남궁훈 멘토

전국의 2000개가 넘는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 자율고 등을 제외한 약 1600개의 학교가 일반고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하게 되는 학교인 것이지요. 이 글에선 수많은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 학교 생활과 더불어 뻘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필자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본 경험이 없을뿐더러, 일반고 출신이기에 당연히 일반고를 제외한 고등학교에 대한 것들엔 무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야기할 것들이 일반고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철저히 일반고 학생들의 선배가 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1. 내신

일반고에 진학한 여러분은 특별할 것 없는 교육과정에 따라 3년 동안 대학 입시를 위한 내신 시험을 치르고 수능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신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내신을 빼놓을 수는 없지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듯,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은 대학 입시에 반영됩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일반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이 다섯 학기 동안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도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먼저 지나온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조금 덜 헤매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조금은 뻘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바로 내신 시험의 본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신은 수능과 달리, 여러분을 가르친 바로 그 선생님이 출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수능은 전국의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만든 시험이기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낱설지만, 내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 필기하라고 한 내용, 지나가듯 덧붙인 예시가 그대로 문제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조금은 반항적인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학원에서 알려 준 것으로 공부하면 다 맞던데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다만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을 때의 장점은 공부의 효율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교 선

생님의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필기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수업 내용이 1차적으로 정리됩니다. 이후 복습을 하거나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이 더욱 각인되고, 공부한 내용이 쉽게 휘발되지 않는 지식의 형태로 남게 됩니다. 즉, 학교 수업은 단순히 진도를 나가기 위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초기의 학습 단계이자, 학습 내용의 토대를 다질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내신 과목 중 국어와 영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학생이 두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그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몇 가지 팁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어와 영어 내신 시험의 공통점을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많은 양의 '지문'입니다. 국어에서는 비문학 글과 문학 작품이, 영어에서는 교과서 본문과 짧은 단일 지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시험 모두 실제 시험지에 나오는 지문을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알려 준다는 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도, 아직 공부가 어려운 학생에게도 같은 지문이 주어지지만 결국 각기 다른 성적을 받게 됩니다. 이 차이는 근본적으로 '지문 숙지 정도'에서 나옵니다. 똑같이 주어진 지문을 시험 전에 누가 더 잘 이해하고 숙지했는가에서 성적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은 지문을 대충 공부한 뒤 학원에서 준 문제만 계속 풀곤 합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주는 문제는 여러분의 지문 이해도를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시험 대비 공부의 전부는 아닙니다. 문제 풀이에만 연연하기보다 지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는 데 집중하길 바랍니다.

2. 인간관계: 좋은 친구는 좋은 성적만큼 값집니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은 앞으로 사회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관계를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성격도, 생각도, 관심사도 제각각인 친구들과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고등학교 3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고, 그 시간을 함께 지나갈 친구들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험을 망친 날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모르는 문제를 서로 물어보며 함께 공부하는 친구는 성적만큼이나 소중한 고등학교 생활의 자산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 보고, 다양한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려 보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과 분위기에 휘말리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시험 기간인데도 반 전체가 들떠 공부

를 놓아 버리는 분위기, 누군가를 두고 험담이 오가는 분위기, “다들 그러는데 뭐 어때”라는 말로 넘어가는 분위기는 교실 안에서 생각보다 자주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있으면 혼자만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금방 지나가도, 그때 내린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여러분의 몫으로 남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라면 여러분이 분위기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되,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심했으면 하는 것은 성적을 둘러싼 분위기입니다. 내신은 등급으로 나뉘는 시험이다 보니, 시험이 끝나면 누가 몇 점을 받았는지, 몇 등급이 나왔는지가 교실의 가장 큰 화젯거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성적이나 공부 실력으로 친구들을 줄 세우는 학생들도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친구와 나를 비교하게 되고, 점수를 들킬까 봐 위축되거나 친구의 성적이 신경 쓰여 정작 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적은 여러분을 설명하는 수많은 것 중 하나일 뿐, 사람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적 이야기가 불편하다면 굳이 내 점수를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의 점수를 먼저 묻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배려입니다. 비교해야 할 대상은 옆자리 친구가 아니라 지난 시험의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3.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기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일반고 생활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많은 학생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자신이 인문계열로 가야 할지, 이공계열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 제대로 고민할 시간과 기회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갑자기 계열을 고르고 선택 과목을 정하고 희망 진로를 적어 내라고 하니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른다’는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선택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때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해 보길 바랍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행복했는지, 어떤 탐구를 하다가 흥미를 느꼈는지 떠올려 보고, 그 순간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선택도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한 끝에 고른 길이라면, 설령 조금 돌아가게 되더라도 그 시간마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고등학교 3년이 그저 입시를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알아 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 끝맺는 말

일반고에서의 3년은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매 학기 돌아오는 내신 시험에 쫓기고, 친구들 사이에서 오가는 성적 이야기에 괜히 위축되기도 했으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 막막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흔들리며 보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고는 정해진 길을 먼저 내밀어 주는 곳이 아닙니다. 대신 수업 한 시간, 친구와 나눈 대화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작은 관심 하나를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3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 진학한 후배들에게 성적보다 먼저 묻고 싶습니다. 주어진 하루를 그저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나만의 무언가를 찾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일반고에서 남들보다 대단한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 기준을 지키는 법, 옆 친구가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법,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일반고에서 얻은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3년이 성적표와 생기부 몇 장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알게 된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응원합니다.

[과학고 생활 가이드]

이세호 멘토

과학고에 가고 싶었던 이유를 지금 돌이켜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냥 과학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뉴턴》 같은 과학 잡지를 읽었고, 그때의 꿈은 천체물리학자였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이과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민사고에 지원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제 의지로 과학고를 선택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간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1. 선행 없이 들어간 과학고

입학하고 가장 먼저 실감했던 것은 과학고에서 내신을 받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1학년 때 전교생이 약 80명이었는데, 저는 뒤에서 20등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과학 과목에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입학 전에 과학 선행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 보니 많은 친구들이 이미 상당한 양을 공부하고 온 상태였습니다. 1학년 때 물리에서 7등급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선행을 하지 않았고 아직 1학년이었으니 앞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도 한 번의 시험 결과에 크게 기뻐하거나 크게 낙담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온 것이고, 못 나오면 다음에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실력을 보면서 제가 모르는 것이 정말 많다는 사실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제게 거의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업을 듣고 외워도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해력이나 습득력, 공부할 수 있는 체력 자체가 다르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과학고에 들어오면 자신이 중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이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 싫어했던 수학을 좋아하게 되기까지

재미있는 것은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고에 들어왔는데, 지금의 저는 KAIST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히려 중학생 때까지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만큼은 선행학습을 해왔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온 뒤부터 조금씩 수학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성적도 1학년 때부터 대략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식으로 점차 올랐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시 4등급을 받기도 했지만, 시험 등급과는 별개로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풀 때 제가 수학 문제를 꽤 잘 푼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고의 수학 수업 중 기억에 남는 방식도 있습니다. 연습 문제의 문항을 학생들이 하나씩 맡아 직접 칠판 앞에 나가 풀이를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수업이라기보다 서로 문제를 풀고, 자신이 푼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학을 좋아하게 된 데에는 이런 경험도 영향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과학 실험은 생각보다 저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과학고에서는 일반 교실과 실험 공간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서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회절이나 굴절 같은 광학 현상을 관찰했던 물리 수업은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실험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화학과 생명과학 실험은 난도도 높아 힘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부터 실험보다는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쪽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 하루 종일 공부한다는 것

과학고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공부량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아침 7시 무렵 일어나 오전 수업을 듣고, 점심 이후 다시 오후 4시 무렵까지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는 자습 시간이 있었고, 저녁 식사를 한 뒤 밤 9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간 뒤에도 다시 자습을 해서 거의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야자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악으로 강으로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저녁시간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공부했고, 대신 피곤하면 10분짜리 쉬는 시간에 짧게 잠을 잤습니다. 1, 2학년 때는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방학이라고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과 공부에 사용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의외로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공부의 힘든 점은 오늘 하루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무엇이 달라졌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동처럼 기록이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게임처럼 경험치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때 공부했던 것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제 사고방식과 실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의 저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고, 후배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이든 오랫동안 꾸준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늘었는지는 자신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내가 오늘 몇 시간 공부했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알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압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 그것들이 어디엔가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4. 연구보다 먼저 공부를 택했던 이유

과학고에서는 매년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정해서 팀 단위 연구를 진행하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분야별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한 팀에는 상도 주었습니다. 저는 네 명이 한 팀이 되어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연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공지능과 코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정보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고, 지금도 대학에서 인공지능 동아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합치면 관련 활동을 거의 6년째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시 연구 활동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느 정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창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다’고 말하듯, 기존에 무엇이 알려져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그다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의 저는 여러 활동에 에너지를 분산시키기보다 공부 자체에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같은 프로젝트를 다시 맡는다면 접근 방법은 꽤 다를 것 같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다면, 지금의 저는 그전에 “이 문제가 제대로 정의되어 있는가?”, “우리가 찾으려는 해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유일한가?” 같은 질문부터 할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기 전에 그 문제 자체가 잘 정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이런 변화가 오히려 더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5. 성취감이 없어도 계속하는 사람

2학년 2학기에는 화학 시험에서 전체 1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

하게도 그때 특별한 성취감을 느꼈던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이루거나 칭찬을 받아도 엄청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KAIST에 합격했을 때도 “드디어 합격했다!”라며 크게 신났다가보다는 “아, 이제 끝났구나”라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성취감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야 할 것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대학에 온 뒤에도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수학을 전공하면서 전기전자공학을 복수전공하고 있고, 여전히 통계학과 해석학, 확률론 같은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인공지능이 재미있었다면, 지금은 그 뒤에 있는 수학과 확률, 통계가 궁금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관심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방향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 공부가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대학에 와서 알았습니다

고등학생 때의 저는 꽤 극단적이었습니다. 공부가 가장 중요했고, 나 혼자 실력을 충분히 쌓으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 외의 활동에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야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3학년이 되어 조금 여유가 생긴 뒤에야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던 기억 정도가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 선택 자체를 크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했던 대학에 오고,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것을 계속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그 시간이 분명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와서 하나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혼자만 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필요한 순간도 있었고, 선생님이나 선배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었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제가 필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의 저를 다시 만난다면 공부를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하면 돼. 잘하고 있어.” 다만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나간 인연은 생각보다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공부는 나중에도 다시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도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붙잡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에게 먼저 다가와 준 사람,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조금 더 시간을 써봤어도 좋았겠다

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 공부도 사람도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7. 과학고에 갈까요?

중학생 후배가 저에게 “과학고에 갈까요?”라고 묻는다면 저는 쉽게 가라고도, 가지 말라고도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의 인생을 제가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과학고는 분명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니다. 과학을 좋아해서 스스로 선택했고, 저보다 훨씬 뛰어난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했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학을 좋아하게 되었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이야기입니다. 같은 학교에서도 사람마다 얻는 것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너무 쉽게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조언해주는 사람과 나를 평가하는 사람을 구별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듣되 마지막 선택은 스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고에 가든 가지 않든, 어떤 대학에 가든 가지 않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마 선택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고 밥 한 끼 사주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해주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과학고 생활을 돌아보며 과학고에서 보낸 시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 견뎌냈습니다.

당시에는 하루하루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몇 시까지 공부하는지 관심이 없었고, 제가 하루에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꾸준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가는 길은 달라졌지만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해온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 그 분야에서 자기만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는 적어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계속

쌓입니다. 다만 그렇게 달리는 동안 가끔은 주변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면서 얻는 것은 오래 남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열심히 살되, 자신의 선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과학고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한 공식이나 과학 지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을 오래 붙잡고 있는 법,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 속도로 계속 가는 법, 그리고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3부.

과목별 공부방법



2부 과목별 공부법을 시작하며

《세종대왕 생활사전》 2부 ‘과목별 공부법’은 수능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내신 선택 과목의 경우 학교마다 개설되는 과목과 수업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한 수능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과목 체계가 달라집니다. 국어·수학·사회·과학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각각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특정 탐구 과목 하나만을 깊이 공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분야의 개념을 연결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힘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다만 두 과목은 여러 학문의 핵심 개념을 한데 모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내용이 어떤 분야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해야 개념 사이의 관계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개념을 익힐 때에는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경제·윤리·정치와 법·지리·사회·문화처럼 각 분야의 사고방식과 핵심 내용을 구분해 살펴보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이후에는 이를 다시 연결하며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에 이 가이드에서는 통합과학과 통합사회의 내용을 학문적 성격과 핵심 개념이 비슷한 영역끼리 묶어, 통합과학은 네 분야, 통합사회는 다섯 분야로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실제 수능의 과목 구분이 아니라, 방대한 통합 과목을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한 안내 방식입니다.

통합과학

- 물리: 중력장 내의 운동, 충격량과 운동량
- 화학: 원소의 형성, 원소의 주기성,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물질의 전기적 성질
- 생명과학: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물질대사, 유전자와 단백질
- 지구과학: 별의 진화,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판 구조론과 지각 변동

통합사회

- 경제: 시장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 윤리: 인간·사회·환경과 행복, 사회정의와 불평등
- 정치와 법: 인권 보장과 헌법, 세계화와 평화
- 지리: 세계화와 평화,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자연환경과 인간
- 사회·문화: 통합적 관점, 문화와 다양성, 생활 공간과 사회
-

이제부터는 각 과목의 특성에 맞추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법과 언어 공부법]

박주영 멘토

화법과 언어는 크게 ‘화법’과 ‘언어’의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많은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 장벽을 느끼는 영역은 ‘언어’, 즉 문법입니다. 개념의 수가 적지 않은 데다 비슷해 보이는 개념을 세밀하게 구별해야 하고, 때로는 직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예외와 용례까지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법 영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0. 문법의 본질

문법은 다른 국어 영역과 비교했을 때 다소 독특한 성격을 지닙니다. 문법이 무엇을 연구하는 영역인지 이해하면, 왜 문법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로서 문법을 명시적으로 배우기 전부터 이미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어린아이는 ‘주어’, ‘형태소’, ‘음운 변동’과 같은 개념을 알지 못하더라도 문장을 만들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실제 언어생활 속에서 언어의 규칙을 상당 부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말’이 먼저 존재했고, ‘문법’은 그 뒤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해 온 언어 현상 속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찾아내고, 이를 학자들이 분석하여 하나의 체계로 정리한 것이 우리가 배우는 문법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문법에는 학생 입장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실제 언어는 오랜 시간 수많은 화자가 사용하며 변화해 온 것이므로 언제나 하나의 단순한 원리로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복잡한 언어 현실을 일정한 개념과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에서 예외가 생기거나, 일상적인 직관과 문법적 분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문법을 처음 배울 때는 자신의 언어적 직관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새로운 학문적 체계를 배운다는 태도로 정의와 분류 기준을 꼼꼼하게 익혀야 합니다.

1. 개념의 N회독

문법을 공부한 학생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배울 때는 알겠는데 조금만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문법 공부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기억하려

하기보다, 여러 차례의 회독을 거치며 빈틈을 메운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문법은 각각의 개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새로운 개념을 익힌 뒤에야 앞부분에서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운 변동 파트를 처음 배우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면 그대로 연음한다”와 같은 설명을 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직 형태소 개념을 배우지 않은 학생이라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형태소 단원을 학습하고 나서 다시 음운 변동으로 돌아오면, 이제 개념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문법에서 회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3회독’, ‘5회독’과 같이 단순히 반복 횟수를 채우는 데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독의 목적은 같은 내용을 기계적으로 여러 번 읽는 데 있지 않습니다. 회독을 통해 개념 사이의 연결 관계를 발견하며 본인의 문법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길 바랍니다.

또한 문법에서는 이해와 암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법은 이해해야 하나요, 암기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각각의 내용을 아무런 맥락 없이 외우는 것보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암기하는 편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의와 개념, 예외와 주요 용례가 필요한 순간에 즉시 떠올라야 합니다. 결국 이해는 암기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암기는 이해한 내용을 실제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2. 개념과 별개로 ‘용례’는 철저하게 익혀야 합니다

문법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법은 수학처럼 이해와 적용이 주가 되는 과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미역’의 ‘돌-’은 접사입니다. ‘군밤’의 ‘군-’은 어근인 반면 ‘군것질’의 ‘군-’은 접사입니다. ‘늡다’는 동사이지만 ‘늡다’는 형용사이며, ‘있다’는

땅고 막 (파) 중마르다 (형) 매마르다 (형) 날고 지 (파) 날침 승 (파) 면침 (파) 면 쪽에 (파) 눈 흘 (파) 눈 뜸 (파) 물계 미어 복장년 (파) 계설구 (파) 계고기 (파) 한시름 (파) 한식삼 (파) 갈아 입히 다 (파) 바 조장 (파) 다 (파) 첫사왕 (형) 열구름 (파) 늡다 (파) (강마르다 매마르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 접두사(파)만 V→Adj. 지배적 형사 (예외)	뒤뚱다 / 뒤섞다 한시름 · 한바름 취들글다 취만다 가웃다 (은 (어제) 만일) 익행비 (파) 원수 (파) 사름들 (은 (어제) 만일) 괴약이다 등등: 애쓰다 (은 (어제) 만일) 말리: 배운 (파) 주파 (파) 이름 박 (파) 굴각잡다 (은 (어제) 만일) 삼방: 삼 (파) 방 (파) 창물 (은 (어제) 만일)
--	---

<‘단어의 형성’파트 오답노트 예시>
문맥에 따라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처음 접한 학생이라면 “왜 비슷해 보이는데 분류는 다르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분류에는 문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시험장에서 처음부터 원리만으로 추론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문법 문제에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즉각적인 판단이 쉽지 않은 용례가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의 상당 부분은 결국 ‘많은 문제를 풀면서 용례를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틀린 문제에서 만난 낯선 용례는 반드시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다시 길게 필기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혼동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개념과 용례 숙지는 완벽한데 왜 자꾸 틀리죠?

고난도 기출 문제를 모아 분석하며 실전 풀이 요령을 문제를 통해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법은 기출문제 분석이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평가원에서 변별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은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문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35. ㉠에 따를 때, <보기>에 제시된 ㉡~㉤ 중 그 내부 구조가 동일한 단어끼리 묶은 것은?

<보 기>	
○ 동생은 오늘 ㉡ 새우볶음을 많이 먹었다.	
○ 우리는 결코 ㉢ 집안싸움을 하지 않겠다.	
○ 요즘 농촌은 ㉣ 논밭갈이에 여념이 없다.	
○ 우리 마을은 ㉤ 탈춤놀이가 참 유명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023학년도 수능 35번>

다른 예시와 독립적인 분석이 중요하다는 실전 문제풀이 방법을 깨닫게 해주는 문제입니다. 출제자는 이러한 관성적 판단을 자주 함정으로 활용합니다. 위 문제에서 ‘새우볶음’은 ‘새우/볶-/음’, ‘집안싸움’은 ‘집/안/싸우-/ㅁ’, ‘논밭갈이’는 ‘논/밭/갈-/이’로 분석됩니다. 여기까지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면 ‘탈춤놀이’도 자연스럽게 ‘탈/춤/놀-/이’로 분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반드시 기본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춤’은 명사 ‘춤’이 아니라 동사 ‘추다’의 활용형이므로, ‘탈춤놀이’는 ‘탈/추-/ㅁ/놀-/이’로 분석해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앞의 분석을 따라가지 말고, 각 사례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형태소를 분석 시에 활용형을 보았을 때 반드시 기본형으로 되돌려 확인하자” “앞 선지와 독립적으로 분석하자” 등의 본인만의 실전 문제풀이 요령을 명제화하여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독서와 작문 공부법]

김지우 멘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수험생 여러분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아마 '혼란'이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수능 국어에서는 '독서'와 '문학'이 공통이고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시험을 치르는 시스템이었으나, 이제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독서와 작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묶여 모두가 같은 시험을 치르게 되었으니까요.

처음에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국어 영역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독서와 작문'으로 함께 묶였을 뿐, 본질은 여러분이 늘 마주해왔던 '글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힘'을 요구하는 '독서'와 '출제자의 조건에 맞게 생각을 구성하는 힘'이 필요한 '작문'을 평가하는 과목입니다. 출제진이 묻고자 하는 핵심을 꿰뚫고 있다면, 과목의 형태가 조금 바뀐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서와 작문'은 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과목일까요? 제가 수험생활을 거치며 깨달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독서

흔히 많은 학생이 국어 영역에서 '독서' 지문을 가장 두려워하곤 합니다. 낱설고 방대한 정보가 뱅뱅한 줄글로 쏟아지는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히고 '짧은 시간 안에 이것 다 읽고 문제를 어떻게 풀지?' 라는 생각에 결국 시험지 맨 뒤로 미루며 스스로와 타협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독서를 맨 뒤로 미룬다고 해서 마법처럼 없던 시간이 생기거나 이해력이 솟아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에 쫓겨 글자만 눈으로 훑다가 정답을 찍어버리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독서 지문 앞에서 매번 작아질까요? 이는 배경지식이 부족해서도, 어릴 때 책을 적게 읽어서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국어에서 요구하는 독해력은 배경지식이 풍부한 사람만 풀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문 안에 답의 근거가 전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독서를 꺼려하고 힘들어 하는 이유는 지문을 '어떻게 읽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그 구조적인 나만의 독해 기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구조적인 독해 기준을 세우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① 문단 요약의 습관화

독서 영역에서 가장 큰 함정은 지문을 ‘눈으로 훑어 내려가는 행위’ 자체를 공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기 위해 선지를 본 순간,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싶어 다시 지문으로 눈 돌린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글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글자를 눈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문단 요약 습관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한 문단을 다 읽었다면 바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3초 정도 멈춰 지문 옆 여백에 ‘핵심어+핵심 내용’을 한 줄로 요약 작성하는 공부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시로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풀어보았을 2027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4~9번] 문제의 지문의 일부를 한 줄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문단: 종 차별주의의 정의 + 동물에 대한 도덕적 지위 부정
- 2문단: 종 차별주의 옹호 논거 + 한계

이렇게 지문의 뼈대를 스스로 간단하게 정리하며 공부하면, 글 전체를 조망하는 눈이 생겨 문제 풀이 시간이 줄어듭니다.

② 정보의 기호화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학·기술 지문이나 경제 지문은 인과 관계 파악이 핵심입니다. 지문에서 “비례한다”, “~할수록 ~한다”, “원인이 된다”는 문장이 나오면 그저 줄글로 읽지 말고 화살표(↑, ↓, ↔, →)를 활용하여 지문 옆에 표시해 두세요. 선지에서는 보통 이러한 비례, 반비례 관계를 뒤집어 오답을 만들곤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식으로 가볍게 표시해두면 문제의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③ 지문과 선지의 1:1 매칭 훈련

“지문 안에 모든 답의 근거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 가능하지만, 막상 실전에서 개인적인 ‘주관’이나 ‘감’이 개입해 문제를 틀리기 마련입니다. 고등학교 국어는 수험생 개인의 상상력이나 주관적 배경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즉, 선지의 정답과 오답 판정 기준은 100% 지문 문장 속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감으로 읽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평소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다음 단계를 거쳐보세요.

STEP 1. 지문에서 ‘근거’ 찾기

문제를 풀고 채점한 뒤, 맞았든 틀렸든 간에 ‘선지의 판단 근거가 된 정

확한 문장은 어디인지'를 지문에서 찾아 직접 밑줄이나 형광펜을 그어보세요.

만약 지문에서 정확한 문장을 찾아내지 못한 채 “대충 이런 느낌”을 근거로 고른 선지가 있다면, 그것은 찍어서 맞힌 것에 불과합니다.

STEP 2. '바꿔쓰기' 간파하기

평가원은 지문의 단어를 그대로 선지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지문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쓴 표현을 선지에서는 '교류한다'나 '영향을 주고 받는다'처럼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살짝 바꾸어 출제합니다.

그렇기에 채점 후 근거 문장과 선지를 비교해보며 '지문의 이 단어가 선지에는 어떤 어휘로 바뀌었는지'를 눈으로 대조해 보세요. 그 순간 국어는 막연한 독해라기 보다는 '숨은그림찾기'처럼 '짝 맞추기'로 바뀌어 정답 선지를 찾는 데 훨씬 용이해집니다.

2. 작문

사실 작문은 화려한 독해 스킬이 필요한 영역이라기보다는, 문제의 조건에 충실하기만 해도,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렇기에 '빨리 푸는 꼼수'를 찾아보는 것에 시간을 쏟기 보다는, 발문과 조건을 정밀하게 읽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작문에서 한두 개씩 어이없게 틀려요”, 혹은 “다 읽고 푸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라며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매일 아침 첫 공부를 작문 문제로 시작해 보세요. 이미 다른 과목 공부로 뇌가 활성화된 오후나 밤에 국어, 특히 작문 파트를 푸는 것은 실전 감각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능 국어는 시험 당일 가장 긴장된 상태로 마주하는 오전 '1교시 첫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뇌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아침 시간에, 적당한 긴장감과 시간 압박을 느끼며 매일 작문 2~3세트를 꾸준히 풀어본다면 실전 적응력과 처리 속도는 반드시 상승합니다.

고등학교 국어, 특히 수능과 내신 문제에서의 작문은 직접 멋진 글을 쓰는 논술 시험이 아닙니다. 출제자가 글을 계획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초고를 써서 퇴고하는 '글쓰기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객관식 문제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작문 역시 앞서 강조한 '독서'파트와 마찬가지로, 지문의 키워드와 선지의 조건을 1:1로 성실하게 대조하는 태도만 갖춘다면, 누구나 다 맞힐 수 있습니다. 부담을 내려놓고, '가벼운 독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푼다'는 마음가짐으로 규칙에 맞게 접근해 보세요. 작문은 더 이상 여러분의 국어 발목을 잡는 파트가 아니라, 가장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해 주는 효자 파트가 될 것입니다.

[독서 공부법]

박주영 멘토

독서는 수험생이 가진 배경지식에 따라 체감 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인 반면 문학은 작품 자체의 난도보다도 출제자가 <보기>와 선지를 통해 어떤 해석을 요구하는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문학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독서를 읽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전체 시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접근은 쉽지만, 깊이 공부하다 보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생길 때 아래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며 내가 문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문학이 '일상어'에 가까운지, '상징어'에 가까운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문학은 고도의 상징적 텍스트라는 인식이 강하므로, 문학을 '상징어'라고 답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학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감정과 상황, 관계를 담아내는 사적 영역의 언어이므로 일상어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문학을 해석할 때에는 독서처럼 텍스트 자체의 논리 구조만을 따라가기보다, 인물이나 화자가 처한 상황과 발화의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텍스트의 표현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학의 텍스트는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라기보다, 작품의 상황 맥락과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가깝습니다. 특히 시에서 특정 시어나 표현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작품 전체의 정서를 성급하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것과 '이 작품은 긍정적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친구로 남아 줘"라는 표현이 담긴 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만 놓고 보면 '좋은', '남아 줘'라는 표현 때문에 긍정적인 시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고백을 받은 뒤'라는 상황 맥락이 더해지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문장이 사실상 고백을 거절하는 말이 되고, 화자의 감정 역시 긍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처럼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단어 하나의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되었는가'입니다. 텍스트는 상황과 목적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며, 해석의 방향은 결국 상황맥락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문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다음의 체크 포인트를 다시 점검해 보며 자신의 풀이 방식이 텍스트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운문 체크리스트

- ① 인물이나 화자의 상황, 그리고 글의 목적을 먼저 파악합니다. 문학적 판단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상황 맥락입니다. 화자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관찰하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 ② 해석되지 않는 문장 하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을 읽으며 떠오른 자신의 해석을 지나치게 확정하거나 고집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인이 아니거나 이 시를 어떤 의도로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출제자도, 국어 교사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시험에서 평가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입니다.
- ③ <보기>와 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평가원 문학 문제는 출제자가 작품을 어떤 관점에서 읽도록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시험입니다. <보기>와 선지에는 출제자의 해석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할 때는 작품(텍스트)을 반복해서 들여다보기보다 <보기>와 선지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선지와 <보기>를 통해 출제 의도를 역으로 추론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 산문 체크리스트

- ① 어떤 시점인지, 누구의 관점에서 쓰인 글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야기를 '누가 서술하는가'와 사건을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점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누구의 감정과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이 제시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술자가 어느 인물의 입장에 더 가까이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② 인물 관계와 갈등 구조를 먼저 파악할 것.

산문은 결국 인물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누가 누구와 대립하는지, 각 인물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건이 진행되면서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특히 고전 산문에서는 한 인물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로 다른 인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관계도를 간단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비가 안정된 팀은 쉽게 지지 않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먼저, 지지 않는 시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학은 그 '수비'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어려운 지문이 반드시 킬러는 아닙니다. 모두가 어려워하는 문제라면, 그 한 문제에 오래 매달리는 것보다 내가 맞혀야 할 문제를 정확하게 지켜내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도 지지 않는 국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험생활을 응원합니다:)

[영어 공부법]

김은지 멘토

어쩌면 영어 과목은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시간을 투자하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과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개편된 교육과정으로 인해 2028 수능에서는 국어·수학·사회·과학 영역이 크게 바뀌지만, 영어 영역은 유일하게 기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에게 영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등급을 확보해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중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영어 성적이 1·2등급으로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혹은 3·4등급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학습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평가라고 해도 시험 난도에 따라 등급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2024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은 4.71%로, 평균적인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인 7~8%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즉, 영어는 수능 최저를 위한 안정적인 과목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어 성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올바른 공부 방법과 꾸준함에 있습니다.

1. 모르는 것을 공부하라.

가장 중요한 공부 태도는, 내가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부하는 모르는 것을 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공부하고 있거나, 모르는 것을 공부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메타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틀렸을 때, 답지의 한국어 풀이와 해설을 보고 답을 이해했다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된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저 한국어 해설을 읽고 납득했을 뿐입니다.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과정은 다른 강의, 풀이집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답이 도출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얼마나 맞히고 틀리느냐에 집중하기보다는 틀린 것을 분석하고, 뜯어보고, 오래 고민하여서 정답까지 이어지는 논리를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세요. 틀린 문제를 여러번 쳐다보고,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보면서 깊이 생각하다 내가 정답을 알아내는 짜릿함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2. 흐름에 집중하라

영어 지문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문장 하나하나를 한국어로 해석하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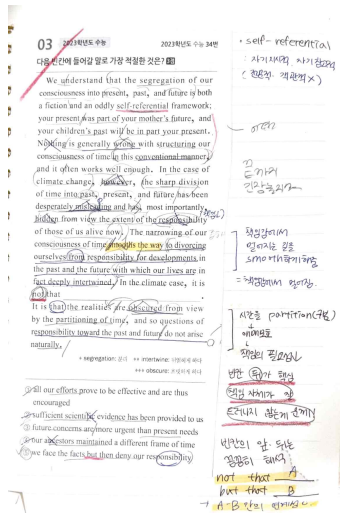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능 영어 지문은 해당 문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한국어로 “번역”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문제는 하나의 지문을 읽고, 그 흐름에 맞는 빈칸을 채우거나 주제를 발견했는지 묻습니다. 결국 지문 전체의 흐름을 파악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숲처럼 지문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앞부분에서 a라는 주장을 했다면, b라는 설명이 왜 a와 연결되는지 글을 읽으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까지는 c라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이야기했다면, 뒤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찬-반 구조인지, 나열 구조인지, 예시-설명 구조인지를 파악하면 지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엔 긍정적 어조의 단어와 문장, 부정적 어조의 단어와 문장에 각각 다른 표시를 하여 글의 구조를 정리하며 읽었습니다. 또한 연결되는 개념이나 인과, 상관 등의 관계를 맺는 문장들은 연결 표시를 하며 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글을 읽다가 잠깐 위로 올라가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더라도, 한 번 읽을 때 최대한 흐름을 파악하며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히 파악하면서도, 문장의 내용을 따로따로 받아들이지 않고 앞뒤 내용과 연결해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단어는 지문을 읽으며 외우기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어를 외워도 외워도 자꾸 뜻을 까먹어서 고민이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쉽게 휘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단어 숙지가 된 이후에는, 따로 단어장을 가지고 외우기보다 수능특강, 모의고사 등의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단어나 헷갈리는 단어를 표시한 뒤 문장 속에서 단어의 쓰임을 파악하며 단어를 외웠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단어를 봤을 때 내가 읽었던 지문이 떠오르면서 뜻을 연상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34 실전 대비는 꾸준한 분석력으로 !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실제로 영어 공부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 저는 문장의 흐름을 보며 읽는 연습을 하기 위해 오답을 하는 과정에서 지문을 요약하여 정리하거나 지문에 색깔 펜으로 흐름을 구성하는 핵심 문장 · 개념들을 표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자주 틀리거나 어려웠던 문제는 이렇게 따로 잘라내서 첫 문장이 다음 중심 문장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의미가 연결되는 지점을 표시하여 정답을 고르는 과정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글을 처음 읽을 때에도 문장의 연결 지점과 문단의 큰 흐름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의 완성은 꾸준함과 꼼꼼함입니다. 이 두 가지 열쇠를 잘 잡고 나아가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대수1 공부법]

남성준 멘토

대수 1에서는 '① 지수·로그 함수 ② 삼각함수 ③ 수열'을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초월함수들을 다루게 되기에, 지수·로그·삼각 함수의 성질과 그래프의 특성을 깊게 다루게 됩니다.

지수·로그 함수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첫 번째 특징은 점근선입니다. 이는 미적분학 2에서 함수의 수렴성과도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점근선을 통해 우리는 함수의 최댓값·최솟값과 연관된 단서를 해석할 수 있고, 타 함수와의 교점 관계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단조 증가 혹은 감소 한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단조 현상에 의해 특정 범위 내에서 함수가 일대일 대응 성질을 띄게 되고, 이는 역함수의 존재를 함축합니다. 실제로 지수·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역함수와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 관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각함수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in(x)$ 와 $\cos(x)$ 는 2π , $\tan(x)$ 는 π 를 주기로 가지며 함수의 확대·축소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주기성 만큼이나 중요한 성질은 대칭성입니다. 세 삼각함수 모두 점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sin(x), \cos(x)$ 의 경우는 선대칭 성질도 띄고 있습니다. 대칭성과 주기성을 통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의역 부분의 함수를 추론할 수도 있고, 후에 적분을 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sin(x), \cos(x)$ 는 치역이 유한 닫힌 구간입니다. 즉, 최댓값과 최솟값이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최댓값·최솟값만 알 아도 우리는 함수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와 평행이동 정도를 역추론 할 수 있습니다.

수열은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한 것입니다. 그 나열은 규칙을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현상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y=f(x)$ 라는 함수 표현은 연속된 값에 대한 규칙을 수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령, $f(x)=2x$ 라 함은 '어떤 수를 두 배로 출력한다'라는 규칙입니다.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a_n=2n$ 이라 하면, '원소는 자기 번호의 두 배 값을 갖는다'를 의미합니다. 다만, 함수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산적 성질'입니다. 함수와 연속된 구간을 정의역으로 사용한다면, 수열은 나열할 수 있는 이산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수에서는 수열은 직접 나열하고 세는 것에 겁은 갖지 않고 부딪혀보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적분학1 공부법]

남성준 멘토

미적분학1에서는 '① 다항함수의 극한 ② 다항함수의 미분 ③ 다항함수의 적분'을 배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항함수'가 과목의 핵심이며, 이보다 나아간 초월함수의 미분·적분은 미적분학2에서 배우게 됩니다. 공통수학1까지 다루었던 일차·이차 함수를 넘어서 삼차·사차 함수까지 다루게 됩니다. 특히, 삼차 함수는 정말 많은 문제에서 활용되니, 식과 그래프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적분학1에서 등장하는 극한, 미분, 적분에 대한 개념은 기존까지의 수학 교육 과정에 비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더욱더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x) = x^2 + 4x - 7$ 일 때, $f'(x) = 2x + 4$ 라는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계산합니다. 다만, 왜 그런가에 대해 제대로 답할 수 있는 학생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 논리적 이유를 글의 마지막에 적어놓았으니, 한 번 스스로 고민해보고 점검해보길 바랍니다. 개념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비해, 공식과 계산 과정은 너무나 쉽고 단순합니다. 자연스레 어려운 정의와 논리 보다는 공식과 계산에 익숙해지게 되고, 이게 습관이 되어 정의를 망각하게 된다면 결코 미적분학1을 잘 할 수 없습니다.

함수를 그릴 줄 아는 능력이 너무나 강조됩니다. 도함수의 활용 단원에서 도함수를 이용해 원함수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가르쳐 주었으니, 당연히 활용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특히 도함수의 활용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학생들은 정말 많은 삼차·사차 함수의 그래프를 올바르게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관해 의존해 그리는 것이 아닌, 극점·증감·수렴성 등을 근거로 해 논리적으로 그리셔야 합니다.

부록) $f(x) = x^2 + 4x - 7$ 일 때, 왜 $f'(x) = 2x + 4$ 인가

logic 1) 미분 계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미분 하는 방법을 미분 계수 식 말고는 배운적 없기 때문이다. 다른말로, 정의가 미분 계수 식이기에 이를 꼭 알고 있어야 한다. $f'(x) = \lim_{h \rightarrow 0} \frac{f(x+h) - f(x)}{h}$ 로 정의된다.

logic 2) $y = x^n$ 의 미분.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해 $y' = \lim_{h \rightarrow 0} \frac{(x+h)^n - x^n}{h}$ 이고, 이

를 정리하면 $y' = nx^{n-1}$ 임을 알 수 있다.

logic 3) $y = f(x) + g(x)$ 의 미분.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해

$$y' = \lim_{h \rightarrow 0} \frac{f(x+h) + g(x+h) - f(x) - g(x)}{h} = f'(x) + g'(x) \text{임을 알 수 있다.}$$

logic 4) $y = kf(x)$ 의 미분.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해

$$y' = \lim_{h \rightarrow 0} \frac{kf(x+h) - kf(x)}{h} = kf'(x) \text{임을 알 수 있다.}$$

logic 5) $y = k$ 의 미분.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해 $y' = \lim_{h \rightarrow 0} \frac{k-k}{h} = 0$ 임을 알 수 있

다.

이제 종합해보자. $x^2, x, -7$ 의 미분은 logic 2와 5에 의해 각각 $2x, 1, 0$ 이다.

logic 4에 의해 $4x$ 의 미분은 4임을 알 수 있고, logic 3에 의해 이들을 결합한

$y = x^2 + 4x - 7$ 의 미분은 $y' = 2x + 4$ 임을 알 수 있다.

[확률과 통계 공부법]

강서영 멘토

확률과 통계는 크게 경우의 수, 확률, 통계로 이루어진 수학 선택과목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수능 체제가 개편되어 수능 선택과목이었던 확률과 통계가 모든 수험생이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과목으로 바뀌면서, 확률과 통계를 ‘잘’ 공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확률과 통계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수학이 약점인 평범한 문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여 1등급을 받는 데 성공했는데요, 수학에 자신 없던 저를 1등급으로 만들어준 공부법을 소개합니다.

1. 고난도 문항일수록 문제 상황을 차분히 파악하고 풀이 시작하기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작정 풀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겉보기에는 접근이 쉬워 보이는 문제들이 많은데, 막상 풀이를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져서 실수하거나 풀이 흐름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마주하면 어떤 상황인지, 무슨 조건이 핵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의 룰이 어떠한지, 다양한 변수들 중 뭐가 가장 핵심적인지, 어떻게 케이스를 나누면 가장 명확할지 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이 장황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조급하게 풀이를 시작하는 것보다 천천히 꼼꼼하게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풀이 흐름을 구상한 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문제 풀이 이후에 꼭 피드백 및 정리하기

① $\frac{175}{192}$ ② $\frac{265}{288}$
 ③ $\frac{535}{576}$ ④ $\frac{15}{16}$
 ⑤ $\frac{545}{576}$

[연계문항 2021년 3월 교육청(고3-선택) 30번]

14. 숫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점]

(가) 숫자 1은 한 번 이상 나온다.
 (나) 이웃한 두 수의 차는 모두 2 이하이다.

391

모든 케이스 고려 안해서 틀림 잡았다!
 [연계문항 2021년 6월 평가원(고3-선택) 28번]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이면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얻고,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이면 0점을 얻는다. 이 주사위를 네 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 d 라 할 때, 얻은 네 점수의 합이 5가 되는 모든 순서쌍 (a, b, c, d) 의 개수는? [4점]

① 136 ② 140
 ③ 144 ④ 148
 ⑤ 152

가장 잘 세웠다고 막 풀이하지 말고
 정확하게 분리하고 시작하기
 (제일 많이라는 생각은 모든 케이스 고려했는지
 계속 유념)

※ 해설사 세는 방법 활용해야 할때도 있음.
 가운 잡아서 찬찬히 하기

※ 방법: 184가 이웃하면 X → 무조건 여섯 번 랜덤으로만 보여지지 말고
 184가 '몇번나오는가'에 집중

※ 다른 풀이
 → 1의 개수에 따른 4의 개수
 (i) 1x4
 (ii) 1x4
 (iii) 1x4 - 4x0
 4x1 ...

확률과 통계는 하나의 문제에도 다양한 풀이 방법이 존재하는 과목입니다. 이를 전부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나의 풀이보다 더 효율적인 풀이나 얻어갈 것이 있는 풀이를 나의 언어로 정리해 두었던 게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오답노트 꼼꼼히 작성하기

앞서 서술했듯이, 확률과 통계 문제는 다양한 풀이 방법이 존재합니다. 또한 풀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학 과목과 마찬가지로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양한 방법 중 저는 제가 작성했던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방학 때 많이 작성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제가 작성했던 오답노트입니다.

교재/시험	단원명	복습체크
마더텅 학종	조건부확률	작성일 2/23 ② / ③ / ④ /

<문제> - 간략히 필수 조건만 서술하십시오.

비이항 (2022학년도 4월 기말) → 힘/강공각각 10개씩을 5번씩 시험
 문제를 한번 연재한 후의 50점이면 학종 2개씩 준비해볼고. 50점이 4
 이면이면 3개씩 준비해볼고. 이 시험을 5번 반복할 때, n (1≤
 n≤5) 번째 시험 후 문제의 확률과 점수를 각각 a_n, b_n 이라 하자. $a_n +$
 $b_n \geq 7$ 일 때, $a_n = b_n$ 인 자연수 k (1≤k≤5)가 존재할 확률은 얼마
 인가? (단, p와 q는 서로소인 자연수임)

<문제POINT & 피드백>
 ※ 중등수학을 비롯하여 앞서 배운 개념들은 더 늦기 전에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길 바랍니다.

<문제POINT>

- ① 조건부확률 통한 풀이의 정형화 & 효율성 확보
- ② 두개 이상의 변원을 다룰 때 → 마지막 등호 연립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음.

<피드백>

복잡해 보였으나 차분법 정리하면 20여 개씩 계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건
 복잡하지 않았던 문제.. 다만 빨리 풀고 싶은 욕심에 대충 여러가지 상황을
 정리해버리고 풀이에 들어갔더라면 실수하기 좋았을 문제였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학을 이용해 확실히 정돈된 풀이를 써서 푸는 게 좋겠다. 확률 문제 풀면
 급할수록 풀이거리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자..!

< 풀이 >

※ 수업에서 얻은 내용, 핵심지 풀이, 추가된 나의 생각 등 여러 가지여도 좋습니다.
 또한, 처음 나의 풀이와 비교하는 과정을 추천합니다.
 ※ 시간부족 / 계산실수 등의 원인이라면, 반복하지 않기 위한 풀이 전략 및 실리적
 원인을 찾아보고 그에 따른 분명한 피드백이 있길 바랍니다.

딱 봐도 조건부확률 상황 → ~대충 7점으로 풀기 각자의 학종 구해보기.

Step 1 $a_5 + b_5 \geq 7$ 일 확률

→ 조건절의 성립하면 확률: $0 \leq a_5 \leq 10$ & $0 \leq b_5 \leq 5 \rightarrow 5 \leq a_5 + b_5 \leq 10$

① 확률 미박로 직관하면 생각해: 확률명은 확률 a, 점수명은 확률 b.

→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빠르길래는 말씀:

i) $a_5 + b_5 = 5 \Rightarrow a+b=5, 2a+b=5 \Rightarrow a=0, b=5$ 연립

→ $(\frac{1}{5})^5 \parallel$ ii) $a_5 + b_5 = 6 \Rightarrow a+b=5, 2a+b=6 \Rightarrow a=1, b=4$ 연립

→ $(\frac{1}{5})^4 \cdot (\frac{1}{5}) \cdot 5C1 \parallel \Rightarrow a_5 + b_5 \geq 7$ 일 확률: $1 - \left(\frac{3+2+80}{243} \right) = \frac{131}{243}$

Step 2 $a_k = b_k$ 이면서 $a_5 + b_5 \geq 7$ 일 확률

→ 확률 물어볼 때 확률이 정형의 2배씩 줄임 $\Rightarrow b=2a$ 인 상황이 종국에야 함

→ $2a+a=k$ (1≤k≤5) 을 만족하는 k는 a가 자연수이므로 $\frac{3}{5}$ 만

→ $a_3 = b_3 = 2$ 이면서 4번째, 5번째 시험에서 3개 이상의 공이 들어갈 확률

→ $(\frac{1}{5})^2 \cdot (\frac{3}{5})^2 \cdot 3C1 \times \left(1 - \left(\frac{1}{5} \right)^4 \right)$ (이 때, 1개 들어가기만 않으면 됨. (피드백))

합계 $\frac{131}{243} + \frac{20}{81} = \frac{151}{243} = \frac{50.5}{81} \rightarrow$ 정답: $60+1/3 = 191$

① 필수적인 조건들 위주로 문제 요약하기

② 문제 옆에 풀이 정리하기

③ 문제 아래 빈 공간에 틀린 이유, 기억해두고 싶은 내용 등 전체적인 피드백
 작성하기

'수학은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까지나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드실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 큰 도
 움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확률과 통계는 기출이 반복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문제 접근법과 유형이 한정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하나를 제대로 분석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인 오답노트 작성은 당장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든든한 무기가 될 거라
 고 확신합니다.

확률과 통계 심화탐구 소재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과목별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가 심화탐구 소재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저의 관심사를 반영

하면서도 깊이 있는 확률과 통계 심화탐구 주제를 정하기 위해 그 어떤 과목보다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고민의 과정을 거치며 얻게 된 심화탐구 소재들입니다. 각자의 관심 분야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염주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

확률과 통계의 개념 중 하나인 원순열을 더 깊게 심화탐구 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 베르트랑 역설

경제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소재입니다.

- 의사난수의 확률분포 검증

이공계열, 특히 컴퓨터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소재입니다.

- What if not 전략을 이용한 문항 제작

자연계열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소재입니다.

- 감염병 확산 경로 예측과 조건부확률 분석

생명·보건계열 학생들이 실제로 도전해보기 좋은 활동입니다.

[물리학 공부법]

남성준 멘토

물리학에서는 '① 힘과 에너지 ② 전자기학 ③ 파동'을 배우게 됩니다. 물리학은 과학탐구 네 영역 중 가장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과목입니다. 그 인식을 만드는 파트가 1단원 역학과 에너지이기에, 이번 글에서는 1단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단원은 '토크(돌림힘), 속도와 가속도, 힘과 역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 등은 결이 조금 다르기에,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후에 '역학과 에너지' 과목의 일반 상대성이론으로 확장되는 이론이므로 올바르게 공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크는 물체의 회전을 설명합니다. 개정 전 '물리학 I'에서 물체를 점으로 취급했던것과 달리 토크는 물체를 평면 물체로 간주합니다. 힘이 평형을 이루었다 함은, 물체의 알짜힘이 0인 동시에 토크가 0임을 말합니다. 토크 단원을 풀 때는 $F=ma$ 가 물체의 질량 중심에 적용되는 알짜힘과, 회전에 관여하는 $\tau=F \times r$ 이 모두 0이 되도록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또 힘을 분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평면상에서 다루어지기에, 힘을 원하는 두 축에 대한 부분힘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분힘으로 표현된 두 힘 F_x, F_y 에 대해 각 축을 기준으로 연립방정식을 작성해 힘의 평형을 맞추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때, 세 함수는 독립된 함수가 아니라 서로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Delta v = at$, $\Delta S = v_{평균}t$ 이 두 공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문제를 풀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A=BC$ 꼴의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문제 속에서 A, B, C 중 두 값을 찾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두 값을 찾으면 다른 하나를 알 수 있다.' 이것이 물리학 1단원에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위 꼴의 공식은 힘과 에너지에서도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F=ma$ 가 존재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공식이 $\Delta E = F \times s$ 입니다. 이때, F 가 알짜힘이라면 E 는 운동에너지, 중력이라면 중력 퍼텐셜 에너지, 마찰력 등의 외력이라면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화학 공부법]

남성준 멘토

화학에서는 '① 물과 양적 관계 ② 물질의 구조 ③ 화학 평형 ④ 중화 반응'을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이 화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단원은 ①, ④ 단원이기에, 이번 글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단원에서는 여러 물리·화학량을 배우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원자 세계는 우리 단위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작기에, 원자 세계와 실생활 단위를 연결해주는 물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6.02×10^{23} 인 아보가드로 수를 통해 1단원에서는 원자 세계에서 양을 다루게 됩니다. 1단원에서 가장 잘 다루어야 하는 공식은 $Mn = w$ 입니다. 사과 1개가 10g일 때, 30개가 있다면 300g, 100개가 있다면 1kg임을 설명하는 공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원자 혹은 분자 등의 화학식량이 M일 때, 그가 n몰 있다면 그 질량은 w(단위 : g)가 된다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중요한 이유는 $A = B \times C$ 꼴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화학에서는 A, B, C 중 두 값을 문제에 숨겨두고 학생들에게 이를 찾아 나머지 한 값을 결정하도록 하는 논리를 자주 사용합니다. 문제에서 화학식량, 몰수, 질량 중 두 값을 언급했다면 여러분은 나머지 한 값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4단원에서도 $A = B \times C$ 꼴의 공식이 등장하는데 $MV = n$ 입니다(M : 몰농도, V : 부피, n : 몰수). 외에도 $d = \frac{w}{V}$ 같은 공식 등도 $A = B \times C$ 꼴이므로 당연히 중요합니다(d : 밀도, w : 질량, V : 부피). 핵심은 세 값 중 두 값을 이용해 나머지 하나를 찾기입니다.

1단원과 4단원에서 $A = B \times C$ 꼴의 공식만큼 중요한 것이 '가정을 통한 과량 추측'입니다. 두 물질의 화학 반응을 관측하는 단원입니다. 1단원은 화학 반응식을, 4단원은 물을 생성하는 중화 반응을 관측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이 때, 문제 속 실험자는 늘 반응물의 비를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로 맞추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반응을 모두 마치고도 남아있는 과량물이 존재하고, 그를 파악해야 합니다. 논리적인 과정으로 알아낼 수 있지만, 같은 시간 조건 하에 한 물질이 과량이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푸는 방식이 매우 유용하기에, 화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과량 가정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과학 공부법]

남궁훈 멘토

2027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생명과학 I의 단원은 ① 생명과학의 이해, ② 사람의 물질대사, ③ 항상성과 몸의 조절, ④ 유전, ⑤ 생태계와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I'과 '통합과학 II'에 근거하여 출제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I'은 '과학의 기초',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의 3개 영역으로, '통합과학 II'는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과학과 미래 사회'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명과학 I과 연관 있는 내용 요소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과 생명 활동의 항상성 유지', '물질대사를 통한 에너지 전환', '유전과 생물의 다양성' 등이 있습니다. 이는 각각 생명과학 I의 항상성과 몸의 조절, 사람의 물질대사, 유전 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과학 I 단원별 공부법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학 영역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에, 편의상 생명과학 공부법은 이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생명과학에 대하여_개념 간의 유기성

단원별로 자세한 공부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명과학에서는 과학의 탐구 방법, 다양한 생명현상 등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특히 학생들은 단일 개념이 아닌 다양한 개념을 연결지어 배우게 되며, 생명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즉, 생명과학을 배우는 기본 태도는 무조건적인 '암기'가 아닌, 하나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개념을 이해하며 해당 단원이 다루는 주제를 흐름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내용과 문제의 성격이 '추론형' 문제(유전, 막전위, 근수축)와 '비추론형' 문제(유전, 막전위, 근수축을 제외한 파트)로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추론형은 일종의 '퍼즐' 문제로, 생명 개념들로 주어지는 단서들을 종합하여 정답을 추론하는 문제였습니다. 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범위의 개념들이 제외되긴 했으나,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개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 문항'에서는 실험 과정과 일부 개념을 조합하여 고난도 추론형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출제 범위는 달라졌으나 추론형 문제의 구조

는 유지되고 있기에, 학생들은 고난도 문제의 구조와 이에 맞는 공부법을 알아야 합니다.

I.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이 단원은 세포가 생명 시스템을 이루는 기본 단위임을 이해하고, 세포 소기관(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등)의 구조와 기능,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을 학습합니다. 각 소기관을 단순히 이름과 기능으로 외우기보다는, 세포 내 정보와 물질의 흐름 속에서 각 소기관이 맡는 역할을 연결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원은 단독으로 고난도 문항이 되기보다는 유전자·단백질 파트와 묶여 하나의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기관의 기능을 정보 흐름과 엮어 정리해 두면, 여러 소기관이 함께 등장하는 자료 해석형 문항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II. 물질대사

이 단원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물질대사를 다룹니다. 동화 작용과 이화 작용, 세포 호흡, 그리고 이 반응들을 돕는 효소(생체 촉매)의 작용 원리를 학습합니다. 특히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원리와, 반응의 발열·흡열 여부를 에너지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원은 계산 위주의 킬러 문항이 나오는 곳은 아니지만, 자료 해석형 문항의 비중이 높습니다. 카탈레이스(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처럼 효소 유무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 그래프를 주고, 에너지 크기 비교·발열/흡열 판단·효소의 역할을 선지로 묻는 유형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각 구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반응물·생성물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효소 유무에 따른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는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화학의 결합 개념과 융합되어 출제되기도 하므로, 물질대사를 화학 반응의 한 사례로 바라보듯 생명과학의 내용을 다른 과학 탐구 영역과 연계하여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III. 유전자와 단백질

이 단원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핵산이 단위체(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DNA → RNA → 단백질로 이어지는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전사와 번역)을 학습합니다. 개념 자체를 암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처음 보는 자료에 이 흐름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염기 서열과 코돈표, 아미노산 대응 자료 등을 제시하고,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옮겨지는 과정을 직접 적용해 풀도록 출제됩니다. 따라서 전사와 번역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한 뒤, 코돈표를 활

용해 염기 서열을 아미노산으로 대응시키는 유형을 충분히 연습해 두어야 합니다. 예전 교육과정의 복잡한 가계도 유전 계산 같은 킬러 유형은 이 단원에 없으므로, 계산 부담보다는 정보 흐름의 정확한 이해와 자료 적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Ⅳ. 정리

앞선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하는 것과 그 개념 간의 연결을 넓은 시야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한다'는 것은, 교과서와 학습 교재에 나오는 개념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해당 단원, 크게는 생명과학이라는 맥락 안에서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는 공부법의 중요성을 알고 효율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또한 더 이상 수능이 '생명과학'이라는 단일 과목이 아닌 '통합과학'의 형태로 출제되므로, 그 맥락이 생명과학뿐 아니라 다른 과학탐구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항상 연계 문제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더욱 깊이 있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과학 공부법]

남궁훈 멘토

2027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구과학 I의 단원은 ① 고체 지구, ② 대기와 해양(유체 지구), ③ 우주(천체)로 크게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I'과 '통합과학 II'에 근거하여 출제됩니다. 통합과학 I·II는 지구과학 I의 세 파트를 그대로 잇는 내용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판구조론과 지각 변동'은 지구과학 I의 고체 지구 파트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은 유체 지구(대기와 해양) 파트와, '별의 진화'는 천체(우주) 파트와 각각 연결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원의 이름이나 구분이 아니라, 지구과학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구과학은 지구와 우주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눈에 보이는 자료(그래프·지질 단면도·스펙트럼 등)를 근거로 그 배경 원리를 추론해 내는 과목입니다. 어떤 자료가 주어져더라도 그 속에 담긴 현상의 원리를 읽어내는 힘, 이것이 지구과학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갖추고 나면, 교육과정이 바뀌어 단원의 이름과 구성이 달라지더라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을 공부하는 데 흔들림 없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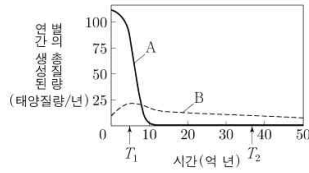
I. 지구과학에 대하여_자료 해석과 치밀한 개념 학습의 중요성

지구과학은 이전 교육과정의 과학탐구 과목 중 난이도가 준수하여 많은 수험생이 선택했던 과목입니다. 그러나 막상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고난도 문제는 커녕 비교적 쉬운 1~15번 문제에서도 실수로 인해 많은 오답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학생들의 많은 실수의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료 해석'과 '개념'입니다. 자료 해석과 개념은 다른 과학탐구 과목에서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구과학에서 이들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지구과학은 판구조론과 지각 변동,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별의 진화 등 '지구와 우주의 자연 현상'을 다루는 영역으로, 자연현상은 때와 위치에 따라 항상 다르기에 이를 기록한 방대한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을 기록할 때 자료마다 강조되는 변수와 개념이 다르기에, 이 자료들은 각기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잠시 기출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9번 (오답률: 45.7%)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6번 (오답률: 58.8%)

9. 그림은 두 은하 A와 B가 탄생한 후, 연간 생성된 별의 총질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허블 은하 분류 체계에 따른 서로 다른 종류이며, 각각 E0과 Sb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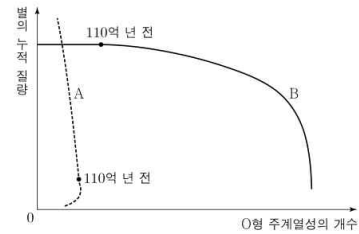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ㄱ. B는 나선형을 가지고 있다.
 ㄴ. T_1 일 때 연간 생성된 별의 총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ㄷ. T_2 일 때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B가 A보다 높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6. 그림은 은하 A와 B에 존재하는 O형 주계열성의 개수와 은하 형성부터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을 12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ㄱ. 120억 년 전부터 110억 년 전까지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ㄴ. 현재 은하를 구성하는 주계열성의 평균 광도는 A가 B보다 크다.
 ㄷ. 현재 은하 질량에 대한 성간 물질 질량비는 A가 B보다 크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두 문항은 모두 '은하의 분류(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의 특징)' 개념과 '은하의 형성과 진화(별 탄생 역사에 따른 은하의 변화)'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두 은하가 시간에 따라 별을 언제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자료로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어느 쪽이 나선 은하이고 어느 쪽이 타원 은하인지 구분하게 합니다.

두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그래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각 축에 적힌 변수가 다르다는 것이죠.

<9번 문제> x축: '시간' / y축: '연간 생성된 총질량'

<16번 문제> x축: 'O형 주계열성의 개수' / y축: '별의 누적질량'

공통적인 목표: A,B에 타원은하, 나선은하 매칭하기

****기본 개념****

[타원은하: 초기에 별을 폭발적으로 만들고 멈춰 늙고 차가운(붉은) 별만 남고 성간 물질이 적다,]

[나선은하는 지금도 별을 만들어 젊고 뜨거운(파란) 별이 있고 성간 물질이 많다]

A,B에 은하만 매칭시키면 두 문제의 ㄱ,ㄴ,ㄷ 선지 판별은 어렵지 않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9번 문제와 16번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축이 의미하는 값에 있습니다. 9번 문제의 x축은 시간축으로, 이를 통해 '시간에 대한 별의 생성률'을 알 수 있고 기본 개념을 통해 A를 타원은하에, B를 나선은하에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번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120억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간에 따라 나타냈을 뿐, 그 어느 축으로도 '시간에 대한 별의 생성률'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즉, x축 변수 'O형 주계열성의 개수'와 y축 변수 '별의 누적 질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래프의 시간에 따른 올바른 진행방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학생들은 개념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문제를 꽤 헤매게 됩니다.

'O형 주계열성'에 대해 먼저 떠올려봅시다. ① 온도가 매우 높다 ② '주계열성'이다 즉, 이 O형 주계열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젠가 사라집니다. 이를 통해 O형 주계열성이 많았다가 적어지는 B가 타원은하, 꾸준히 생성되는 A가 나선은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별의 누적 질량'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잡혀있는 학생은 이 문제를 더 쉽게 해결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별의 누적 질량은 '감소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따라서 y축 증가 방향으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파악하고 A와 B를 바로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지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오더라도 지구과학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매 시험마다 새로운 자료와 선지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학습하고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지구과학이 실수와 함정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라고 하지만, 그게 시험지에서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들이라면 그 함정에 걸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인 것입니다.

II. 치밀하게 공부하는 법에 대하여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파트를 분리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밀하게 공부한다는 것이 잘 안 와닿을 수 있기에 예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판의 경계는 서로 인접한 두 판이 만나는 경계로,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로 구분된다"

우리는 이 문장 안에서 수많은 개념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안일하게 넘어가는 부분부터 짚어보자면, (판의 경계 = 서로 다른 판의 경계)라는 것입니다. 당연한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해 꾸준히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는 파트입니다. 자세히 뜯어보자면, 인접한 두 판이 '서로 달라야 판의 경계'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즉, 상대적인 이동이 존재하더라도 판이 같다면 경계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밀한 공부란, 한 문장에서 조건을 하나씩 분리해 내고 각 조건마다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반례를 스스로 떠올려 보는 과정입니다. 판이 같으면? 이동 방향이 다르면? 어긋나 있지만 해령 바깥이면? 이 물음들에 막힘없이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출제자는 바로 이렇게 놓치기 쉬운 지점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이 "판의 경계는 판이 만나는 곳"이라고만 외우기 때문에, 출제자는 같은 판 안에 있는데도 경계처럼 보이는 지점을 제시하거나, 단열대를 판의 경계인 것처럼 선지에 슬쩍 끼워 넣습니다. 개념을 대략 아는 학생은 여기서 걸려 넘어지고, 치밀하게 아는 학생만이 "이건 같은 판이니 경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답률이 높은 파트가 늘 이런 곳에서 생기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치밀한 공부의 핵심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 문장을 이루는 조건을 하나하나 분해합니다. 둘째, 각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반례나 경계가 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봅니다. 셋째, 그렇게 뜯어낸 개념을 실제 자료와 선지에 적용하면서, 출제자가 어느 지점을 노렸는지를 되짚어 봅니다. 이 세 단계가 습관이 될 때, 아무리 낯선 자료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개념의 본질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Ⅲ. 여러 질문들에 대하여

1) 문제를 푸는데 실수가 너무 많아요

- 지구과학은 누가 더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많은 상황과 개념을 알고 있느냐와 문제 풀 때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문제 발문과 선지를 꼼꼼하게 읽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실수들은 오독으로 인해 나옵니다. 문제와 선지를 꼼꼼히 읽는 것은 시험 전 다짐으로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문제를 풀 때, 긴장하며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이 들어있어야 시험 중에도 그 태도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매번 새로운 자료, 선지가 나올 때 당황스러워요.

- 앞으로의 모든 시험에서 새로운 자료, 그래프, 물리량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며, 시험 중에는 아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침착한 판단

이 답으로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결국 공부한 범위 안에서만 출제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는 것들과 연결시키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새로운 문제이기에 넉넉히 시간을 두고 알고 있는 개념 중 어떤 것을 끌고와 판단해야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3) 문제 푸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 지구과학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당 문제 유형이 익숙하지 않거나, 문제에 적용된 개념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것입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며,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변형 가능한 지점들을 생각하며 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개념 공부는 단순 글자 암기가 아닌, 해당 개념을 물리적, 현상적으로 떠올리며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문제에서 '주계열성'이라는 워딩이 어디에 나오든, 이 개념을 보자마자 정의와 특징, 연관 개념이 모두 떠오르는 것입니다.

[경제 공부법]

심채연 멘토

경제 과목은 암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개념 간의 인과관계 이해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과목이나 이해가 수반되어야하지만, 특히 경제 과목은 이해하지 않은채 무작정 암기로 접근하다보면 문제 풀이 단계에서 금방 벽에 부딪히는 과목입니다. 경제의 핵심 구조는 '경제 원리를 이해하고, 그래프 분석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적용시킬 수 있는 3가지 공부방법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1. 원인과 결과의 흐름을 말로 설명해보기

경제 개념은 독립된 단어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뚜렷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확한 흐름을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난다' 는 개념을 단순히 이렇게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 1)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미국의 1달러를 사기위해 필요한 우리나라의 원화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1달러 = 1000원 → 1달러 = 1200원)
- 2)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으므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을 기존보다 더 싼 값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 3)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기에 미국 소비자의 구매가 늘어나 수출이 증가한다.

이런식으로 정확한 흐름을 이해하고, 노트에 직접 화살표를 그려가며 “A가 변하면 B가 되고, 따라서 C로 이어진다” 라는 흐름을 친구에게 설명하듯 공부하면 나만의 언어로 머릿속에 개념이 정확히 정립됩니다.

2. 그래프 해석 기준 세우기

경제 과목의 출제 비중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그래프 분석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분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 축 변수 확인 : 세로축과 가로축이 나타내는 변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직접 도식화해보기 : 수요, 공급 곡선을 직접 그려보며 교차점(균형점)의 이동을 확인합니다.

- 이동의 원인 구분 : 가격 변화로 인한 '곡선 상의 점의 이동'과, 가격 외 요인으로 인한 '곡선 자체의 이동'을 명확히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3. 동일 개념의 유형별 표현 방식 익히기

경제 문제는 하나의 동일한 개념을 1) 글(지문), 2) 수식 및 표, 3)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변형하여 출제합니다. 이 세가지의 표현 방식을 각각 정리해두면 실제 시험에서 유형 변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의 전략을 사용해 개념을 완벽히 정립하였다면, 수능특강과 실제 기출문제집 (자이스토리, 마더텅) 등을 풀어보며 유형을 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제 과목은 단순히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 문제에 적용시켜 보는 것이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며 문제 유형을 몸에 학습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문화 공부법]

심채연 멘토

사회,문화는 처음 진입 장벽과 체감 난도가 낮아 보이지만, 유사 개념간의 미세한 차이를 이용한 함정 선지와 고난도 도표 문제에서 승부가 갈리는 과목입니다. 사회문화는 정확한 개념 구별과, 도표 분석을 통한 문제해결이 핵심이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문화만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몇가지 공부 전략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 유사 개념 정밀하게 구분하기 (용어 함정 방지)

사회문화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많아 개념을 '대충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 과목입니다. 그러나 출제자는 용어의 정의를 미세하게 변형하여 오답을 유도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 구별 훈련이 필수입니다.

- 개념 적용의 오류 예시 :

1) "역할에 대한 보상" (X) ->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O)

: 역할 자체는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므로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역할 행동)에 따라서만 보상이나 처벌이 주어집니다.

2) "지위불일치" vs "역할 갈등" : 지위 불일치는 한 사람이 가진 여러 지위의 격차(ex. 높은 학력과 낮은 소득)를 의미하고, 역할 갈등은 둘 이상의 지위에 따른 '역할의 충돌'에서 오는 내적 고민을 의미합니다.

공부할 때 자주 출제되는 개념 쌍(사회화 기관 분류, 귀속/성취 지위, 역할 갈등 등)의 정확한 정의와 판별 기준을 미리 정리해두어야 실전에서 헛갈리지 않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3대 핵심 관점(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기틀 확립하기

사회문화 전 단원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틀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1단원에서 이 세 관점의 기틀을 탄탄히 다져놓지 않으면 뒷단원 전체가 흔들립니다.

- 거시적 관점 (사회 구조 중심)

-> 기능론: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며, 각 부분은 균형을 이룬다고 봄.

-> 갈등론 : 사회를 계급간의 지배와 피지배, 갈등의 연속으로 보며, 제도는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봄.

- 미시적 관점 (개인 간 상호작용 중심)

-> 상징적 상호작용론 :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와 '상호작용'에 집중함.

이 세가지 관점은 문화, 사회제도, 사회 불평등, 사회 변동 등 전 단원의 문제에서 선지 분석의 기준이 되므로, 각 관점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핵심 키워드를 완벽히 체화해야합니다.

3. 도표 문제 - '유형화' 후 타임어택연습(시간단축)

사회문화 시험의 최대 난관은 제한된 시간 내에 고난도 도표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단 처음부터 시간에 쫓겨 풀면 개념문제까지 흔들리기 때문에 충분한 유형 학습 후에 시간을 단축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표 문제는 계층 이동, 인구 구조,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비율 등 출제되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각 유형별로 분모(기준값) 설정 원리와 계산 순서를 먼저 습득해야합니다. 유형별 풀이법이 체화된 이후에 비로소 기출 문제를 통해 타임어택 훈련을 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윤리 공부법]

김건우 멘토

통합사회 범주에 속하는 과목과 동일하게, 윤리는 인간의 삶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윤리 과목은 사회 현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현상을 바라보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독창적인 문제의식을 지닙니다. 즉 이는 인간과 사회를 가치와 당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데 목적을 둔 과목입니다. 따라서 윤리를 공부할 때에는 사상가의 주장과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념이 인간의 삶과 사회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윤리에서는 암기와 이해를 서로 다른 공부로 생각하기보다, 암기한 개념을 실제 상황에 연결하면서 이해를 완성해 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성, 정의, 자유, 행복, 의무, 덕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먼저 개념의 정의와 사상가의 주장을 정확하게 암기하되, 이후에는 그 개념이 실제 상황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분배적 정의’를 공부할 때에는 사상가가 정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암기하는 것과 함께, 그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어떤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지, 개인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지,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지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 사회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에 연결할 때에는 하나의 사례를 여러 판단 기준으로 나누어 보는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행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를 ‘착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윤리에서는 왜 돌려주었는지, 어떤 원칙에 따라 행동했는지,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이러한 행동이 어떤 성품과 관련되는지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행동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상가들이 같은 행동을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이러한 사례가 제시된다면 단순히 듣고 넘어가 기보다 간단하게 메모해 두었다가, 개념을 복습할 때 다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해 두면 이후 사상가를 종합해서 이해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을 각각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사상가의 관점에서 여러 개념을 하나의 판단 구조로 묶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상가는 행위의 동기와 원칙을 중요하게 보고, 어떤 사상가는 행위의 결과를 중요하게 보며, 또 어떤 사상가는 인간의 성품과 덕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사상가의 주장과 개념을 각각 외우기보다, 그 사상가가 인간의 삶과 행동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중심으로 개념을 연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칸트를 공부한다면 '의무', '정언명령', '선의지'와 같은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칸트가 행위의 결과보다 도덕적 원칙과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동기와 원칙', '결과', '성품'과 같은 판단 기준 가운데 칸트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와 핵심 개념 사이의 관계가 연결됩니다. 공리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사상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개념을 이해한 뒤 사상가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다시 묶어 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상가를 판단 구조로 정리한 뒤에는 인출을 통해 자신이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상가별 핵심 개념을 정리할 때에는 키워드를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다른 사상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연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책을 덮고 빈 종이에 핵심 개념을 적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듯 자신의 말로 사상가의 입장을 정리해 봅니다. 이때 단순히 개념의 이름만 떠오르는지, 아니면 그 개념이 왜 필요한지와 다른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교과서나 개념서를 확인하면서 보완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한 판단 구조를 실제 문제에 적용해봐야 합니다. 윤리 문제에서는 사상가의 이름이나 핵심 개념을 그대로 제시하기보다, 생소한 원문의 내용이나 색다른 표현, 새로운 사례를 통해 특정 사상가의 관점을 파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읽을 때에는 익숙한 단어를 찾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문제 상황에서 어떤 가치와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뒤 자신이 정리한 사상가의 판단 구조와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행위의 결과보다 도덕적 원칙과 의무를 강조한다면, 단순히 '정언명령'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정리한 칸트의 판단 구조와 연결해 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가 만들어 내는 행복이나 효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공리주의의 관점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표현이 달라지거나 처음 보는 사례가 제시되더라도 외운 문장을 그대로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판단 기준을 분석하고 자신이 이

해한 구조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푼 뒤에는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기보다, 자신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념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 것인지,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사상가의 판단 구조로 연결하지 못한 것인지, 혹은 판단 구조는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지 못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답의 원인을 나누어 보면 어떤 부분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개념을 몰랐다면 다시 암기하고, 판단 구조가 부족했다면 사상가별 개념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적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비슷한 사례를 추가로 풀어 보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윤리 공부는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며 개념을 이해하고 → 사상가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개념을 구조화하고 → 인출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한 뒤 →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 오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윤리 문제에서 표현이 달라지거나 낯선 사례가 제시되더라도 문제의 상황과 판단 기준을 분석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부터 수능에 출제되는 통합사회 과목에 있어, 사회 과목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융합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 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적 관점이 별도의 내용 영역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2022 개정에서는 첫 번째 내용 영역으로 등장하여 과목의 성격과 체계, 구성을 아우른다’¹⁾고 설명합니다. 또한 통합사회 과목의 목표가 사회 현상에 대한 통합적 관점 및 유기적 결합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여러 관점을 연결하여 바라보는, 융합적 사고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 안내』, 2024.

[정치와 법 공부법]

김은지 멘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총 9과목으로 나뉘던 사회탐구 과목이 통합 사회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정치와 법 과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육청에서 공개한 “통합사회” 과목에 해당하는 여러 세부 내용 항목 중에는 ‘인권보장과 헌법(시민혁명·인권·헌법·시민참여)’, ‘세계화와 평화(세계화·국제분쟁·평화·세계시민)’ 영역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은 개편 이전 정치와 법 과목에서 다루는 헌법·인권·시민 참여·국제 관계 등의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는 이를 정치와 법 영역으로 묶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며 외우자.

정치와 법은 많은 내용을 외워야 하는 과목입니다. 정치 제도와 선거의 형태, 헌법과 기본권, 민법의 여러 원칙까지 알아야 할 개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많은 내용을 반복해서 외우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와 법에서는 비슷한 개념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고, 어떤 조건에서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이해하며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 제도는 각 제도의 특징을 따로 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제도가 사표를 줄일 수 있는지’, ‘어떤 제도가 지역 대표성과 연결되는지’를 비교하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단원은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단순히 답을 외우기보다, 왜 이 조건에서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해하며 암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암기할 내용을 빈칸 자료로 만들어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한 번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읽는 것보다, 핵심 개념이나 조건을 빈칸으로 비워두고 직접 떠올려 쓰는 과정이 기억에 더 오래 남았습니다.

2. 제시문을 도식화하며 풀기

정치와 법 문제는 긴 제시문 속 여러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인 관계, 유류분 등 민법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인물과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글만 읽으며 풀면 쉽게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시문을 읽은 뒤 인물 관계와 사건의 순서를 간단하게 도식으로 옮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언제 혼인·이혼·사망이 이루어

어졌는지, 재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이전되었는지를 짧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떤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지와 어떤 순서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거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구제, 의석 배분, 득표율처럼 여러 정보를 함께 적용해야 하는 문제에서는 제시된 조건을 한눈에 정리하고, 문제마다 필요한 계산이나 판단을 순서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머릿속으로만 해결하려 하기보다, 필요한 정보를 눈에 보이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출문제를 반복하며 나만의 풀이 순서를 만들자!

모든 과목에서 기출 문제 풀이가 중요하지만, 정치와 법을 다루는 과목에서는 특히 기출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합사회로 바뀌었는데 이전 정치와 법 기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교육청에서 공개한 수능 예시 문항의 '통합사회' 부분을 보면 정치와 법과 관한 내용에 대한 문제는 이전 기출 경향과 매우 유사합니다.

민법 등 법과 관한 부분은 특히 암기 하나로 승부보는 과목이 아닙니다. 탄탄한 암기를 바탕으로 하여, 문제 속 제시문이 어떤 상황이고 이럴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 다양한 제시문을 접하면서 지문이 아무리 길고 복잡해도 헛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4. 실수하지 않는 꼼꼼한 연습

정치와 법은 알고 있는 내용도 실수로 틀리기 쉬운 과목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조건을 읽고 판단해야 하다 보니, 인물 관계를 잘못 보거나 조건 하나를 빼먹고 계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과 문제 풀이를 충분히 익혔다면,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정해두고 푸는 연습도 꼭 해야 합니다. 저는 문제를 다 풀 뒤에는 답만 확인하기보다, 제시문의 조건을 모두 표시했는지와 계산 과정에서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평소부터 시간을 타이트하게 두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정치와 법은 정확한 개념 암기, 반복 풀이, 그리고 실수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안정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지리 공부법]

홍슬기 멘토

1. 2028 대입 변화와 지리 공부의 핵심

2028학년도 수능부터 탐구 영역이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로 바뀌면서, 지엽적인 단편 암기보다는 여러 개념을 엮어서 해석하는 융합형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입시 제도가 바뀌어도 지리 과목을 관통하는 본질은 딱 하나, 바로 '지도 위에 개념을 엮는 감각'입니다. 교재에 적힌 줄글 설명만 눈으로 읽어서는 조금만 꼬아 낸 복합 자료형 문제나 신유형을 만났을 때 바로 막히기 쉽습니다. 지리는 철저하게 지도를 통해 눈으로 익히고, 한 권으로 모으는 단권화를 해야 흔들리지 않는 1등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부법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학원이나 유료 인강 같은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교 수업을 중심에 두고 공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기본기를 다지고, 혼자 복습하면서 유독 헛갈리거나 어려운 파트만 EBS 무료 강의를 선별해 들으며 부족한 부분을 메웠습니다. 이 공부법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사교육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가볍게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직접 해보고 효과 본 지리 공부법

(1) 지도 포스트잇을 활용한 '시각적 단권화'

지리 개념은 머릿속에서 위치와 함께 떠오를 때 비로소 내 지식이 됩니다. 긴 줄글 노트를 여러 번 읽는 것보다, 지도 위에 직접 손으로 표시해보는 게 기억에 훨씬 오래 남습니다.

지도 포스트잇 적극 활용하기: 시중에 파는 지도 포스트잇(우리나라 전도, 세계 전도, 대륙별 백지도)을 구비해 두고, 기본서나 문제집 빈 공간에 바로 붙여가며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 3단계 시각화 루틴:

- ① **위치 잡기:** 기후대, 주요 하천, 공업 단지, 자원 매장지 등의 위치와 경계를 지도 위에 직접 펜으로 그어봅니다.
- ② **특징 연결하기:** 지명만 덩그러니 쓰지 않고, '연강수량 1,500mm 이상 다투'

지', '배사구조-석유'처럼 원인과 특징을 화살표와 키워드로 묶어서 표시합니다.

- ③ **지역 세분화하기**: 큰 덩어리로 뭉뚱그려 외우지 말고, 지역을 세부 권역으로 쪼갠 뒤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바람그늘 지역, 특정 소수민족 거주지 등)을 눈에 띄는 색펜으로 짚어둡니다.

(2) 시험 직전까지 볼 '단 한 권' 만들기 (단권화)

시험을 앞두고는 여러 권을 뒤적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교과서, EBS 연계교재, 모의고사 기출, 학교 프린트 등에 흩어진 정보들을 한 권에 모아야 합니다.

- **기준이 되는 메인 교재 정하기**: 설명이 가장 깔끔하고 익숙한 개념서 한 권을 베이스캠프로 정합니다.
- **헛갈린 선지와 오답 흡수하기**: 기출문제를 풀다가 헛갈렸던 보기나 최신 통계 수치 변화(주요 자원 생산 순위, 신재생 에너지 비율 등)를 발견하면, 메인 교재의 해당 지역 지도 포스트잇 옆에 바로 포스트잇을 추가합니다.
- **시험 직전 눈으로 스캔하기**: 시험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는 두꺼운 문제집 대신 이렇게 정리된 단 한 권만 넘겨보며, 지도 속 배치를 사진 찍듯 머릿속에 떠올리는 방식으로 최종 점검을 끝냅니다.

3. 실전에서 점수 올려주는 3단계 팁

1단계. 기준선으로 지도 뼈대 잡기

무작정 지도를 통째로 외우려 하면 금방 지칩니다. 적도, 북회귀선, 남회귀선, 본초자오선처럼 굽직한 기준선이 어느 나라, 어느 지형을 지나가는지 먼저 머릿속에 틀을 잡아두면 각 지역의 기후와 환경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2단계. 그래프와 표를 지도와 매칭하기

수능이나 내신의 변별력 문항은 대부분 복잡한 통계표를 주고 지역을 찾아내게 만듭니다. 표를 볼 때마다 "이 숫자가 지도에서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를 떠올리고, 1~3위 지역이나 특이점을 지도 포스트잇에 메모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나만의 취약 지역 지도 만들기

유독 헛갈리는 특정 지역(중동-북아프리카 국경선, 라틴아메리카 자원 분포, 국내 주요 시·군 행정구역 등)이 있다면, 손바닥만 한 백지도에 오답 포인트만

따로 모아 정리해 둡니다. 이 취약점 지도만 틈틈이 챙겨봐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세종시 후배들에게

지리는 무작정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하고 덤비면 외울 게 끝도 없이 늘어나지만, 지도를 펴놓고 '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산업이 발달했을까?'를 연결하기 시작하면 탐구 과목 중 가장 배신하지 않는 든든한 전략 과목이 됩니다.

문제 풀이 양에만 매달리기보다, 책상 앞에 지도를 두고 내가 아는 내용을 지도 위에 직접 표시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손으로 직접 그려 넣으며 차곡차곡 쌓아 올린 지도 한 장이, 시험장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정답을 찾아주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한국사 공부법]

이수민 멘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을 고르자면 한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중요시하는 소양 중 하나이며, 어릴 적부터 자주 접하는 지식 중 하나입니다. 한국사는 내신 및 수능 시험에 있어 '노력하면 가장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내신 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하고, 또 수능 한국사의 경우 절대평가이기에 성실한 암기를 바탕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사의 방대한 암기량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고, 수능에 있어 일정 등급만을 목표로 하기에 학습을 미루는 학생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한국사는 효율의 포인트만 잡아 학습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한국사의 학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 - 요약 - 암기'의 구조입니다. 그 전에, 한국사라는 과목만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입니다. 한국사는 조상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배경과 원인, 전개, 결과, 의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사의 구조와 유사하죠? 우리는 이 점을 이용해 효율적인 암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동화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알고 있듯, 백설 공주는 자신을 질투한 왕비를 피해 숲속 일곱 난쟁이와 지내지만, 독 사과를 먹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후 왕자의 도움으로 깨어나 왕비의 위협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줄거리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기점으로 이야기를 연결하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즉, 백설공주와 왕비, 왕자, 그리고 일곱 난쟁이라는 인물들을 독 사과라는 사건 키워드로 연결할 수 있죠. 이제 이를 한국사 학습법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 단계입니다. 이해의 단계에서는 개념 학습과 키워드 필기가 필요합니다. 개념 학습의 경우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나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이때 필기는 학습 자료 속 내용의 흐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키워드를 추천드립니다.) 이후 스스로 강의 내용을 복기하며 내용을 '이야기화'해준 다음,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는 핵심 키워드만 뽑아주면 됩니다.

다음은 '요약' 단계입니다. 필기한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며 배경, 전개, 결과로 요약해 줍니다. 이때 각 내용은 1~2줄 정도로 요약하면 충분합니다. 요약이 끝났다면, 요약본을 다시 한 번 읽어보며 사건의 흐름을 떠올려주고, 그 흐름을 이야기로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를 골라 그 키워드를 위주로 외워 줍니다.

이를 실제 문제 풀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용 적용을 위해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나 개념서를 같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편의상 5·10 총선거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당 사건에서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나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남한만의 단독 선거와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 제헌 의회라는 키워드는 해당 역사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한국사 17번 문제입니다.

17. (가)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9△△년 5월 10일에 실시한 □(가)에는 좌익계와 남북 협상계가 불참하였으나, 유권자 총 8,132,517인 중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선거인 명부에 자진 등록한 자가 유권자의 96.4%에 해당하는 7,840,871인이었다. 그리고 등록자의 95.5%에 해당하는 7,487,649인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 (중략) ...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 선거인 □(가)에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나타낸 것은 우리 국민이 품고 있는 불타는 독립 정신의 발로인 동시에 전통 있는 문화 민족으로서 민주 국가로 발전할 기틀을 보여준 증거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사』-

- ① 발췌 개헌에 따라 실시되었다.
- ② 제헌 국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 ③ 병인박해가 발생하는 배경이 되었다.
- ④ 국가 재건 최고 회의에서 추진되었다.
- ⑤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좌익계와 남북 협상계가 불참'하였으며, 5월 10일에 실시한 선거이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 선거라는 점을 통해 5·10 총선거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제헌 국회 의원을 선출하였다.'라는 내용의 2번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줄글로 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암기할 필요 없이 요약한 키워드만으로도 문제가 풀립니다.

해당 공부법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만, 간혹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9월에서 10월에 한국사 공부를 시작합니다. 겨울 방학부터 공부한 친구들에 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막상 한국사 공부를 하려니 다른 과목 공부도 급급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최후의 수단인 '수능 기출 문제 분석'하기를 추천합니다. 예시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15번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16번을 보겠습니다.

15.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소나무의 이 상처는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의 흔적입니다. 국가 총동원 체제 아래에서 일제는 송진을 활용한 군수 물자 생산을 위해 어린 학생까지도 송진 채취에 동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여러 지역의 소나무는 이처럼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 ① 13도 창의군을 이끄는 의병장
- ② 임술 농민 봉기에 가담하는 농민
- ③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 ④ 4·13 호헌 조치에 분개하는 시민
- ⑤ 전태일 분신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

16.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진은 일제가 탐골 공원의 문을 뜯어내는 장면이다. 일제는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사진과 같이 금속 소재로 제작된 문과 현판, 울타리 등도 가져가 군수 물자로 활용하였다.

또한 애국반과 같은 조직을 활용하여 금속류에 대한 공출을 실시하였다.

- ① 비변사에서 회의하는 관리
- ② 신사 참배에 동원되는 학생
- ③ 홍경래의 난에 참여하는 농민
- ④ 13도 창의군을 이끄는 의병장
- ⑤ 전태일 분신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

두 문제 모두 중일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발문 속 표현이 굉장히 유사하죠? 빈출 개념이 자주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에 기출 문제 속 개념을 정리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모든 학습은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가볍게라도 개념 학습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시간 대비 효율적인 한국사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문화·여가에서도 한국사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듯, 한국사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학문입니다. 공부한 내용을 사회에서 접할 수 있다는 큰 매력을 가진 한국사, 공부를 통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학문이 되길 바랍니다.

4부.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가이드

[융합과 적용으로 완성하는 창의적인 생기부 작성 방법]

국어국문학과 김은지 멘토

안녕하세요. 세종우리누리 멘토 김은지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고등학생 여러분들의 큰 고민 중 하나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힘들게 준비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끝내고 한숨 돌리려는데 여러분들을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학교생활기록부”일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학교에서 말하는 창의적인 생기부, 자기주도적인 생기부가 무엇인지 저 또한 학창시절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좋은 생기부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고 좋은 생기부 사례를 찾아보면서 주워들은 것들은 많았지만 정작 직접 주제를 정하고 글을 쓰려고 하면 막막했지요.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학문적인 탐구란 무엇인지 점차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만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상위권 내에서는 다소 낮은 편이었던 내신 1점대 후반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학종으로 많은 학교에 합격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9등급제 기준 1.8등급의 성적으로 약 13:1 경쟁률이던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국어국문학과에 최초 합격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예비 1번 추가합격,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학과, 특수교육과 최초합 등 여러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며 깨달은 점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Tip 1. 학과에 집중하지 말 것.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이 ‘진로와 엮어서 작성하기’를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에 맞춰서 작성하기’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로’는 단순히 학과나 직업 하나가 아닙니다. 진로(進路)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고 싶은지, 그 길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포함하는 것이 ‘진로’입니다. 물론 당연히 나의 진로, 즉 내가 나아가고 싶은 길을 구성하려면 특정한 방향성이 생깁니다. 진로와 엮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탐구를 억지로 희망 학과와 엮는 것을 지양하라는 뜻입니다.

멘토링을 하며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중간에 희망하는 학과가 바뀌어서 고민이에요. 이전 생기부는 a라는 학과를 위주로 썼는데 이제 b학과 위주로 생기부를 구성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탈락하지 않을까요?”라

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오히려 진로를 바꾼 것이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억지로 이전 활동을 감추거나 앞으로 새로운 희망 학과에 활동을 갑자기 끼워 맞추는 것보다, 이전의 관심사와 현재의 관심사를 연결하면서 그 변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Tip 2. 나에게 집중할 것. - ‘무엇’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그렇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한 “나”만의 스토리를 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만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무엇”과 “어떤”입니다. 이 학생은 “무엇”에 관심있는 학생인지와,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가 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분명히 드러나도록 노력했습니다.

“무엇”이라는 것은 희망 진로와 관심사와 연결됩니다. 교과 세특에 적히는 내용이 이 부분과 많이 연결됩니다. 무엇이 희망 분야이고, 희망 분야와 관련한 활동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실 두 번째 Tip에서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다음 내용인 ‘어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은 입시, 대학, 학과와 같은 조건에서 한 걸음 물러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그 학생이 어떤 탐구를 진행했는가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 학생이 어떤 태도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공부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제 경우엔 반장, 부반장, 동아리 부장과 같은 직책을 맡은 것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의 태도에 대한 언급이 학교생활기록부 곳곳에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성실하고 집중력이 높다’보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성실하게 노력하였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탐구 보고서처럼,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선생님께 제출하면 선생님이 적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학생의 ‘태도’를 보고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부분이기에, 평소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열심히 참여하려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사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자신이 이해한 부분과 차이나는 부분을 필기하며 지식의 폭을 넓히려는 모습이 돋보임. 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풀이 방법을 학습 노트에 작성하며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임”(2학년 수학)

“바른 태도로 교사 및 친구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며 수업 시간 내내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함. 자신만의 암기법과 학습법을 개발하여 친구에게 설명해 주며 자신의 노하우를

친구에게 나누고 베풀.”(2학년 일본어)

“학급에서 가장 수업 참여도가 돋보이는 학생으로 자신이 가진 학업 역량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어려운 지문에도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항상 보임. 수업 시간에 다른 지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은 노트에 꼼꼼하게 정리하여 질문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철저한 복습과 수업 시간 외에도 노력하는 학생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음”(3학년 독서)

일부만 가져온 것이지만, 3학년 내내 거의 모든 과목에서 이러한 내용이 반복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성실성·적극성’과 “리더십”이라는 키워드를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심화 탐구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러한 수업 집중도와 평소 학습 태도와 관한 부분도 대학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ip 3. 감상이 아닌, ‘탐구’.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즉 세특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학은 왜 시험 성적뿐 아니라 수업 속 탐구 과정과 보고서까지 평가할까요? 단순히 정답을 잘 맞히는 학생을 넘어, 대학에서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자료를 탐색하며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생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즉, 대학의 학업 과정을 잘 따라갈 역량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당장 고등학교에서 대학 논문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형식을 갖춘 ‘탐구’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탐구라고 해서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을 탐구의 주제로 잡은 이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앎을 넓혀 그 궁금증 해결하는 것이 탐구입니다. 이때의 다양한 방법이란 논문, 칼럼, 책 등을 찾아 읽는 문헌 연구일 수 있고, 인터뷰나 실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서 얻은 깨달음을 다른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탐구 활동 이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하거나 다른 탐구의 동기로 삼는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제가 탐구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다른 교과목 내용과 연계하기’입니다. 국어 과목 보고서이지만, 다른 교과에서 배운 이론을 가지고 와 궁금증을 해결하고 깊이 생각해보는 활동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이 방법은 한 가지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주제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다른 교과에서 배운 개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질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 질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운 지식을 스스로 연결하고 활용하는 종합적 사고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 생기부에 기록된 사례를 통해, 다른 과목과 연계하고 탐구를 확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에서 '아들리의 인간 이해'라는 책을 선정하여 독서활동을 하였음. 인간의 다양한 측면 중 특히 열등감, 허영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러한 인간 심리가 유아기의 열등감과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함.

심리학: 아들리의 열등감 이론을 바탕으로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의 문학작품 주인공 김달채씨와의 가상 상담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탐구한 점이 돋보임. 문학 작품 속 사례를 통해서 열등감이 인간의 행동 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함.

저는 심리학 수업에서 『아들리의 인간 이해』를 읽으며 '열등감'에 주목했습니다. 이후 국어 시간에 배운, 열등감을 지닌 주인공이 등장하는 문학 작품을 떠올려 아들리의 상담 이론을 적용한 가상 상담 시나리오를 작성·발표했습니다. 상담자의 질문은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하고, 주인공의 답변은 작품 속 행동과 묘사를 근거로 설정했습니다. 당시 과제는 심리학 관련 도서를 읽고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와 연결해 발표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책의 이론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어 시간에 배운 문학 작품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심리학 이론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교과와 내용과 연결해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해석하는 융합적 사고력과 탐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한 과목의 내용에 다른 과목의 내용을 적용하여 평가·분석해보는 탐구를 자주 진행했습니다. 사회문화 시간에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배경인 소설을 가지고 와 그 내용을 사회문화의 이론적 관점으로 탐구하고, 세계지리 시간에 빈부격차와 사회적 빈곤에 관한 내용을 생활과 윤리에서 배운 피터싱어의 해외 원조 이론과 엮어 탐구했습니다.

교과 세특 사례에 이어, 비교과 활동에서 탐구를 확장한 사례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을 향한 엇갈린 목소리'를 주제로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함. 찬성 6, 반대 15표의 의견을 분석한 후, 교내 특수학급 선생님을 찾아가 의견을 여쭙고 책 '통합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김명희 등)'을 읽고 심층 탐구해 봄. 교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폐교 재건, 통합 진로교육프로그램 등의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직접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통합교육 로드맵을 만들어 보고,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제언함.

학급 자율활동 중 특수교사와의 인터뷰에서, 교사는 이상을 지향하면서도 그 속에서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았다고 밝힘. 특수 교육에 국한된 내용이었지만 이를 교육 전반에 적용해 이해하고, '에밀(장 자크 루소)'을 읽고 심화 탐구해 봄. 에밀에서 루소가 강조한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과 5개의 시기별 교육을 정리하고, 루소가 이야기하는 자연의 개념이 본인이 인지하는 자연과 달라 이해하기 어려워 루소의 도덕 교육론 연구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고 보고서를 작성함. 이를 통해 루소가 강조한 자연적 교육은 인위적인 것, 조작된 것에서 벗어나 학생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첫 번째 사진은 '자율' 칸에 적힌 것이고, 두 번째는 '진로' 칸에 적힌 내용입니다. 탐구의 시작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통합교육은 실제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했더니,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투표한 학생들이 간단하게 의견을 적어준 포스트잇을 가지고 교내 특수학급 선생님께 찾아가, 현실에선 학생들조차 통합교육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여쭙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적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현실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책을 읽으며 이해를 넓혀 이때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로드맵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기는 아쉬워, 특수학급 선생님과 인터뷰 내용을 교육 전반으로 확장하여 이와 관련한 책을 찾아 읽고 궁금한 부분은 논문을 통해 보완하며 저만의 교육관을 확립했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조사, 인터뷰, 독서, 심화 자료 탐색으로 탐구를 능동적으로 확장해 나간 사례입니다. 특히 활동 과정에서 새롭게 생긴 궁금증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과 논문 등 적절한 자료를 찾아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도적인 탐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와 학문적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통합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교육관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발전시키는 역량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탐구는 처음부터 거창하고 복잡한 주제를 선택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수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과정에서 생긴 나만의 궁금증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고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른 교과에서 배운 내용과 연결해 보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정답이 정해진 질문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생각을 어디까지 확장해 나가는지에 따라 탐구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먼저 수업 속에서 자신이 잠시 멈춰 생각했던 지점부터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질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나다운 학교생활기록부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리더십 활동으로 차별화하는 학생부 경쟁력]

리더십과조직과학전공 홍슬기 멘토

1.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임원 및 대표 활동'이 갖는 힘

2028 대입 개편과 학생부 기재 간소화 속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 평가 요소인 공동체 역량(리더십, 협업 능력, 소통 역량)과 자기주도성(학습 태도, 탐구 의지)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상 경력이나 자율동아리 등 비교과 항목이 다수 미반영되는 현재 체제에서는 교과 세특뿐만 아니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같은 창체 영역에서 학생의 실제 행동과 주도성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반장, 부반장, 동아리 기장, 학생회 등 대표 직책을 맡는 것은 이러한 역량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직책 자체가 주는 타이틀보다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주체적으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과 이야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정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고교 생활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전략적인 방향으로 참고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대표하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얻을 수 있는 이점

대표 직책은 이끌어가는 집단의 규모와 대상의 범위에 따라 학생부에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의 깊이와 성격이 달라집니다. 대체로 활동의 반경이 넓어질수록 다루는 갈등의 규모가 커지고, 기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자율성도 넓어집니다.

반장·부반장 (학급 단위):

가장 밀접한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학급 자치 활동, 면학 분위기 조성, 학급 내 작은 의견 충돌 조율 등 '생활 밀착형 소통 역량'과 배려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담아내기에 적합합니다.

동아리 회장·부회장 (관심사 중심):

비슷한 흥미를 가진 부원들을 이끌고 1년 동안의 연간 탐구 계획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리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진로와 관련된 탐구 역량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기에도 가장 효율적인 자리입니다.

방송부·주요 자치 기구장 (학교 기능 단위):

학교 축제, 방송 송출, 행사 운영 등 학교의 필수적인 기능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책임감, 위기 대처 능력, 여러 학년 및 교사진과의 유기적인 소통 능력을 증명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전교 회장·부회장 및 학생회 집행부 (학교 전체 단위):

전교생과 교사진, 때로는 지역사회나 타 학교와의 소통까지 담당합니다. 학교 공약 이행, 전교 대의원회 운영, 교내 정책 제안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풀어나가는 '탁월한 리더십'과 행정적 추진력을 입증할 수 있어 학생 부에서 매우 강력한 차별점이 됩니다.

3. 진로가 명확한 친구들을 위한 '동아리 회장' 활용법

자신이 가고자 하는 전공이나 진로 방향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잡혀 있다면, 전공 관련 동아리의 장(회장·부회장)을 맡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관심도와 전공 탐구력의 직접적 증명:

단순 부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주어진 활동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태도로 보이기 쉽습니다. 반면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되면 연간 탐구 커리큘럼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이나 지역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지역 불균형 탐구', '세종시 생태 환경 지도 제작' 등의 프로젝트를 부원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기획하면서 자신의 전공에 대한 깊은 관심을 자연스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학술적 리더십 구축:

지식만 많이 알고 있는 지원자보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부원들의 관심과 역량을 이끌어내는 지원자가 대학에서 훨씬 매력적으로 평가받습니다. 부원들의 수준 차이를 고려해 스터디나 탐구 방향을 조율하고, 함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학생부 동아리 특기사항에 매우 풍성한 질적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4. 서류와 면접에서 쓸모 있는 '기록'으로 남기는 요령

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음 사항들을 챙겨두면 수시 원서를 쓸 때 큰 자산이 됩니다.

'직책 명칭'보다 '사건과 행동' 기록하기:

"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함" 같은 단순 평가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학급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의견 대립을 투표와 토론 규칙을 도입해 조율한 경험', '동아리 활동 중 예상치 못한 주제 변경 문제를 대안 제시로 극복한 일화'처럼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나의 행동을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 활동 기록장(포트폴리오) 누적:

1년 동안 바쁘게 활동하다 보면 학기 말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회의록, 활동 계획서, 부원들에게 피드백을 주었던 내용 등을 개인 노트나 파일에 간단히 정리해 두면, 학년 말 학생부 정정 및 보완 기간이나 고 3 면접 대비 때 결정적인 소재 창고가 됩니다.

5. 후배들을 위한 조언

반장이나 회장 자리가 주는 부담감 때문에 도전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은 대상을 대표해 보고, 내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기획해 본 경험은 입시 결과를 떠나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데도 큰 전환점이 됩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길 권하며, 꼭 거창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찾아 나간다면 그 자체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충분히 빛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평범한 활동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 생기부 빌드업]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지우 멘토

수시 원서 접수 시즌이 다가오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할 것입니다. “내신이 낮은데, 내가 꿈꾸는 대학 학종을 감히 써도 될까?” 혹은 “그냥 안전하게 낮춰 써야 하나?”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감이 매일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코 3개년 내신 등급의 숫자 하나만으로 학생들을 줄 세워 탈락시키는 매정한 시험이 아닙니다. 저 역시 정량적인 내신 숫자 이상의 무기로 학종에서 꿈꾸던 학교에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세종시 일반고를 9등급제 기준 2점 중반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신 성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미래인재전형(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최종 합격하였고,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계열적합형 1차 서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지방 일반고에서 특출나게 높지 않은 내신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딛고, 과감하게 상위권 대학의 문을 두드리 합격증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 수능이라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

우선 제가 수시 6장을 고민 없이 서울 주요 대학의 소신·상향 지원으로 채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정도 정시 성적이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시에서 다 떨어지더라도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수시 카드를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목표 대학과 학과에 후회 없이 과감하게 던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시 올인’이라는 위험한 도박 대신 끝까지 수능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역설적으로 수시 지원에서 가장 강력한 배짱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제가 지원할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인재전형은 9등급제 기준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3합6)’이라는 꽤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평소 모의고사 성적상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까다로운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실질 경쟁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계산하여 소신 지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하였고, 그 결과 해당 연도 최종 합격자 수시 내신 평균인 2.17등급(9등급제 기준)보다 낮은 2점대 중반의 성적으로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을 챙기는 것은 정시를 위한 대비일 뿐만 아니라, 수시에서 내신의 불리함을 뒤집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도 내가 맞출 수 있는 수능 최저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산적으로 수시 카드를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2.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성적 우상향'의 힘

또 하나의 무기는 '뚜렷한 성적 우상향 곡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2학년 내내 제 내신은 2점대 중반에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2점대 초중반(9등급제 기준)이 매우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상위권 대학의 학종을 노려볼 수도 있는 반면에, 그보단 성적이 낮다고 생각하여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난 상위권 대학은 어렵겠다"며 지레 포기할 수도 있는 성적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내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1학년때부터 슬슬 내신 성적을 향상시켜 우상향 곡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학기인 3학년 1학기, 집중력을 쏟아부어 마침내 내신을 1점대 중반까지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각 대학의 입학전형 안내에 나와있듯,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이 평가하는 것은 단순한 3개년 산술평균 숫자만이 아닙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심화 과목을 배우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적을 반등시킨 학생의 '학업적 끈기'와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기에 1~2학년 성적이 다소 아쉽더라도 마지막까지 꺾이지 않는 뒷심을 보여준다면, 내신 평균 등급이라는 한계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내신의 한계를 뒤집는 교과 세특과 비교과 빌드업

수능 최저와 성적 우상향이 기본 발판이 되어주었다면, 전국의 쟁쟁한 학생들이 물리는 고려대 계열적합형 1차 서류를 통과하고, 이화여대에 학종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깊이 있는 학생부'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계열은 문과 수험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고, 매년 수시 경쟁률이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인기 학과입니다. 그만큼 언론인, 방송PD, 콘텐츠 기획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탄탄한 생기부를 들고 몰려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단순히 '방송반 활동'을 했다거나 '카드뉴스를 제작'했다는 수준의 평범한 활동만으로는 입학사정관의 눈길을 사로잡기 어렵습니다. 9등급제 기준 일반고 2점대 중반의 내신으로 이 치열한 미디어과를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개인적으로 분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확고한 진로

저는 1학년 1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오로지 'PD'를 꿈꾸며 미디어학과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즉 '소통하는 PD', '콘텐츠 기획자'라는 키워드로 모든 과목과 활동을 촘촘히 연결했습니다.

- 1학년: 팩트체크 동아리, 미디어 리터러시, 대한민국 방송 역사 카드뉴스, 공동교육과정 이수(문학과 영상의 만남)
- 2학년: 홍보부장, 반장, 방송 비평문 작성, 공동교육과정 이수(미디어 비평과 콘텐츠 기획, 마케팅 원리)
- 3학년: '소통하는 PD' 1인 브랜드, 환경 웹드라마 제작, 미디어 동아리를 통한 학교 홍보영상 제작, 공동교육과정 이수(방송기자 따라잡기)

이처럼 비교과 파트에서 미디어 관련 다수의 활동을 하며 이만큼 미디어에 관심있고 열정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② 미디어와 교과 융합 탐구

국어나 사회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외국어 등 모든 교과를 미디어와 융합하여 탐구 및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미디어과를 비롯한 많은 문과 수험생분들이 '내 진로는 수학과 관련 없는데 어떻게 생기부를 꾸려야되는지'를 깊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학습한 부분과 연결하여 미디어에 대한 열정과 학업적 호기심을 표현했습니다. 제 생기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생활과 과학: '크로마키' 합성 원리를 파란색 보색 개념 및 인종별 눈동자 색과 연결
- 수학: 일기예보 오차를 조건부확률로 분석, '미디어 콘텐츠 조회 수의 평균과 분산' 분석
- 중국어: 단순 어학을 넘은 '중국 메타버스·증강현실 미디어 산업', '중국의 저작권 불법 유통 실태와 규제 정책'으로 확장
- 생활과 윤리: 언론의 알 권리와 개인의 잊힐 권리 논쟁 및 조건적 허용 방안 제시
- 진로 영어: 소셜미디어 감정식별기능 지문에서 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가짜뉴스 분석' 및 '온라인 뒷광고 규제 영문 청원서 작성'

이러한 고등학교에서의 학습 내용과 진로를 융합하여 학업적 호기심을 자발적으로 확장한 것이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분들이 좋게 평가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③ 꼬리물기 심화 탐구

수많은 고등학생이 미디어학과를 꿈꾸고 "PD가 되고 싶다"고 막연하게 적어 내지만, 수천 명의 지원자 중에서 눈에 띄려면 '나는 어떤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PD가 되고 싶은가?'라는 구체적인 콘셉트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1·2학년 때 미디어 리터러시와 가짜뉴스, 사회적 쟁점을 다루며 고민을 쌓아가다가, 3학년 때 비로소 '사회적 약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조명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PD'라는 명확한 브랜드를 완성했습니다.

실제로 고3 당시 방영 중이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메인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가 드물었기에 큰 흥미를 느꼈고, 미디어가 사회적 소수자를 어떻게 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 시청 소감에 머무르지 않고, 시야를 넓혀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책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예: '결정 장애' 등 '~장애'라는 표현) 속에 은연중에 배어 있는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짚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서' 수업 시간에 학급 친구들 앞에서 "미디어가 대중의 언어 습관에 미치는 영향"과 "창작자가 가져야 할 언어적 감수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편견 없이 세상에 알리는 콘텐츠 창작자가 되겠다는 어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꼭 거창한 계기가 아니어도 당시 유행하던 드라마나 대중문화에서도 충분히 깊은 탐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시청 → 관련 인문학 도서 독서 → 일상 속 문제의식 발표"로 탐구의 확장을 이어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장, 토론 등 많은 활동에 참가하여 풍성한 생기부를 꾸리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mbti가 I(내향형)지만, 학교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활동에 참여하여 생기부를 풍족하게 채웠고, 이를 통해 평가자분들께 꿈을 향한 열정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씩 내디뎠던 도전들을 모아 꿈에 한발짝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대학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수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원해야할까]

자유전공 심채연 멘토

<꼭 한가지 진로를 정해야할까 ? 주제 선정보다 더 중요한 것 >

- 저는 특정한 진로를 선택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학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기부 보면 1학년 때는 교육, 법, 경영.. 2학년 때는 막연하게 사회계열로 생각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뤘고, 3학년 때에는 사회복지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시 원서를 작성할 때도 사회복지학과 4장, 경영학부 교과로 1장, 자유전공학부 1장을 지원했고, 지금은 자유전공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로가 굉장히 여러번 바뀌고, 진로 역량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뚜렷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시 지원 당시 생기부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

학종 면접을 준비하면서, 또 대학교에 와서 입학처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실제 입학사정관님을 만나뵙고 제 생기부에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분석해보니, 어떤 진로를 정하는 것보단 활동 하나하나에 열정을 가지고 깊이있게 탐구하려고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또, 이론적인 부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실제 활동으로 잇는 주도성과 문제 해결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 제 실제 생기부의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2학년 때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학년 1학기 진로 시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기초해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실태를 조사하고, 배리어프리 건축물과 관련하여 학교 특수반 선생님께 인터뷰를 따는 등 문헌연구와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학년 2학기 진로 시간에는 실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시설을 돌아다니며 배리어프리의 관점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각장애 음성 안내판의 고장을 발견하고 행정실에 수리를 요청하는 등 모든 학생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3학년 사회문제탐구 시간에는 위 탐구를 교외로 확장하여 직접 안대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탑승해보며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지하철 대비 버스의 이용이 어려움을 느껴 지하철의 장점을 버스에 적용하는 개선책과 음성 안내 확대, 안전한 승하차 경로 설계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3학년 정치와 법 시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주제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

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사례를 참고하여 버스 출입문 개방 시 노선 번호를 안내하는 음성방송을 의무화하고, 지하철처럼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를 표준화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위처럼 한 주제를 다양한 과목과 접목시켜, 다양한 관점으로 깊이있는 활동을 진행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여러 주제를 얹게 다루는 것보다 자신이 기존에 해놓은 활동을 확장시켜 나만의 생기부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회, 반장, 학생회장 친구들 주목! 애쓴만큼 제대로 된 생기부 얻어가자>

- 또 저는 고등학교 시절 동안 반장, 학생회, 학생회장으로 활동했었는데, 단순히 어떤 직책을 맡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책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떤 활동을 진행했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생기부에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반장, 학생회, 학생회장을 하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맡은 직책에서 나만의 활동, 즉 나만의 차별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 진정한 승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1학기동안 학급반장(학생회)으로서 반 학생들을 챙기고, 책임감을 다함” 이라는 한줄만을 얻기 위해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은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진행했던 모든 활동들을 줄줄히 나열식으로 적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학생회 생기부 중 아쉽게 느껴졌던 1학년 생기부와 이를 보완했던 3학년 생기부를 가져와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는 1학년 때와 3학년 때 모두 제휴활동을 진행했었는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생기부에는 ‘학교 인근 식당과 제휴 사업을 추진함. 학생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 전화하여 제휴의 개념과 취지를 설명하고 학생들이 해당 식당을 방문했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학교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함’ 이렇게 시행착오와 느낀 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이를 보완해서 (간단하게 요약) “학생들의 공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터디카페와의 제휴를 추진함 -> 가격할인, 이용시간 추가 등 구체적인 대안들을 구상하고 각 계획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협상에 임함 ->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함 -> 이 과정에서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나은 대안을 만들고자 자발적으로 과업을 설계하고 책임감을 보여줌 -> 실패를 통해 제휴란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하는 상호 협력의 과정임을 깨닫고 실질적인 소통 능력을 함양함.” 이런 식으로 제휴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제가 행했던 구체적인 행동들과 이를 통해 얻은 점을 생기부에 녹여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한가지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니 이 길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원서카드, 어떻게 설계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2중반~3등급편)>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만의 주관적인 진학 우선순위(선호도 기준)’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신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대 구간은 수도권 주요 대학과 거점국립대학 사이에서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이 가장 깊어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확실한 자신만의 기준이 없으면 원서를 작성하는 내내 불안함에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원서를 쓰기 전, 스스로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며 자신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립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하위권 대학과 지방거점국립대학교를 동시에 합격했을 때, 최종 선택은 어디일까?”와 같이 가상의 합격 상황을 대입해 보며 “여기에 붙으면 서울로 간다”하는 나만의 확실한 마지노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학 여건, 전공 적합성, 선호하는 캠퍼스 환경, 학비 및 생활비 등 현실적인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남들이 많이 쓰는 조합을 무작정 따르기보다, 내가 실제로 합격했을 때 기꺼이 등록할 최소기준(마지노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후회없는 수시 원서카드를 정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다만, 타 지역 생활비나 사립대학의 학비 같은 경제적인 부담만을 이유로 나의 선호도나 진로 방향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막대한 비용 걱정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각 대학의 장학 제도와 정부 지원책을 미리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대학에는 단순히 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소득분위, 가계 형편, 다양한 생활 및 활동 유형에 맞춰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제도가 잘 갖추어져있고,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지원 폭이 훨씬 더 넓습니다. 이에 더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비 대출 등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요소가 원서 작성 과정에서 큰 걸림돌처럼 느껴진다면, 지원

을 망설이기 전에 관심있는 대학의 장학팀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을 직접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미리 가능성을 닫아두기보다는 현실적인 지원책들을 꼼꼼히 살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수시.... 생각해보면 수시는 정말 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어떻게하면 생기부를 잘 채울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열심히 진행하며 자신만의 의미있는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내가 잘 쓰고 있는 건지, 옳은 방향으로 쓰고 있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아 멈춰서게 되는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원서 접수 시즌이 되면 어떤 학교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해야 조금이라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잘 찾아봐야 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에 와서 느꼈던 것은, 생기부 곳곳에 남아있는 치열하게 고민했던 흔적들은 결코 헛된 경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대입 결과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어떤 분야에 대해 열심히 탐구해보고 활동해본 경험은 대학교에 와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에 큰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왕 학종을 챙기기로 마음먹었으면 중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시길 응원합니다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가이드]

건축학과 남궁훈 멘토

0. 들어가는 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학교생활기록부는 자신의 고등학교 3년을 담은 하나의 자기소개서와 같습니다. 입학사정관에게 생기부는 여러분이 어떤 역량을 지녔고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 주는 유일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면접을 제외하면 입학사정관이 여러분을 직접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생기부에 적힌 문장만으로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 그 관심을 어떻게 키워 왔는지, 대학에 와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생기부는 어떤 생기부일까요? 저는 모든 문장이 ‘~함’으로 끝나는 생기부라고 생각합니다. 생기부는 원래 ‘~함’, ‘~음’으로 끝나는 문체로 쓰이니 무슨 말인가 싶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 ‘탐구 보고서를 작성함.’, ‘주제 발표를 진행함.’처럼 무엇을 했는지만 남아 있는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은 이름만 바꾸면 반 친구 서른 명 누구의 기록이 되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장은 결국 여러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못합니다.

좋은 생기부의 문장에는 ‘했다’ 대신 ‘왜’와 ‘어떻게’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빛의 굴절에 대해 발표함.’이라는 문장과, ‘스마트 패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에서 무지개를 보고 의문을 가져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디스플레이의 빛이 머리카락에 반사되며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남을 밝혀냄.’이라는 문장은 같은 발표를 두고도 전혀 다른 학생을 보여 줍니다. 앞의 문장에는 활동만 있지만, 뒤의 문장에는 호기심이 생긴 순간과 그것을 풀어 간 과정, 그리고 그 학생만의 시선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장을 쓰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여러분의 활동에 이야기가 있어야 그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하나의 관심을 붙잡고 3년 동안 조금씩 깊어진 과정에서 만들어 집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어떻게 쌓아 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하나의 큰 줄기 잡기

1학년 때는 아직 학과를 정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관심 있는 기술, 이론, 사상가, 사회 문제 등 무엇이든 좋으니 생기부의 중심이 될 큰 주제 하나를 잡아 두길 추천합니다. 1학년 때 듣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모두가 함께 듣는 공통 과목입니다. 과목마다 배우는 내용은 다르지만

폭넓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여러 과목에 걸쳐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주제를 고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재미있게 했던 활동,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기술, 우연히 읽고 오래 기억에 남은 책처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은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다만 좋은 주제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넓어야 합니다. 너무 좁은 주제는 국어나 사회 같은 과목에서 금방 막힐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이나 이론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과 사회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1년 내내 붙잡고 있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스스로 궁금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드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드론을 직접 날려 보고 싶다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코딩으로 미니 드론을 띄워 보니 드론이 어떻게 제 자리에서 균형을 잡고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는지가 궁금해졌고, 그 원리를 알고 나니 이번에는 드론을 실제로 어디에 쓸 수 있을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짧은 비행시간이라는 택배 드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을 새로 골라 가상의 드론을 설계해 보기도 하고, 산불 현장처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드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대편의 질문도 생겼습니다. 하늘 어디에서든 카메라를 띄울 수 있는 기술이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된다면,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렇게 '어떻게 나는가'에서 시작한 질문이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거쳐 '어떻게 써야 하는가'로 이어지면서, 드론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1년 동안 여러 수업과 활동 속에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하나 정해 두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선 수행평가 때마다 주제를 새로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같은 대상을 과목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험이 쌓입니다. 기술로 설계하고, 수학으로 위치를 찾고, 사회에서는 윤리 문제를 일으키는 드론을 1년 동안 여러 방향에서 들여다보고 나니, 드론은 더 이상 막연한 관심이 아니라 제가 제법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든 여러 과목에 흠어진 기록이 하나의 주제로 모이면, 이 학생의 관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2. 가지 뻗기

2학년이 되어 진로가 조금씩 좁혀지면, 큰 주제 안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부분을 골라 깊이 파고들 차례입니다. 1학년이 여러 과목으로 주제를 넓히는 시기였다면, 2학년부터는 하나의 방향으로 주제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선택 과목이 나뉘기 시작하므로, 내가 뻗어 나가고 싶은 가지와 관련된 과목에서 탐구

를 이어 가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저는 드론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드론이 하늘에 뜨는 원리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처음 품은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프로펠러 날개의 개수를 늘리거나 크기를 바꾸면 드론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모형을 비교하며 답을 찾아가다 보니, 날개의 개수보다 날개 단면인 에어포일의 모양과 공기를 맞이하는 각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자리에서 수직으로 떠오르는 헬리콥터의 회전날개와, 활주로를 달려 떠오르는 비행기의 날개는 같은 원리로 뜨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궁금증은 이듬해 헬리콥터의 비행 원리를 다룬 글을 찾아 읽는 것으로, 다시 두 날개의 단면 구조를 직접 비교해 보는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다음에 무엇을 탐구할지 따로 고민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의 탐구가 끝날 때 생긴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다음 탐구의 출발점이 되었을 뿐입니다.

가지를 뺀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탐구를 마칠 때마다 “이것을 하면서 새로 궁금해진 것은 무엇이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생명과학 I에서 로봇의 움직임이 궁금해 근육 수축의 원리를 공부했던 것은 휴머노이드의 보행 설계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고, 다시 3학년 융합과학에서는 원숭이의 꼬리처럼 균형을 잡아 주는 구조가 2족 보행 로봇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기록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한 사람의 호기심이 자라 온 과정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처음 잡은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관심이 옮겨 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 역시 비행체가 무게를 이기고 떠오르는 원리에 빠져 있다가, 점차 무게를 버티고 서 있는 구조로 관심이 옮겨 갔습니다. 3학년 때는 트러스 구조의 내력을 직접 계산하고 아치 구조물이 받는 모멘트를 분석했으며, 동아리에서는 입체인 건축물을 평면으로 담아내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는 지금으로 이어졌습니다.

드론에서 건축까지는 멀어 보이지만, 기록 안에서는 ‘힘을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질문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이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떻게 관심이 옮겨 갔는지가 기록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3. 심화탐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진로와 연결된 가지를 찾았다면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심화탐구를 해 보길 권합니다. 교과서보다 한 단계 깊은 이론을 다뤄도 좋고, 이과라면 코딩이나 수

식을 활용해 작은 연구를 진행한 뒤 소논문 형식의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심화탐구는 '이 분야를 좋아한다'는 말을 '이 분야를 직접 다뤄 봤다'는 증거로 바꿔 주는 활동입니다.

주제는 '교과서 개념 하나'에 '실제 대상 하나'를 연결하는 데서 출발하면 좋습니다. 미적분에서 배운 함수를 실제 구조물에 적용해 본다거나, 확률과 통계에서 배운 표본 추출을 학교 설문조사에 적용해 보는 식입니다. 여기에 파이썬이나 엑셀 같은 도구 하나를 더하면, 교과서 속 개념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바뀝니다.

저는 3학년 때 파이썬과 미적분을 이용해 아치 구조물이 받는 하중과 모멘트를 시각화하는 탐구를 했습니다. 출발은 현수선, 에펠탑, 아치 구조물에서 반복해서 보이는 곡선이었습니다. 이 곡선이 쌍곡코사인 함수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고 나니, 그 대칭적인 모양이 하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하중을 속도, 작용 방법, 분포 상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했고, 복잡한 모멘트 계산은 일차 근사를 이용해 단순화했습니다. 그다음 파이썬으로 아치의 곡선을 그리고, 특정 지점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모멘트의 크기를 색상으로 구분해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 탐구가 가능했던 것은 같은 해에 트러스 구조의 내력을 절점법과 단면법으로 직접 계산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먼저 계산하며 원리를 이해한 뒤 코드로 옮기니,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소논문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 동기와 질문에서는 왜 이 탐구를 시작했는지를, 이론적 배경에서는 탐구에 필요한 개념을, 연구 방법에서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했는지를 쓰면 됩니다. 결과에서는 얻은 값이나 그래프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한계와 후속 과제에서는 이번 탐구가 놓친 부분과 다음에 해 보고 싶은 것을 정리하면 됩니다.

특히 한계와 후속 과제는 꼭 챙기길 바랍니다. 고등학생의 탐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가정을 두고 단순화했는지, 그래서 실제와 어떤 차이가 생길지를 스스로 짚어 내는 부분에서 탐구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은 보고서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논문이나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옮겨 오면 겉보기에는 수준 높은 보고서가 될 수 있지만, 면접에서 "이 수식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라는 질문 하나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금 쉬워 보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탐구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4. 그 밖에 알아 두면 좋은 것들

첫째, 탐구는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3학년 영어 시간에 볼링공의 움직임을 다룬 지문을 읽다가 “볼링 로봇은 항상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볼링공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사해 영문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교과서 지문 한 편, 일상의 장면 하나도 충분히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동기가 생생할수록 기록도 살아납니다.

둘째, 실패도 훌륭한 기록이 됩니다. 생명과학 시간에 ‘약한 전기 자극을 준 보리싹이 더 잘 자랄 것’이라는 가설로 10일 동안 실험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대신 추가로 자료를 찾아보며 실험에 사용한 전압과 전류가 적정 수준보다 높았다는 원인을 설명했고, 그 과정이 그대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결과가 틀렸다고 숨기기보다 왜 틀렸는지를 파고드는 편이 훨씬 좋은 탐구입니다.

셋째, 모든 과목에 진로를 억지로 끼워 넣지 않길 바랍니다. 연결이 어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저는 수학 시간에 파동과 푸리에 변환을 탐구한 뒤 ‘소리’에 호기심이 생겨 음악 감상과 비평 시간에 악기가 음색을 만드는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앞선 탐구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질문으로 이어질 때 연결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연결할 고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과목 자체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이과라도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민하길 바랍니다. 저는 1학년 때 드론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다룬 데 이어, 2학년 때는 『넛지』를 읽고 내가 개발한 기술이 타인의 선택에 영향을 줄 때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3학년 심화 국어에서는 기술의 부작용을 다룬 책을 읽고 공학 윤리 강령과 공학도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술은 대단하다’에서 멈추지 않고 ‘이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까지 나아간 흔적은 전공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역량으로 읽힙니다.

다섯째, 책은 목록이 아니라 탐구의 근거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현재 대입에서는 독서활동상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읽은 책을 세특 속 탐구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봇의 움직임이 궁금해 근육 수축에 관한 책을 읽고, 이를 휴머노이드의 보행 설계와 연결해 설명한 것이 그런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특은 선생님이 수업 속 여러분의 모습을 관찰해 쓰는 기록이라는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탐구의 동기와 과정, 새롭게 생긴 궁금증을 잘 정리해 둔다면 선생님이 여러분을 기록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됩니다.

[우리누리 멘토의 수시 작성 칼럼]

사학과 이수민 멘토

안녕하세요, 세종 우리누리 18기 멘토 이수민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선 대입 수시 전형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해당 전형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수시로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대입은 많은 변수가 있기도 하고, 또 정보가 다양하다 보니 많은 분께서 수시 준비에 있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준비 과정에서 '나에게 어떤 전형이 유리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저의 수시 경험과 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수시 전형 중 교과(일반), 학생부 종합(면접)을 준비했었습니다. 교과의 경우,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교과 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다수의 학교가 정량적 평가를 진행하기에 교과 전형을 지원할 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추천합니다. 또 '어디가?' 사이트에서 직접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역사를 진로 방향으로 잡았는데요. 그에 따라 생기부도 역사 관련한 활동으로 다양하게 채워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 학생은 역사 하나만 노렸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또 동아리 부장, 학급 반장, 학생회 활동 등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해 생기부에 리더십의 영역을 녹여냈습니다. 열심히 활동했지만, 담임 선생님과 상담에서 저의 생기부가 수업에 집중 잘하고 열심히 생활한 학생임을 보여줄 뿐, 내용들이 하나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착잡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해온 활동들이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고, 마땅히 조언을 구할 곳도 없던 게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던 일이기에, '나와 내 생기부의 장점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법을 모색한 것이죠. 우선 저의 장점은 임기응변이 강하다는 것과 적응력이었습니다. 언어적 임기응변이 강하고, 낯선 장소도 쉽게 적응하기에 면접 전형에서 나를 돋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한 번 제 생기부와 담임 선생님을 상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3년 내내 역사를 다룬 내용이니 전공 적합성에 부합하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활동을 공동체 영역으로 묶을 수 있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 성적대와 비슷한 학교를 살펴보고, 그 대학의 '수시 가이드북'을 살펴봤습

니다. 수시 가이드북에는 학교가 바라는 인재상과 전형별 역량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를 꼼꼼히 읽어보고 원서를 넣은 결과, 면접 전형을 노린 학교에 1차 합격하였습니다. 즉, 주어진 상황에서 나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에 걸맞은 전형을 찾은 것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는 원서를 넣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결과에 상관없이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면접 준비에 있어, 저는 3가지를 중심으로 연습하였습니다. 바로 내용 숙지, 돌려막기용 답변, 그리고 자세입니다.

1. 내용숙지

내용 숙지는 말 그대로 생기부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답변과 꼬리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n회독을 했습니다. 생기부를 읽어보며 지난 활동들을 살펴보며 탐구 결과와 느낀 점을 정리했고 자투리 시간에 틈나는 대로 읽어주었습니다.

2. 돌려막기용 답변

돌려막기용 답변은 그 어떤 질문에도 '응용'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저는 자기소개와 성격의 장단점, 가장 좋아하는 역사적 사건, 인상 깊게 읽은 책, 역사와 관련된 시사, 그리고 학과에 관한 지식 등의 답변을 준비한 뒤 아주 꼼꼼히 암기했습니다. 돌려막기용 답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기지를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 지 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면접에서 '염상섭 만세전을 읽었는데, 이와 관련된 역사가 무엇이 있는지 탐구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 '역사 관련하여 읽은 또 다른 소설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책은 위안부 피해 역사와 관련된 만화인 《풀》이었습니다. 책을 준비하긴 했지만, 소설로만 범위를 한정된 질문을 받아 잠시 당황하였는데요. 하지만 면접관께 '소설은 아니지만 평소 인상 깊게 읽은 만화가 있는데, 이를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라고 역질문을 드린 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차분히 답변하였습니다. 돌려막기용 답변은 실전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기에 평소에 자주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 태도

상대에게 신뢰 및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태도입니다. 올바른 자세, 인사, 어조와 말투 등 면접의 기본적인 태도를 일상에서 자주 연습했습니다.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바른 자세로 앉기, 말의 끝맺음을 명확히 하기 등

면접이라는 긴장 속에서도 바른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연습한 결과, 실전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준비한 내용을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도 제 면접 후기를 듣고 칭찬해주셨는데요. 그 결과 합격이라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경험에서 나온 팁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면접 팁을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학종 지원시

- 나와 생기부의 강점과 약점 파악하기
- 학교 입학처의 수시 가이드북 확인 후 나에게 유리한 전형 찾기

* 면접 준비시

- 생기부 내용 숙지
- 돌려막기용 답변 준비
- 면접 태도 준비하기

["나만의 스토리가 살아있는 세특·창체 작성 전략"]

정부행정학부 권나영 멘토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학교생활기록부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학기가 끝날 무렵이면 “무슨 책을 읽어야 하지?”, “어떤 보고서를 써야 생기부에 잘 남을까?”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대구국제고에서 3년을 보내며 매 학기 수행평가와 보고서, 정책 제안, 모의 활동을 준비했고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3년 동안의 생기부를 다시 읽어보니, 기억에 남는 것은 활동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궁금증에서 시작해 무엇을 찾아봤고, 그 관심이 다음 활동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오히려 ‘나라는 학생’을 더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채우기 위해 계속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내기보다, 수업에서 생긴 하나의 질문을 독서나 탐구, 정책 제안 등으로 조금씩 발전시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생기부를 만들어가면서 중요하다고 느꼈던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수업에서 생긴 질문을 다음 활동으로 이어가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각각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새로운 주제를 계속 찾기보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 중 조금 더 궁금했던 것을 독서나 토론, 정책 제안으로 확장해보는 방식입니다. 저의 경우 ‘기후위기와 인권’이라는 관심사가 여러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문제를 배운 뒤 《탄소사회의 종말》과 《침묵의 봄》을 읽으면서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주거권의 문제로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독서활동에서는 대구 낙동강 페놀 사건을 함께 조사했습니다. 환경오염이나 재난의 피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고, 이를 바탕으로 법·행정·철학을 함께 다루는 기후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평을 작성했습니다. 이 관심은 이후 모의기후소송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 미래세대 청소년’이라는 소송을 기획하고 환경부 장관 역할을 맡아 정부의 국제협력 노력과 행정적 한계를 조사했습니다. 이후에는 대구 북구의 침수 위험지역과 불투수면 비율을 조사해 투수포장 확대, 옥상정원 조성, 재난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정책을 구의회에 제안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모든 활동을 계획해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업에서 생긴 하나의 궁금증을 조금씩 따라가다 보니 독서에서 토론으로,

다시 법과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생기부에서도 이런 연결이 보일 때 단순히 여러 활동을 했다는 것보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탐구해왔는지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주장만 하지 말고 직접 근거를 찾아보기

사회문제를 탐구하다 보면 “이 정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좋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일수록,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저출산과 청소년 교통복지를 탐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을 읽은 뒤 대구 청소년의 월평균 교통비를 직접 조사했고,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STCIS)을 활용해 지역별 버스와 도시철도 이용량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지역의 무상교통 정책 자료도 함께 비교한 뒤, 만 14~19세 다자녀 가구 자녀에게 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新아이조아카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수업에서도 데이터를 직접 다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회탐구방법에서는 ‘청년의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정치참여 의지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용통계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기와 고용동향을 BSI와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해 분석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그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주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찾고 분석해보는 과정 역시 좋은 탐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3. 사회문제를 발견했다면 해결방안까지 고민해보기

사회 현안을 탐구할 때 저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다면 실제 제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까지 고민해보려고 했습니다. 특히 법과 행정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안이나 정책의 형태로 직접 해결방안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3학년 때는 생성형 AI의 무단 학습과 원저작권 침해 문제를 조사한 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작성했습니다. AI 저작물과 인간 저작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저작물 이용 동의와 출처 표시, 영리 목적 이용에 관한 조항 등을 직접 구성했습니다.

정치와 법 수업에서는 조선소 노동자 사망 사건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헌법을 검토해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조사한

뒤에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국민동의청원으로 등록해 2,700여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통합사회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탐구한 뒤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비정규직근로자 차별금지 법률안』을 작성해 모의의회에서 제안했습니다. 직접 법안을 만들어보니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조문을 작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지,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어느 경우에 책임을 물을 것인지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꼭 법안이나 정책을 만들어야 좋은 탐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가?”를 한 번 더 고민해보는다면 자신의 생각이 조금 더 잘 드러나는 탐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창체에서는 ‘무엇을 했는지’보다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기

자율·동아리·진로활동에서는 활동명 자체보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활동에서는 교내 멘토·멘티 제도를 정책으로 제안했고, 학생 투표를 거쳐 실제 운영으로 이어졌습니다. 학생자치회 기획총무부 차장과 학급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산 편성과 선거 운영에도 참여했습니다. 3년간 활동한 인권동아리에서는 부장으로서 국민참여재판 형식의 모의법정을 기획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학술제 활동도 운영했습니다. 3학년에는 후배들과 ‘세계시민 인권선언문’을 기획해 필요한 조항을 함께 작성하고 수정했습니다. 진로활동에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제·행정·법 분야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모의 UN총회에서는 사무차장으로 회의를 기획하는 동시에 쿠바 대표단으로 참여해 더반선언 이행을 주제로 기조연설과 결의안을 작성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창체에서 중요했던 것은 단순히 ‘부장을 했다’, ‘행사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제안했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했으며, 그 결과 무엇을 만들어냈는지가 오히려 저를 더 잘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정리할 때도 직책이나 활동명을 늘어놓기보다 “나는 이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5.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은 활동도 버리지 않기

고등학교에서 했던 모든 탐구가 제가 예상했던 결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면서 더 많이 배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회과제연구 수업에서는 고등학생의 사회서비스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29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5점 리커트 척도로 분석했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꽤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억지로 의미 있게 해석하기보다는 데이터 수집 과정의 한계를 적고, 후속 연구에서는 면접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심화국어에서 진행한 노인 고용정책 연구에서도 문헌연구에만 의존했다는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면접을 추가한다면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생기부에 항상 성공한 결과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더라도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사용한 방법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바꿔보고 싶은지까지 고민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탐구라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글: 결국 생기부에는 내가 궁금해했던 것들이 남는다

생기부를 작성할 때마다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생 때는 활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기록될지를 많이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졸업한 뒤 3년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니 가장 잘 보이는 것은 활동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궁금해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답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해왔는지가 더 잘 보였습니다. 기 후위기를 공부하다 인권과 주거권을 고민했고, 책에서 발견한 문제를 실제 데이터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문제를 발견한 뒤에는 법이나 정책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도 생각해봤습니다. 각각은 다른 수업과 활동에서 시작했지만, 돌아보면 결국 비슷한 관심과 질문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는 생기부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특별한 주제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업을 듣다가 정말 궁금했던 것 하나를 조금 더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관련된 책을 읽어볼 수도 있고, 데이터를 직접 조사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토론이나 정책 제안처럼 또 다른 활동으로 한 번 더 이어가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활동이 거창할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3년의 스토리를 완벽하게 계획해둘 필요도 없습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모든 활동을 연결해서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그때 궁금했던 것을 조금 더 찾아보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면 다음 활동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쌓인 기록을 나중에 돌아봤을 때 비로소 저만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좋은 생기부는 단순히 활동이 많은 생기부라기보다, 읽었을 때 “이 학생은 이

런 문제를 계속 궁금해했고, 자기 방식으로 답을 찾아왔구나”라는 흐름이 보이는 생기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생기부에 남는 것은 화려한 활동명이 아니라, 3년 동안 내가 어떤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찾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입시까지 완성한 영화영상학과 실기 준비]

영화영상학과 이상비 멘토

1. 진학 동기

어릴 적부터 카메라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머릿속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업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에는 단순히 영상을 보는 소비자를 넘어, 내 세계를 직접 표현하는 창작자가 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영화영상학과라는 목표를 품게 되었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기 및 면접 전형을 중심으로 입시를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준비된 학생인지 교수님들께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단순히 열정이 넘친다는 말 한마디보다 실제 현장에서 구르고 고민했던 경험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 판단했고, 저는 학교 생활의 중심인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만의 입시 서사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2. 동아리와 함께 성장한 나의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고민 없이 복합영상 제작 동아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는 부장직을 맡아 동아리를 이끌게 되었는데, 영화과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만큼 동아리 시간에 단순히 영상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단편영화 시나리오를 꾸준히 써 내려갔습니다. 내가 쓴 글을 타인에게 소개하고 연출 의도를 발표하는 '시나리오 피칭' 활동도 자주 진행했습니다. 동아리 부원들 앞에서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다양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은, 머릿속에만 감돌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영화적 언어로 발전시키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화의 본질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작성한 시나리오가 동아리 내 정기 제작 작품으로 발탁되어, 마침내 감독으로서 영화를 연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작에 착수하려니 청소년이라는 신분과 예산의 한계라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 대여료나 로케이션 비용 등은 학생들의 사비로 충당하기에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학생의 신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각종 청소년 영화제와 지자체, 청소년 재단 등에서 진행하는 제작 지원사업을 밤낮으로 찾아보고 서류를 준비해 응모했습니다. 그 결과 지원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정식으로 장비를 렌탈하고 시나리오를 촬영용 대본과 콘티로 구체화하여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첫 단편영화를 무사히 완성했습니다.

3.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영화 완성 후 찾아온 첫 영화제 출품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수많은 영화제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그대로 주저앉는 대신 영화를 다시 뜯어보았습니다. 몇 달간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영화를 보고 부족한 점을 찾아내어 편집의 호흡을 재조정하고 보완하며 수차례의 재편집 작업을 거친 끝에 완성도를 높여 다시 여러 영화제에 도전했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편집과 재출품을 거듭한 노력 덕분에, 마침내 여러 청소년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거나 수상을 하는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내 영화를 찍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동아리나 친구들이 만드는 영화 현장에 스태프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촬영, 조명, 미술, 제작, 연출부 등 다양한 부서의 역할을 직접 경험해 보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고충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하나의 작품을 위해 얼마나 많은 협업이 필요한지를 깊이 체감했습니다.

4.. 실기 및 면접전형 극복 노하우

이러한 수많은 시행착오는 영화영상학과 면접 실기에서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영화과 면접은 보통 '이 학생이 실제로 영화를 찍어본 경험이 있는가', '영화 현장의 고되고 힘든 과정을 버텨낼 의지와 책임감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상업 영화 현장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의 환경 속에서 어떤 부서의 일을 맡아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솔직하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영화의 기획 의도와 제작 과정, 그리고 현장에서 겪은 한계를 주도적으로 해결했던 에피소드를 답변 속에 흥미로우면서도 간결하게 녹여내기 위해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교수님들께 제가 단순히 영화를 꿈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학 후에도 어떤 난관이든 극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화를 완성해 낼 학생이라는 신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5. 후배들을 위한 실전 팁 및 조언

만약 지금 영화나 영상 분야로의 진학을 고민하며 막막함을 느끼는 후배들이 있다면, 너무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려 하지 말고 본인의 환경에 맞춰 작은 것부터 직접 실행해 보라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조언을 받아 고쳐가며 본인이 전하고자 하

는 이야기를 탐색하여 영화 제작을 준비해보세요. 화려한 카메라나 큰 예산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방학 기간을 활용해 스마트폰 하나로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1~3분짜리 짧은 단편영화를 혼자서라도 기획하고 끝까지 편집해 완성해 보는 경험 자체가 면접에서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여건이 된다면 주변 친구들과 크루를 만들어 서로의 작품에 스태프로 품앗이를 해보거나, 방학 동안 지자체 미디어센터나 대학 등에서 열리는 캠프 형태의 청소년 영화제작·영상제작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화를 직접 기획하고, 찍고, 편집하여 완성까지 가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는 면접장에서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과 고민의 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빛나는 시나리오가 되어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첫 씬을 촬영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좋은' 생기부는 '나를 잘 드러내는' 생기부!]

국어교육과 강서영 멘토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시 전형 중에서도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저도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 중 한 명이었고, 결국 이 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한 3년간 최선을 다해 임한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활동 덕분에 얻은 결과이지만, 사실 저의 비교과 활동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때까지만 해도 “정확히 뭘 하고자 하는 학생인지 잘 모르겠다.”, “너라는 사람의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평을 듣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이런 평을 듣고, 생기부 비교과 활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말하는 '좋은 생기부'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좋은 생기부'는 '나를 잘 드러내는 생기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잘 드러내는 생기부는 단순히 내가 어떤 학문을 전공하고 싶은지가 드러나는 생기부가 아니라, '내가 관심있는 분야를 전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드러나는 생기부입니다. 과거의 저는 단순히 전공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활동만 했기에 '저'를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잘 드러내는 생기부'라고 해도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시를 마무리하며 깨달았던 몇 가지 방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1. 교과서 or 수업 내용 중에 궁금했던 점을 탐구로 발전시키기

탐구 주제를 정하는 일은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흔히 전문적이고, 고차원적인 주제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심화탐구'인 만큼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의문이 생긴 지점을 심화하여 탐구하는 것만큼 좋은 활동은 없을 것입니다. 당장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평소 수업들을 때 의식적으로 계속 탐구해보고 싶은 지점을 찾아 보면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한 탐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어 문법 중 반모음과 관련된 음운 변동에 대해 배우며 '보- + -아 → [봐:]'와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을 반모음화 즉 교체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모음 축약 즉 축약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 것에 의문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교과서에서는 반모음이 음운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

고 있는 반면 수능 특강에서는 반모음이 음운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입장이 모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심화탐구 소재로 삼고, 더 나아가 국어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문법교육적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교육해야 할지를 고찰해보았습니다. 반모음을 음운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음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입장의 논문을 모두 읽고, 학교문법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며 저만의 생각을 구축하려고 노력한 결과, 저의 의문도 해소하면서 국어교육의 본질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던 탐구를 완성하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만족하는 탐구활동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부터 시작해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좋은 주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관심분야와 학과에서 하고 싶은 것이 명확히 드러나게 탐구 주제 선정하기

서문에서 언급했듯, 좋은 생기부는 단순히 내가 어떤 학문을 전공하고 싶은지가 드러나는 생기부가 아니라, '내가 관심있는 분야를 전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드러나는 생기부입니다. 그렇기에 관심분야에 가서 궁극적으로 무엇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진 후에 탐구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저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단순히 '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나는 어떤 국어 교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이후에는 탐구 주제 선정이 훨씬 수월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탐구를 하니 당연히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3. 학교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생님들께 조언 구하기

학교나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학생부종합전형에 준비하는 학생들이 들으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재학했던 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기부 모의평가, 모의 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고 실제로 막막한 입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다 보면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은데, 주변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혹

은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서술한 2번에서, 제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탐구를 진행하였다고 했지만 모든 탐구에서 저라는 사람이 잘 드러났다고 할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드러내려고 고민하고 힘들어한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생기부에 조금이라도 묻어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스스로 고민하여 작성한 생기부로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5부.

우리누리 멘토들의
표양 칼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우정 양상 비교

- 『회우록서』와 『간정동필담』, 『속재필담』과 『상루필담』에 나타난 홍대용과 박지원의 연행 속 우정 경험을 중심으로

김은지 멘토

진정한 친구, 벗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쉽게 답이 내려지지 않는, 어쩌면 한 평생의 질문이 될 수도 있는 물음이다. 어릴 적에는 일상을 공유하는 주변 사람들과 쉽게 교우관계를 맺고 서로를 드러내지만, 환경을 공유한다고 해서 서로의 모습까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람들은 때로 일상의 교류를 넘어서 보다 깊은 관계를 갈망하기도 한다. 여러 현대인들이 이런 고민을 품고 삶을 살아가듯, 약 250여년 전 홍대용과 박지원도 '진정한 벗'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특히 이 당시 조선은 신분제였기 때문에, 우정은 신분이라는 당시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진정한 벗을 묻는 질문의 답이 되어줄 사람들을, 몇 만리나 떨어진 청나라에서 찾았다.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은 청나라 북경에서 거행되는 정월조참(朝參)에 참석하기 위한 동지겸사은사(冬至兼謝恩使)에 자제군관으로 연행을 다녀온 경험을 『간정동회우록(乾淨洞會友錄)』, 『간정동필담(乾淨洞筆談)』 등에 저술하였다. 여기에는 홍대용이 항주에서 만난 세 선비와 나눈 필담이 기록되어 있는데, 국적·신분을 초월한 교류와 형제의 결의가 담겨 있으며, 진정한 벗을 갈망하던 홍대용이 항주 세 선비와 깊고 다양하게 교류하며 그 결핍을 해소한 경험은 18세기 조선의 폐쇄적 교류 방식과 당파적 인간관계에 한계를 느끼던 문인들에게 학문적·인적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지원은 홍대용의 연행 이후 약 15년이 흐른 1780년, 건륭제(乾隆帝)의 고희를 축하하는 진하사(進賀使)의 일원으로 열하(熱河)를 방문하고, 그 경험을 『열하일기(熱河日記)』에 남겼다. 그중에서도 특히 「속재필담(粟齋筆談)」과 「상루필담(商樓筆談)」에는 박지원이 연행 중 만난 중국 상인들과 밤새도록 필담을 나누며 교류하는 장면이 자세히 실려 있다. 홍대용이 그랬듯 박지원 또한 진정한 벗사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으며 청나라의 상인들과 깊은 정서적 교감을 통해 진정한 우정의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 둘의 연행 경험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박지원이 만난 이는 선비가 아닌 상인으로, 이는 단순한 교류 대상의 신분 차이를 넘어 교류의 내용·방식에 있어서도 홍대용의 경험과 비교하여 차이를 낳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홍대용의 우정 경험을 「속재필담」과 「상루필담」에 나타난 박지원

의 우정 경험과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두 인물의 교유 대상의 차이가 우정의 성격, 교류의 내용에 주목할만한 양식을 낳았는지를 분석해보려 한다.

1. 18세기 조선 우정론의 맥락

흔히 우정이라 하면 개인 간의 자유롭고 친밀한 관계를 떠올리지만, 17세기 이후부터 조선의 우정 윤리는 사회 정치적인 맥락과 연결되어 이해되었다. 선조 이후 봉당 정치가 형성된 이후 당파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뭉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당파가 노론(老論)과 소론(小論), 남인(南人)과 북인(北人)의 4색 당파로 나뉘어 있었고, 신분도 넷으로 나뉘어 있었다. 당파끼리의 대립이 매우 격렬하였고, 신분 상의 위계도 엄하였기에 아무리 서로 교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 상황이 장애물로 작용하여 허물없이 속마음을 터놓는 관계를 맺기 어렵게 했다.²⁾ 더불어 당시 한문 문화권의 상우(尙友) 사상도 이러한 우정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 상우(尙友)란 위로 올라가 천고의 인물과 벗하는 것, 곧 벗을 사귀는 도리에 있어서 꼭 현세의 인물만이 아닌 옛날의 훌륭한 인물을 벗할 수 있다는 말로, 그 사람이 남긴 글이나 훌륭한 책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그 사람을 배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³⁾ 이 사상을 받아들인 당시 조선의 문인들은 죽은 옛 중국 사람들을 본받을 점이 있는 이상적 친구라 생각하고, 오히려 같은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는 깊은 교류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 홍대용과 박지원을 비롯한, 우정의 참가치를 알고 이를 좇으려던 몇몇 지식인들은 당대의 우정 세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짓기도 했다.

그럼 이제 박지원과 홍대용의 연행 이야기가 담긴 「간정동필담」과 「속재필담」, 「상루필담」에서 나타나는 박지원과 홍대용의 우정 경험을 비교해보자. 박지원과 홍대용의 연행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홍대용이 교류한 엄성嚴誠, 반정균潘庭筠 육비陸飛는 중국의 세 선비로 알려져 있는데, '홍대용과 항주 세 선비(돌베개)'를 저술한 김명호는 이들이 지방의 '시골 선비'가 아니라 엄청난 엘리트였다고 기록한다. 이들은 절강성 향시에 급제한 인재였는데, 절강성 향시는 1만여명이 응시하고 합격률은 1%도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다. 홍대용이 시가(市街)를 헤매다 만났다는 세 선비는 사실, 중국의 여러 선비 중에서도 최고 인재였던 것이다. 이와 달리 박지원이 예속재와 기상루에서 만난 여덟 명의 상인들 중에는 글을 모르는 자도 여럿 있었다.

2) 박수밀, 「소통의 맥락에서 본 조선후기 友情論의 양상」, 『동방한문학』 65, 2015, 201면.

3) 이군선, 조선 讀書人의 尙友論 - 「尙友賦」와 「尙友五贊」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71, 2017, 64면.

목춘(穆春)의 자는 수환(繡寰)이요, 호는 소정(韶亭)이며 촉 사람이다. 나이는 스물넷이요, 눈매가 그린 듯하나 글을 모르는 게 흠이다. 온백고(溫伯高)의 자는 목헌(鰲軒)이며 촉의 성도(成都) 사람이다. 나이는 서른하나인데 역시 까막눈이다. 오복(吳復)의 자는 천근(天根)이요, 항주(杭州) 사람이며, 호는 일재(一齋)다. 나이는 갓 마흔이요, 학문은 짧으나 사람은 암전하다.⁴⁾

게다가 조선 사회에서 상인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고 하여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으며 중국에서도 사람들은 상인을 하류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박지원은 이들의 신분을 전혀 따지지 않았으며, 이틀 동안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이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며 진솔한 우정을 나누었다.

두 인물의 교유 대상 차이는 단순한 신분적 대비를 넘어 각자가 연행 경험을 통해 추구한 '우정'의 목적과도 연결될 수 있다. 홍대용은 항주 선비들과 시문과 학문을 매개로 학문적 공감과 사유의 심화 및 확장을 도모했다. 반면 박지원은 연행 과정에서 이념적·규범적 논의보다는 일상의 경험과 현실의 문제에 밀착한 대화를 통해 소통을 확장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이후 두 인물이 기록한 우정 경험에서 각각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교유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2. 교유 내용과 중심 주제

먼저 홍대용이 항주 세 선비와 교유한 내용을, 「회우록서」에서는 다음의 한 문장으로 간략히 이야기한다.

천인성명(天人性命) 근원과, 주자학과 육왕학의 구분과 진퇴(進退), 소장(消長)의 시기와, 출처(出處)와 영욕(榮辱)의 분수 같은 것을 더할 수 없이 토론하였는데, 고거(考據)와 증정(證定)이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그 서로서로 충고하고 선도하여 주는 말이, 모두 지성(至誠)과 측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⁵⁾

이러한 서술만 보더라도 당시 홍대용과 항주 세 선비가 나눈 이야기는 학문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처음 만난 날부터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하는 날에는 서로에게 편지를 적어가며 학문에 대한 고민과 각 나라의 정치제도와 인재 등용 제도,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 등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들은 단순히 지식을 주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반박하며 깊이 토론했다. 의견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학문적 흥미의 계기가 되었고, 서로를 향한 충고와 권면도 이어졌다. 이렇게 항주 세

4) 박지원, 『열하일기』, 『성경잡지』, 『속재필담』.

5) 홍대용, 『담헌서』 외집 권1, 『회우록서』.

선비와 홍대용의 교유에서는 규범적이고, 학문적인 이야기와 토론이 오갔다면 이와 달리 박지원과 상인들의 교유에서는 보다 실용적인 내용이 주로 오간다.

“이건 참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그러고도 혹은 일부러 한쪽 귀를 떼기도 하고, 또는 몸에 흠집을 내기도 해서, 상(商)·주(周)·진(秦)·한(漢) 시대의 유물이라고 속이는 것은 더욱 알미운 짓입니다. 뒷날 창(廠) 중에 가시면 모두 먼 곳에서 온 장사치들이오니 물건을 사실 때 진·가를 분간치 못한 채 우물쭈물하다가 웃음감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⁶⁾

가짜 골동품을 보고 구별하지 못하는 박지원을 보고, 전생은 골동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아주 세세히 알려준다. 이는 경전 공부나 학문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상인으로 살아온 이의 실증적인 경험을 통한 지혜이자 지식이다. 이처럼 박지원은 상인들과 교유한 이틀 동안, 자신이 미처 몰랐던 수많은 삶의 지혜와 경험을 상인들에게서 배웠다. 반대로 박지원이 자신의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인의 학문적 궁금증에 대해 같이 논의하기도 한다.

이처럼 박지원과 상인들은 서로 살아온 환경과 사회적 위치, 그리고 축적해온 지식의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이러한 차이를 극복의 대상이나 한계로 보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교유는 배경의 차이를 매개로 지식이 확장되는 우정의 양상을 보여준다.

홍대용과 박지원은 연행이라는 동일한 경험 속에서 서로 다른 대상과 방식으로 우정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형성한 우정은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벗을 만났다는 정서적 충족’이라는 공통된 귀결로 수렴했다. 이는 진정한 우정은 특정한 내용이나 특정한 대상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자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박지원의 우정 경험에서 드러나는 특수성은 그의 평등 윤리적 우정론이다. 박지원은 상인들을 천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의 경험을 새롭고 지혜로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 이러한 인식은 그가 저술한 「예덕선생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은 똥 푸는 엄행수를 진실하고 정직한 친구이자 스승이라고 언급하며 똥 푸는 일을 통해 농작물을 자라게 한다는 점에서 엄행수를 가장 덕이 높은 사람이라 칭한다. 양반 사회에서 찾을 수 없었던 참된 우정을 비친하다고 여겨지는 서민에게서 발견한 데에서 신분을 뛰어넘는 우정을 넘어 가장 비천한 존재를 가장 높은 존재로 끌어올리려는 그의 의식이 엿보인다.⁷⁾

6) 박지원, 『열하일기』, 『성경잡지』, 『속재필담』.

7) 박수밀, 「〈熱河日記〉에 형상화된 중국 상인과의 우정 양상」, 『민족문화』, 64, 2023, 383면.

정리하자면, 조선 후기의 당파와 신분 질서는 깊은 우정을 어렵게 했고, 지식인들은 이를 넘어선 진정한 벗을 갈망했다. 홍대용과 박지원은 여행지에서 필담을 통해 이러한 우정을 경험했다. 홍대용은 항주 선비들과 학문과 윤리를 토론하며 서로 권면하는 관계를 맺었고, 박지원은 중국 상인들과 교유하며 실용적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었다. 두 경험은 대상과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신분과 국적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운 관계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는 진정한 우정이 일정한 조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의 문제의식과 삶의 방향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박지원의 상인 교유는 삶 속의 지혜를 존중하고 신분의 위계를 넘어선 평등 윤리적 우정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자료>

박지원, 『열하일기』, 『성경잡지』, 『상루필담』.
 박지원, 『열하일기』, 『성경잡지』, 『속재필담』.
 홍대용, 『담헌서』 외집 권1, 『회우록서』.
 홍대용, 『담헌서』 외집 권2, 『항전척독』, 『간정동필담』.

<논문 및 단행본>

장경남, 홍대용의 여행 필담집『간정동회우록乾淨衡會友錄』, 「간정필담乾淨筆譚」, 「간정동필담 乾淨衡筆談」에 대하여, 『국학연구』 38, 2019.
 이군선, 조선 讀書人의 尙友論 - 「尙友賦」와 「尙友五贊」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71, 2017.
 박수밀, 「소통의 맥락에서 본 조선후기 友情論의 양상」, 『동방한문학』 65, 2015.
 박수밀, 「〈熱河日記〉에 형상화된 중국 상인과의 우정 양상」, 『민족문화』, 64, 2023.

<기사>

김기중, 「홍대용과 우정 나눈 '항주 세 선비'는 엘리트였다.」, 『서울신문』, 2020.11.09., <https://www.seoul.co.kr/news/life/scholaship/2020/11/09/20201109500064>.

탐구 point 더 생각해보기!!

- 조선 후기의 신분제가 우정을 제한했다면, 현대 사회의 보이지 않는 위계는 무엇이며 그것은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공자의 봉우(朋友) 윤리와 박지원의 상인 교유를 비교할 때, '좋은 벗'의 조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역사적으로 신분제의 약화와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은 우정의 대상을 어떻게 넓혔는가?

장자와 아감벤의 철학 속 타자에 대한 존재론적 호의에 대하여

김건우 멘토

세계화와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 사이 연결의 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타자와의 실질적인 관계가 오히려 점점 더 얕아지고 파편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끊임없는 접속과 소통은 관계의 양적 확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 속에서 타자는 공감과 환대의 대상이기보다 빠르게 판단되고 분류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타자를 대할 때 이미 규정된 기준을 앞세우며,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재단하려는 태도에 익숙해져 있다.

해당 문제의식은 동서양 철학 사조 속에 변주되어왔다. 세계를 하나의 질서 아래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항상 그 바깥에 놓인 존재들을 배제했고, 이에 대한 성찰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타자를 특정한 속성으로 환원하려는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사유로 이어지며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왔다. 해당 맥락에서 장자와 아감벤의 사유는 서로 다른 시대속에 놓여 있음에도,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진다.

장자의 사유는 '시비를 가르는 행위'가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인위적 개입이라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그는 유가의 도덕이 보편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인간에게 강제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장자에게 있어 시비는 사후적으로 구성된다. 「제물론」에서 장자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미 하나의 성심, 즉 굳어진 기준을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성심은 세계를 해석하는 틀이자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성심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판단도 특정한 관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보편적 기준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장자는 이를 "아직 성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시비가 있다면 이는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 따라서 시비 판단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도 필연적으로 진리로서 가치를 지닐 수 없으며, 그저 이미 형성된 관점 위에서 맺어진 결론이다.

따라서 성심에 근거한 판단은 필연적으로 타자에 대한 강제를 수반한다. 모든 판단이 특정한 관점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타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장자는 문제의식을 심화하여 판단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의심하는데, 이는 장자의 사유 속 타자를 규정하고 재단하려는 시도가 본질적으로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자의 사유는 판단의 정당성을 해체함과 동시에, 타자에 대한 강

제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장자는 호접지몽에 대해 저술하며, “장주와 나비는 반드시 구분이 있다”고 한다. 장자는 그의 사유를 모든 차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개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구분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구분이 판단과 위계의 근거로 작동하는 것을 거부한다. 여기서 ‘물화’는 존재가 고정된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전환되는 과정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존재는 구분되지만, 그 구분이 평가의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가능해진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장자의 사유는 이해 가능성을 전제로 타자를 포섭하거나 동일한 기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는 모든 판단이 성심에 의존한다는 점을 통해 그 보편성을 해체하고, 타자에 대한 규정과 강제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요청되는 태도는 단순한 무관심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타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판단의 근거가 없다는 자각을 바탕으로,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수용의 태도로 설명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르조 아감벤은 도래하는 공동체에서 이상적 공동체의 개인이 가져야 하는 모습을 탐구한다. 특별히, 그는 임의적 존재(*qualunque singularita*)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의 주체성을 설명한다. 임의적 단독자는 주체를 정체성의 논리로부터 탈각시켜 재규정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임의적 존재라는 단어의 어원에 존재론적 호의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먼저, 임의적 존재는 자신에 대한 존재론적 긍정을 내포한다. ‘*qualunque*’⁸⁾의 어근을 분해하면 *qual*(어떠한) + *si*(자기) + *voglia*(원함)의 조합으로 해석된다. 이는 ‘무차별성(*indifference*)’이 아니라, ‘자기-지향적 가능성’을 함의한다. 다시 말해, 임의성은 아무 속성에도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신의 그러함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이다.

어떠함/어떠한대로 존재함은 이런저런 집합이나 집단에의 귀속을 식별하는 이런저런 속성을 갖는다는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렇다고 어떠한/-대로 존재함이 다른 집단을 향하거나 단순히 귀속의 부재를 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러함/그렇게 존재함, 그 귀속성 자체를 지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귀속의 조건은 항시 은폐된 채로 남아 있지만 실제 술어는 아닌 그렇게 존재함은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 것으로서 노정되는 특이성은 임의적이며, 즉 사랑스럽다.⁹⁾

8) 원문 표기: *qual-si-voglia*

아감벤의 존재론에 대한 견해는 다음 인용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첫 문장에서 언급되는 어떠한, 어떠한 대로 존재함은 앞서 설명한 임의적 존재의 존재 방식이다. 이 질문은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개별 대상을 집단, 속성, 체계 속을 편입시키는 것이 아닌 그러한 환원의 굴레를 벗어나야함을 역설한다.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존재 양태가 사회적·정치적 조건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감벤은 귀속의 조건들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항시 은폐된 형태로 잔존한다고 본다. 즉, 임의적 존재는 표면적으로는 정체성의 강제에서 벗어나 보이지만, 여전히 배제·포섭의 제도적 장치들과 접촉하는 지점에 놓인다. 이 때문에 '그렇게 있음'은 전통적 술어화로 환원될 수 없는 비-술어적 존재형식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즉 존재 방식 자체가 술어가 되기를 거부하거나, 초과하는 양태인 것이다.

아감벤의 존재론적 규정은 윤리적이고 공동체적 함의로 이어진다. 아감벤이 특이성을 '임의적'이라 부르고 더 나아가 '사랑스럽다(amabile)¹⁰⁾'고 역설한다. 이는 개인의 특이성이 그 자체로 수용될 만한 가치를 지니며, 공동체는 서로의 그러함들을 인정하고 타자를 '사랑스럽게' 수용하는 방식으로 재편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적 개인들은 '무엇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든'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생산한다.

결국 존재에 대한 호의는 공통성이나 그를 사랑할 마땅한 이유가 부재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러한 타인의 그러함을 근거 삼지 않는 것은, 인식론적 한계와 관점의 불가피한 차이에 대한 앞에서 비롯된다. 이는 세계를 파악하는 주체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체성을 벗어난 호의를 가질 때, 그 사유 위에서만 타자의 존재는 침해되지 않은 채 드러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성질을 지니며, 상이한 경험속에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조건 속에서 타자를 동일한 범주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폭력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존재에 대한 호의는 타자를 이해하려는 시도 이전에, 이해 불가능성 자체를 견디는 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아감벤과 장자가 강조하는, 나의 정체성을 유보한 채 타자의 그러함을 긍정하는 태도. 타인 앞에서 나의 존재를 포장하지 않고, 타인의 존재를 나의 사유 속으로 편입시키지 않으려는 부단한 노력 위에서만 타자와의 관계는 비폭력적으로 성립된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두 철학자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자세이며, 다원적 세계 속에서 인간이 요청받는 윤리적 실천의 핵심일 것이다.

9) 조르조 아감벤, 『도래하는 공동체』, 이경진 옮김, 꾸리에, 2014, 10p

10) 'amabile'은 미적 형용사가 아니라, 수용 가능성(receivability)을 의미하며, 존재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공동체의 규범적 전환-배타적 동일체로부터의 이탈-을 암시한다.

[자유 의 현기증 앞에서 : AI 시대, '유망한 전공'이라는 정답에 관하여]

박주영 멘토

AI시대, 무엇이 '나의 환경'인가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한 뒤 주변인들에게 어떤 과로 전공진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왔으니 진로 고민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대학에 오니 진로 선택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단순히 선택지가 많아서가 아니었다. 세상이 너무 많은 '정답'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I, 데이터, 코딩, 반도체, 바이오. 유망하다는 분야의 이름은 끊임없이 들려왔고, 문과의 전망은 어둡다는 말도 익숙했다. 나 역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어느 순간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가"보다 "무엇을 공부해야 뒤처지지 않는가"를 먼저 묻고 있었다. 아마 지금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도 비슷할 것이다. 성적에 맞는 학과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이제는 "이 학과가 앞으로도 살아남을까", "AI에 대체되지는 않을까"까지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진로를 정할 때 정말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변화 가운데 무엇이 실제로 나와 관련된 '환경'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모든 상황에 통하는 'The One Best Way'는 없다. 이것이 Contingency Theory의 출발점이다.¹¹⁾ 좋은 전략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놓인 환경과 얼마나 잘 맞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AI 시대니까 이공계로 가야 한다"는 말 역시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답일 수 없다. 누군가에게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AI를 개발하는 일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다. 하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리학을 공부하며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거나, 철학을 공부하며 AI의 판단과 책임 문제를 다루는 일이 더 맞을 수 있다. 같은 환경 변화가 모두에게 같은 전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Subjectively Enacted Environment" 개념의 관점에서도 환경은 단순히 밖에 놓여 있는 객관적인 조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많은 외부 변화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각자가 실제로 대응하는 환경은 달라진다. AI의 발전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각자에게 요구하는 선택까지 똑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진로를 고민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Configuration

11) Tom Burns and G. M. Stalker, The Management of Innovation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1961).

Error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환경을 중요한 환경으로 잘못 규정하면 그다음의 전략도 함께 잘못된다. 주변 친구들이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반도체 관련 직무를 희망하기 시작하면 왠지 경제학에 관심 있던 나는 시대 흐름에 뒤쳐진 것 같고, 뉴스에서 AI 인재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동안 관심 있던 학문이 갑자기 쓸모없는 선택지처럼 보인다. 대학 합격선을 보고, 취업률을 보고, 연봉을 비교하는 동안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보다 “남들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판단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물론 지금 하는 이야기는 취업시장과 산업 전망을 외면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모님과 선배의 경험도 중요한 정보다. 다만 정보는 ‘나’의 판단을 돕는 재료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조건과 환경이 나에게도 중요한지, 그 전망이 내가 원하는 삶과 실제로 연결되는지는 결국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남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 방향이 나에게도 맞다는 증거가 아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있다. 그렇다고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된다”거나 “문과는 하던 대로 문과의 길만 지키면 된다”는 말은 아니다. 환경이 크게 바뀌면 기존의 Core Competency가 오히려 Core Rigidity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이는 자신이 잘해왔던 방식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나는 문과니까 기술은 몰라도 된다”, “코딩이나 데이터는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태도 역시 위험하다. 오히려 문과 학생일수록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다. 다만 기술을 배우는 목적이 자신의 관심을 버리고 ‘이과’가 되기 위해서일 필요는 없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통계를 배우고, 철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AI의 작동 원리를 공부하고,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품고 있던 문제를 더 잘 다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때 전공은 나를 규정하는 꼬리표가 아니라 내가 풀고 싶은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된다.

그래서 진로를 정할 때는 외부의 전망만큼이나 Intrinsic Motivation, 즉 자신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내재적 동기를 살펴야 한다. 현실적으로 연봉과 취업률, 사회적 평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몇 년 동안 한 분야를 공부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는 어렵다. 목표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효율부터 계산하면 탐색의 범위는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 아직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가장 빠른 길부터 찾는 셈이다. 고

12) Dorothy Leonard-Barton, “Core Capabilities and Core Rigidities: A Paradox in Managing New Product Develop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3 (1992): 111-125.

등학생 때에는 정해진 과목을 공부하고 주어진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비교적 분명한 목표가 된다. 그러나 대학 진학 이후부터는 다르다. 어떤 수업을 들을지, 무엇을 더 공부할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할지까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 유망한가”만큼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 계속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진로 탐색은 진로와 직업 수행평가처럼 주어진 직업 목록에서 내 미래 직업 하나를 고르는 작업이 아니다. 책을 읽고, 수업을 들어보고, 다른 분야의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실패해보면서 자신이 어느 문제와 질문 앞에서 오래 멈추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 탐색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

자유전공 학생으로서 여러 분야를 접하면서 문과와 이과의 경계 또한 이전보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집단 사이의 틈을 Structural Hole이라고 부른다. 그 사이에 위치한 사람은 한 쪽의 지식과 관점을 다른 쪽으로 옮기며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¹³⁾ 실제로 많은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무에서 만들어내기보다, 원래 떨어져 있던 지식과 분야를 연결하면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전공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문과와 이과 중 하나를 버릴 필요는 없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질문을 가진 사람이 AI와 데이터를 배울 수도 있고, 기술을 공부하는 사람이 역사와 철학을 통해 그 기술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민할 수도 있다. 오히려 AI가 지식을 빠르게 생산하고 기술의 진입장벽을 낮출수록 서로 다른 분야의 언어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능력은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전공을 얼마나 빨리 정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 전공을 선택했고 그것으로 어떤 문제를 다루려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인문사회계열 쪽으로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전망이 없으니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믿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문과가 언제나 안전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기만 하면 특별한 경쟁력이 저절로 생긴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문과 학생에게도 이전보다 더 많은 공부와 탐색이 필요하다. 기술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하면 통계와 코딩도 배워야 하며, 자신의 전공 바깥으로 나가 실제 문제를 만나야 한다. 그러나 그 출발점까지 남에게 맡길 필요는 없다. 인간의 마음이 궁금해서 심리학을 하고 싶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가 궁금해서 사회학을 하고 싶고, 인간이 무엇인지 오래 생각하고 싶어서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그 궁금증 자체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AI가 발전

13) Ronald S. Burt,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한다고 인간에 대한 질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술이 인간의 언어를 쓰고, 판단을 흉내 내고, 인간이 하던 일을 대신하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인간은 무엇인가’, ‘무엇을 인간에게 남겨두어야 하는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은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자유의 현기증 앞에서

진로를 정하는 순간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십 년 뒤 어떤 산업이 가장 유망할지 확실히 알려줄 수 없고, 부모님도 선생님도 선배도 결국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할 뿐이다. 마지막 선택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남는다. 실존주의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이미 주어진 조건 속에 ‘던져진 존재(Geworfenheit)’다. 내가 태어난 환경도, 지금의 산업 구조도, AI가 등장한 시대도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조건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불안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남이 대신 정해줄 수 없는 삶의 선택 앞에 섰다는 신호에 가깝다. 자유(Freiheit)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편안함이 아니다. 자유는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니 대학과 전공을 고를 때 “어디가 뜰다더라”는 말을 가장 먼저 믿지는 않았으면 한다. 대신 직접 읽고, 찾아가고, 해보고, 실패해보며 자신의 판단 근거를 만들었으면 한다. 어떤 분야가 궁금하다면 그 학과의 커리큘럼을 찾아보고, 관련 책 한 권을 직접 읽어보고, 실제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기술이 중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겁먹고 진로부터 바꾸기보다 직접 한번 배워보자. 그 과정에서 생각이 바뀐다면 바꾸면 된다. 그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환경 정의’이다.

특히 인문사회계열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시대가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오래 품어온 질문을 너무 쉽게 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AI가 인간의 일을 더 많이 대신할수록 인간에게 무엇을 맡겨야 하는지, 무엇을 자동화해서는 안 되는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회의 구조를 읽고, 가치와 책임을 묻는 질문은 기술의 발전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가 된다. 문과라는 이유로 주눅 들 필요도 없고, 반대로 문과라는 이름 안에 머물며 새로운 기술을 외면할 필요도 없다. 자신이 오래 품어온 질문은 삶의 중심에 두되, 그 질문을 더 잘 다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얼마든지 새로 가져오면 된다고 본다.

진로를 정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갈 사람인지 스스로 정하는 일에 가깝다. 정답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 두렵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아직 남이 정해놓은 답에 자신을 맞추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두고 '자유 의 현기증'이라 표현했다.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뜻이다. 진로 앞에서 느끼는 불안도 어쩌면 그와 비슷하다. 결국 자유는 편안함과 거리가 멀다. 무엇을 선택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 역시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부담과 고통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남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그렇게 의무를 감당한 뒤에 얻어지는 권리에 더 가까운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진로 앞에서 느끼는 현기증을 반드시 없애야 할 불안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은 아직 선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증거이자, 이제 스스로 자신의 방향을 정해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 자유란 어쩌면 현기증이 사라진 뒤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기증을 견디면서도 한 발을 내딛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 지도 모른다.

공간(空間), 공감(共感)

남궁훈 멘토

"건축은 예술이 아니다."

도시에 단단히 뿌리내린 거대한 조각 같은 건물들을 마주할 때면, 이 단호한 선언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건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형태 뒤에 숨은 무수한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대지의 모양과 방향, 법이 허락하는 높이와 면적, 한정된 예산, 무게를 견뎌야 하는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 선 하나를 긋기 위해 답해야 하는 질문 가운데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놓인다. 예술 작품은 아무런 필요 없이도 세상에 태어날 수 있지만, 건축은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술 작품은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만, 건축은 그 안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진다. 화가는 전쟁의 부질없음을 말하기 위해 대포에 네모난 바퀴를 그려 넣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허락된 것은 오직 둥근 바퀴 뿐이다. 캔버스 위의 네모난 바퀴는 메시지가 되지만, 현실의 네모난 바퀴는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건축과 예술을 가르는 차이는 또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은 벽에서 떼어 내면 그만이고, 불편한 음악은 끄면 된다. 미술관의 작품은 보고 싶은 사람만 찾아가 볼 수 있다. 그러나 건축은 선택할 수 없다. 매일 아침 등갓길에 지나치는 건물,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교실, 몸이 아플 때 찾아가는 병원은 좋은 싫든 우리 삶 한가운데 놓여 있다. 한번 지어진 건물은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수많은 사람의 하루에 끼어든다. 누군가의 개인적인 표현이 그토록 많은 사람의 삶을 오랫동안 붙잡아 둔다면, 그것은 표현이 아니라 강요가 된다. 건축이 예술처럼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자유로워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건축에서 아름다움이 추방된 적은 없다. 피르미타스(firmitas), 우틸리타스(utilitas), 베누스타스(venustas)¹⁴⁾. 튼튼함과 쓸모와 아름다움을 뜻하는 이 세 단어는 2천 년 전부터 좋은 건축을 떠받치는 세 기둥으로 불려 왔다. 다만 베누스타스는 홀로 설 수 없다. 피르미타스를 잃고 무너지는 건물 위에서, 우

14) 피르미타스(firmitas), 우틸리타스(utilitas), 베누스타스(venustas): 기원전 1세기 로마의 건축가가 저서 『건축십서(De architectura)』에서 제시한 좋은 건축의 세 가지 요소로, 각각 견고함, 편리함,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틸리타스를 잃고 아무도 쓰지 못하는 건물 위에서 아름다움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건축 가운데 온전히 예술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덤과 기념비, 곧 살아 있는 사람이 머물지 않는 건축뿐인지도 모른다. 삶이 떠난 자리에서만 예술이 될 수 있다면, 건축의 본질은 결국 삶이 머무는 자리에 있다. 고로, 건축은 예술이 아니다.

여백의 효용성

그렇다면 건축은 무엇을 짓는가. 흔히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건축이 정말로 짓는 것은 벽이 아니다. 공간(空間)이다. 글자 그대로 '비어 있는 사이'. 벽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벽을 세우는 이유는 벽과 벽 사이에 생겨나는 빈 곳을 얻기 위해서다. 바퀴살이 아무리 많아도 수레를 굴러가게 하는 것은 가운데의 빈 곳이고, 그릇의 쓸모는 흙이 아니라 그 속의 비어 있음에서 나온다는 동양의 오래된 통찰은 건축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집의 실체는 지붕과 벽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이 펼쳐질 빈 곳에 있다. 조각은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완성되지만, 건축은 사람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에야 비로소 경험된다. 공간이야말로 건축의 진짜 주인공인 셈이다.

우리의 옛집에서도 이 비어 있음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한옥의 마당은 아무것도 채워 넣지 않은 빈 땅이다. 그러나 그 빈 땅 위에서 곡식을 말리고, 잔치를 벌이고,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정해진 쓰임이 없었기에 오히려 모든 쓰임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빈 곳은 모자람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무엇을 채울지 미리 정하지 않았기에, 그 안에 들어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펼쳐놓을 수 있다. 좋은 공간은 사람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사람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머물 수 있도록 넉넉한 여백을 남겨 둔다.

공간이 장소로

그러나 비어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빈 곳에 삶이 스며들 때 공간은 '장소'가 된다. 똑같은 크기의 네모난 방이 누군가에게는 매일 아침을 맞는 자기만의 방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친구들과 떠들던 교실로 오래 기억된다. 고대 로마인들이 모든 장소에 그곳을 지키는 혼, 게니우스 로키(Genius Loci)¹⁵⁾가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공간은 그 안에 쌓인 시간과 기억으

15) 게니우스 로키(Genius Loci): '장소의 혼'을 뜻하는 라틴어이다. 고대 로마인들은 모든 존재에 수호신인 '게니우스'가 깃들어 사람과 장소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 성격과 본질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로 저마다의 얼굴을 갖는다. 학교의 시작을 떠올려 보자. 처음의 학교는 건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 그루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깨달은 한 사람이 몇몇과 그것을 나누던 자리, 그곳이 최초의 교실이었다. 교실이 있어서 배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배움이 먼저 있었고 건축은 그 배움을 더 온전히 담기 위해 뒤따라왔다. 먼저 삶이 있고, 그다음 공간이 있으며, 건물은 가장 마지막이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공간은 끝내 비어 있는 채로 남는다. 사람이 찾지 않는 광장, 아무도 앉지 않는 벤치, 화려하지만 누구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건물은 모두 이 순서를 잊은 결과다.

오감의 건축

그렇다면 사람은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우리는 건축을 '보는 것'이라 믿는데 익숙하다. 사진 한 장, 화면 속 이미지로 건물을 접하는 시대에 그 믿음은 더욱 굳어졌다. 그러나 사람은 눈으로만 공간을 기억하지 않는다. 발끝에 전해지는 바닥의 단단함, 복도를 따라 번지는 발소리의 울림, 비 갠 뒤 마당에서 올라오는 흙냄새, 한여름 손바닥에 닿는 돌기둥의 서늘함. 공간의 질은 형태만이 아니라 온도와 빛과 소리로 가늠된다. 다섯 가지 감각 가운데 시각 하나에만 기대어 지어진 건축은 사진 속에서는 근사할지 몰라도, 그 안에 선 몸에게는 어딘가 텅 비어 있다.

감각은 시간과도 함께 움직인다. 같은 교실이라도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올 때와 해 질 녘 붉은빛이 책상 위로 길게 드리울 때 전혀 다른 공간이 된다. 비가 오는 날에는 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교실을 감싸고, 겨울이면 창가 자리의 차가운 공기가 먼저 계절을 알린다. 낮고 좁은 입구를 지나 넓고 높은 공간에 들어설 때 저절로 숨이 트이는 것처럼, 공간은 몸의 움직임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기도 한다. 건축은 멈춰 있는 사물이지만, 그 안의 경험은 빛과 계절, 그리고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는 온몸으로 공간을 느끼고, 온몸으로 공간을 기억한다.

감각의 공감, 공감의 감각

감각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공감(共感)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좋은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그 공간에 들어설 누군가의 몸이 되어 보는 일이다. 키 작은 아이의 눈높이에서 창밖은 어떻게 보일까. 무릎이 불편한 노인에게 이 계단

은 몇 번째 칸부터 버거워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발소리의 울림과 손끝의 감촉만으로 이 복도를 읽어 낼 수 있을까. 휠체어에 앉은 사람에게 이 문턱은 얼마나 높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병원 대기실의 빛과 소리는 어떻게 느껴질까. 이런 질문은 도면 위의 치수만으로는 떠오르지 않는다. 타인이 느낄 온도와 빛과 소리를 먼저 느껴 보려는 노력, 감각을 통해 타인의 자리에 서 보는 공감의 있을 때 비로소 떠오른다.

공감으로 지어진 공간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사람들은 계단이 편안한 이유를, 대기실에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이유를 굳이 알아채지 못한다. 그저 그 공간에 오래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어질 뿐이다. 반대로 공감이 빠진 공간은 금세 몸이 먼저 알아챈다. 이유 없이 피곤한 복도, 앉을 곳 없는 광장, 눈부시기만 한 창가는 누군가의 감각을 헤아리지 않은 흔적이다. 결국 건축의 수준은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감각을 헤아렸는가로 드러난다. 감각은 공간을 경험하는 통로이고, 공감은 그 통로를 따라 타인에게 닿는 일이다.

행위의 그릇

다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간다. 건축은 예술이 아니다. 건축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군가 그 안에 들어와 살아 내기 전까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기 때문이다. 공간(空間)과 공감(共感)은 받침 하나의 거리를 두고 마주 서 있다. 하나는 비어 있음을, 다른 하나는 함께 느낌을 말하지만, 둘은 서로가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 비어 있는 공간은 누군가의 삶이 채워질 때 의미를 얻고, 그 삶을 헤아리는 공감이 스며들 때 비로소 사람의 자리가 된다. 건축은 벽을 쌓는 일이 아니다. 타인의 감각을 먼저 느끼고, 그가 머물 자리를 조심스럽게 비워 두는 일이다.

내일 아침 교실 문을 열 때, 한 번쯤 책상과 칠판이 아닌 그 사이의 빈 곳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곳의 빛과 소리와 온도 속에는, 이미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이 조용히 앉아 있을 것이다.

행정학은 공무원 시험을 위한 학문일까?

권나영 멘토

행정학과 진학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행정학과에 가면 공무원 시험 공부만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저 역시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는 행정학이라고 하면 정부나 공무원에 대해 배우는 학문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직접 행정학을 공부해보니 생각보다 다루는 범위가 훨씬 넓었습니다. 왜 비슷한 정책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잘 작동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지, 정부조직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사용해야 하는지,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등 생각보다 다양한 질문을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학을 단순히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공부하는 학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실제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좋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정책학과 규제정책

행정학과에 오면 역시 정책에 관한 내용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정책학을 공부해보니 단순히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가?”만 고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문제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서도 어떤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가 되고, 어떤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정책의제로 받아들여지고,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 정책을 만들고, 실제로 집행한 뒤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과정까지 모두 정책학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정부가 규제를 만들어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의무화할 수도 있고, 보조금이나 세금처럼 경제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문제라도 어떤 정책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제정책을 공부하면서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시장에만 맡겨두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시장실패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부가 개입하면서 새로운 비용이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단순히 나누기보다, 왜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 개입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그 과정

에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지까지 같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문제를 보면 해결책부터 생각하는 편이었다면, 정책학을 배우고 나서는 그 해결책이 정말 가능한지부터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2. 정부도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조직이다: 조직과 인사행정

행정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정부'라고 하면 하나의 큰 기관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은 결국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학에서는 정책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람에 대해서도 꽤 많이 배웁니다. 조직론에서는 정부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조직 안에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조직문화와 의사소통 방식이 구성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배웁니다. 똑같은 제도와 규칙이 있어도 어떤 조직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행정도 단순히 공무원을 뽑는 방법만 배우는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선발하고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함께 다룹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가 있어도 결국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제도가 의도한 대로만 움직이지 않고, 같은 상황에서도 동기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행정학을 배우면서 정책 자체만큼이나 그 정책을 실제로 움직이는 조직과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하고 싶은 정책과 할 수 있는 정책은 다르다: 재무행정과 정책집행

사회문제를 보면 해결방법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를 확대하면 좋겠고, 대중교통도 더 편리하게 만들면 좋겠고, 청년 지원도 늘리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과 인력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무행정에서는 정부가 돈을 어디에서 마련하고,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등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예산이라고 하면 숫자나 회계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부하다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산을 어디에 더 많이 배분하는지는 결국 정부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모든 분야에 원하는 만큼 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정책집행도 비슷했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담당할 기관이나 인력이 부족

하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정작 정책 대상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이용하기 너무 복잡하다면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좋은 정책을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집행할 것인지, 돈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까지 생각해야 비로소 현실의 정책이 됩니다.

4. 내가 사는 지역도 행정학의 연구 대상이다: 지방행정과 도시·지역개발

행정학이라고 하면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의 큰 정책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들도 행정학과 굉장히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권한과 재정을 가져야 하는지, 지역 주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배웁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지역도 있고, 같은 지방소멸 지역이라도 산업이나 교통, 인구구조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똑같은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항상 답은 아니었습니다. 도시와 지역개발을 공부하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기업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교육, 의료와 같은 생활서비스까지 같이 연결해서 봐야 했습니다. 결국 지역발전에서도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만큼 “이 지역에는 왜 이 정책이 필요한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배우다 보면 행정학이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타는 버스 노선이나 지역축제, 청년지원정책, 쓰레기 처리, 재난대응처럼 평소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것들도 사실 대부분 행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5. 그래서 행정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보이면 “이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라는 생각부터 했다면, 지금은 그 뒤에 따라오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정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인지, 개입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필요한 돈과 인력은 있는지, 누가 실제로 집행할 것인지, 정

책을 시행한 뒤에는 효과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행정학 안에서도 이런 질문을 여러 분야에서 나누어 공부합니다. 정책학에서는 정부가 사회문제를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고 해결하는지 배우고, 조직론과 인사행정에서는 그 일을 실제로 하는 조직과 사람을 공부합니다. 재무행정에서는 한 정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사용할 것인지 배우며, 지방행정과 도시·지역개발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살펴봅니다. 이외에도 행정법, 디지털 행정, 공공서비스, 공기업, 성과관리 등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과가 잘 맞는 사람을 단순히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걸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글

행정학을 전공하기 전에는 저 역시 행정학을 정부와 공무원에 관한 학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공부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이 행정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부터 복지정책, 재난안전, 도시개발, 환경정책, 정부조직과 공무원, 예산과 규제까지 모두 행정학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수업에서 던지는 질문도 다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좋은 해결책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있는지, 정책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시행한 뒤 정말 문제가 나아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학과 진학을 고민하고 있다면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 하나만으로 전공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사회문제를 보면서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지?”, “정부가 개입하면 정말 해결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같은 생각을 자주 해봤다면 행정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생각보다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아직 행정학의 여러 분야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 행정학 전체를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할수록 하나의 사회문제에 명확한 정답을 내리는 것보다, 여러 조건과 사람을 고려하면서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행정학은 공무원 시험을 위한 학문이라기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문에 더 가깝습니다.

소록도와 한센인: 시대가 만든 차별과 고립의 공간

정중연 멘토

1. 만들어진 소록도

한센인 거주지인 소록도는 일제시기 이후 한센병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100여 년간 소록도라는 공간에서 한센인들은 자율적이면서도 타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소록도와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한센병은 면역기능이 약할 경우 피부의 감각 기능이 저하되는 등 신경조직이 죽어 신체 자체에 심한 변형을 만들어내는 병이다.¹⁶⁾ 한센병이 쉽게 타인에게 전염되거나 후손들에게 유전된다는 소문은 병에 대한 공포로 이어졌다. 하지만 한센병은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는 전염성이 약한 병이며, 전염된다고 하더라도 약물치료를 통해 전염력 자체가 상실된다.¹⁷⁾ 그럼에도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그 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보다는 한센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고립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의 그늘에서 지금까지 소록도에 남아있는 한센인들에 대하여 고찰하려 한다. 또한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의 고립과 차별의 역사를 파악하고, 소록도라는 특수한 공간이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100여 년간의 소록도 역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소록도의 탄생과 고난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소록도는 1916년 조선총독부가 자혜의원을 지으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 한센병 환자는 사회에 혼란과 두려움을 야기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조선총독부에서는 이들을 관리하려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소록도에 한센인들을 집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용공간을 만들고 환자들을 격리하였다. 소록도 자혜의원의 최초 수용환자 수용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선총독부의 공식적 절차를 통한 강제수용은 오히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¹⁸⁾ 소록도 자혜의원은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센인들을 분리하고 고립시키려는 공간이었다.

자혜의원은 일제강점기 동안 3차에 걸친 토지수용으로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매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을 확장해 나갔다. 제1대 원장인 아리카와 토오

16) 김재현, 『소록도 100년의 이야기 : 1916-2016』, 서울 : KIATS, 2016, 19-20쪽.

17) 김재현, 위의 책, 2016, 20.

18) 정근식, 김영숙, 「일제하 소록도 자혜의원 설립 및 확장에 따른 토지수용과 주민저항에 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9(2), 2016, 230쪽.

루는 당시 한국 전체에 가해진 무단통치의 흐름에 맞추어 한센인들에게 극단적인 일본식 생활을 강제하였다.¹⁹⁾ 이는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소록도의 취지에 처음부터 벗어난 것으로, 일제시기 일본문화를 강요했던 사례 중 하나이다.

1930년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한센인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일제는 한센병 환자 전국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소록도 전체를 매수해 전국 환자를 강제이송, 격리하는 정책을 강력히 시행했으며 계획에 따라 소록도 원주민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냈다.²⁰⁾ 이 정책을 위해서는 한센인들의 수용공간을 증대할 필요가 있었다.

소록도 자혜의원에서 명칭이 변경된 소록도갱생원 확장공사를 1933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이 공사과정은 일부 기술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내부 환자들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 소록도갱생원은 그들을 격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확장공사를 일제는 식민지인을 위한 업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소록도에 있었던 한센인들에게는 그들이 치료받고 휴식할 공간을 건설하기 위해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소록도 확장공사에 포함된 중앙공원은 소록도에서 가장 고지대에 있는 곳으로 암석을 배치하고 진귀한 나무를 심기 위하여 바닷가 선착장에서 거대한 암석을 운반하였으며, 정작 완공 이후 한센인들의 문화생활 향상이라는 목적과 달리 한센인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²¹⁾ 이 공원은 소록도에 있는 한센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한센인들의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전시(展示) 공간으로서 소록도를 방문하는 고위 인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이후에 지속된 한센인들의 강제노동은 소록도를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강제수용의 공간으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집단수용소로의 전환은 식민지 지배 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섬이라는 고립된 지역으로 외부노출이 제한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위험인자를 격리 수용한다는 명분이 있었기에 노동력 착취가 수월하게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²²⁾

당시 한센인들은 소록도갱생원 건설을 위한 강제노동 외에도 불임 시술과 같은 수많은 비인권적 학대를 당했다. 소록도라는 공간은 단순한 의료공간이 아니라 사회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강제 격리가 이루어진 공간이었다. 소록도갱

19) 김재현, 앞의 책, 2016, 43-44쪽.

20) 이병례, 『소록도 한센병환자의 강제노역에 관한 조사』, 서울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6, 8쪽.

21) 이병례, 위의 책, 2006, 13쪽.

22) 박경동, 「소록도 공간의 의미변화와 한센인 공동체의 대응」, 『지역사회학』, 2010, 108-109쪽.

생원 신사는 환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한센병 환자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정관수술을 시행한 감금실과 검시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장소이다. 특히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단종 수술은 한센인들을 공간적으로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외부와 차단시켰다. 한센병에 대한 유전설은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낙인이 되었다.

3. 해방 이후 소록도의 혼란

소록도라는 공간의 탄생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제의 폭압은 1945년 해방으로 종료되는 듯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해방은 소록도에서 직원과 한센인의 관계에 혼란을 발생시켰다. 비록 원장을 포함한 일본인들은 소록도를 떠났지만, 억압적 방식으로 원생들을 관리하던 직원들은 소록도에 남아있었다. 이는 소록도에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한센인들이 직원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록도 한센인을 탄압하고 고립시키는 데 동조한 직원들과 한센인과의 갈등은 점차 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해방 직후 일어난 한센인들에 대한 직원들의 학살로 결국 90여 명의 마을대표자 가운데 84명이 죽임을 당했다.²³⁾

해방 이후 1948년에 부임한 원장 김상태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탄압을 당시 한센인에게도 자행했다. 그는 환자 거주지를 구별하여 두 곳을 통하는 도로 입구에 문을 만들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한센병에 걸린 부모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경계선 도로 양편에 떨어져 서서 면회하는 것을 허락했다.²⁴⁾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자국민에 의해 다시 고통받게 된다.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 5일에 북한 인민군이 소록도에 상륙한다. 이에 한센인들은 인민 교육과 공산주의 강연을 받아야 했다. 또한 공습에 대비한 방공호 파기에 강제로 동원되는 등 고난이 이어졌다. 이후에도 한국전쟁 중 소록도 주민들의 목숨이 위협받거나 직원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소록도는 한센인들을 수용하는 공간이었다. 1951년 보건부는 군의 협조를 받아 한센병 환자 120여 명을 소록도로 강제 이송해 수용할 계획을 밝혔으며, 그 다음 해 보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센병 환자 약 80여 명을 단속해 소록도로 이송하겠다고 발표했다.²⁵⁾ 한센인들은 치료 대상이기 보다 한센병에 걸리지 않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취

23) 김재현, 앞의 책, 2016, 118-119쪽.

24) 김재현, 위의 책, 2016, 129쪽.

25) 김재현, 위의 책, 2016, 139쪽.

급받았다. 이는 소록도가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유지되었던 차별과 격리의 공간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4. 1960년대 이후 소록도의 변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소록도에 조창원 대령이 원장으로 부임하였다. 조창원 원장은 한센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비인권적 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 지대를 구분하던 규정을 없애고 직원과 한센인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한편 조 원장은 소록도 환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마도 간척사업을 시작한다. 이전의 한센인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면 이제는 사회복귀를 위한 예비단계로 노동력을 이용해 자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 것이다.²⁶⁾

하지만 오마도 간척사업은 보호 장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한센인 중심의 노동으로 이루어졌기에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더구나 오마도 간척사업은 소록도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도 큰 반발을 일으켰다. 간척사업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생업을 위협한다는 점과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반대의 주된 근거였다.²⁷⁾ 간척사업의 난항으로 조창원 원장은 교체되었고, 결국 한센인들의 정책 계획은 무산되었다, 위와 같은 한센인들의 목표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한센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수자의 의견을 묵살하는 시대적 상황은 일제강점기부터 지속된 한센인들의 고립을 이어지게 했다.

1960년대 이후 한센인에 대한 강제 격리규정이 없어지면서 외부 사람들이 봉사하거나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2009년에 소록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소록대교가 개통되면서 소록도 병원의 방문이 수월해졌다. 이후 소록도라는 공간에 대하여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변화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일제하에 자행된 강제노역과 해방 후 한국 정부에서의 한센인 인권침해에 대하여 보상 문제가 논의되었다. 2004년 일본의 한센인 강제격리정책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고 지속적인 항의로 일본 국회는 소록도갱생원을 보상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결국 갱생원 한센인들을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였다.²⁸⁾ 또한 해방 이후 대한민국 내 한센인의 격리와 폭행, 강제노역에 대한 진상규명은 2005년에 이르러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고 진상조사 결과 피해자 6,462명을 공식 인정했

26) 박경동, 앞의 글, 2010, 112쪽.

27) 김재현, 앞의 책, 2016, 176쪽.

28) 전종숙, 최원규, 정무성, 「소록도 한센병 배상소송 후 한국 한센인들의 해원(解冤)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71(3), 2019, 158쪽.

다.²⁹⁾ 이렇게 일제강점기부터 차별받고 배척당한 한센인들의 피해가 일부 보상받고 있으나 그들의 상흔을 온전히 치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5. 그들의 공간은 어디인가

위에서 소록도와 소록도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의 고립과 차별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일반인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격리 및 통제 정책은 전국에 있는 환자들을 모아 소록도에 수용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당시 일본은 한센병 환자들에게 소록도병원 시설 확충을 위해 강제노역을 강요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센병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해방 이후에도 한센인들은 자국의 국민으로부터 수많은 차별을 받았으며 섬과 인접한 주민들로부터도 경멸과 배타적인 시선을 받았다. 이러한 시선은 한센인에 대한 학살 및 단종 수술과 같은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비록 최근 그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받은 상처는 그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아 있다.

한센병 환자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일제강점기부터 자신들의 공간에서 추방되어 강제로 소록도라는 특수한 공간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사회의 편견과 오해 속에서 소록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강제수용으로 인해, 사회적 멸시와 차별로 인해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한센인만의 공간으로 그 비극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제는 소록도와 같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고립의 공간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재현, 『소록도 100년의 이야기 : 1916-2016』, 서울 : KIATS, 2016
- 김재형, 오하나, 「한센인 수용시설에서의 강제적 단종·낙태에 대한 사법적 해결과 역사적 연원」, 『민주주의와 인권』 16(4), 2016.
- 박경동, 「소록도 공간의 의미변화와 한센인 공동체의 대응」, 『지역사회학』, 2010
- 이병례, 『소록도 한센병환자의 강제노역에 관한 조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6.
-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 지성사, 2013.
- 전종숙, 최원규, 정무성, 「소록도 한센병 배상소송 후 한국 한센인들의 해원(解冤)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71(3), 2019.
- 정근식, 김영숙, 「일제하 소록도 자혜의원 설립 및 확장에 따른 토지수용과 주민저항에 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9(2), 2016.

29) 김재현, 앞의 책, 2016, 237쪽.

세종우리누리 멘토단
강서영 권나영 김건우 김은지 김지우
남궁훈 남성준 박주영 이상비 심채연
이수민 정중연 홍슬기